

D174-1 / 2003. 5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농업통계연구<sup>1</sup>  
농업통계 보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농업통계연구<sup>1</sup>  
농업통계 보정에 관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황 수 철(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연구참여자: 박 섭(인 제 대 교 수)  
유 영 봉(제 주 대 교 수)  
조 석 곤(상 지 대 교 수)

##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세기 100년의 농업통계에 관한 연구'의 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농업통계 연구① 『농업통계의 보정에 관한 기초연구』

농업통계 연구②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

2. 『농업통계의 보정에 관한 기초연구』는 1910-2001년에 매년 공간된 통계집의 농업생산 및 생산요소에 관한 통계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보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연구 방법과 수록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제2장은 이용 자료와 검토 및 정비 대상 통계에 관한 설명이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06-1942)』와 『농림통계연보(1952-2001)』를 기본자료로 하고, 『농업통계서(1921-1930)』와 『농업통계표(1931-1940)』, 『작물통계』 『농협연감』 『농약연감』 『양정자료』 『비료편람』 등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농가인구·경지면적·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생산 투입요소 계열, 곡류·두류·서류·과실류·채소류·특용작물·기타·축산의 작물별·축종별 생산 통계를 검토 및 정비대상으로 하였다.

- 3) 제3장은 일제시기부터 현재까지 농업통계조사의 전개 과정과 통계상의 변동 내역에 대한 개관으로서, 통계조사 방법과 대상, 도량형, 수록 통계의 발표 형식 등의 변동 과정과 내역 및 그 조정 방안 등에 관한 설명이다.

- 4) 제4장은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에 수록된 통계표에 관한 해설로서, 제3장에서 제시한 도량형과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불일치·불연속 통계자료의 조정 방안에 따라 조정된 시기와 조정 내용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면 먼저 제4장의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제5장은 장기 농업통계의 보정에 따르는 난점과 이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밭벼·밀·콩·팥·고구마·과·노지배추·노지호박의 1955-2001년 생산량 통계치를 예로 들어 공간된 통계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통계조사 방법 등이 변경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

래프로써 보여주고 있다.

- 6) 제6장은 기존의 통계치를 수정해본 시론으로서, 1920-35년의 쌀 생산량, 1966-79년의 쌀 생산량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수정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정 결과를 1911-1940년과 1937-2001년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7) 부록은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경지·농가·작물별 수록기간과 단위 및 이용자료에 관한 해설표(해방 이전)와 품목별·연도별 통계의 특이사항에 관한 해설표(해방 이후), 해방 전과 후의 원 통계자료에 오류가 있는 부분의 원래 통계치와 수정치를 정리한 표를 수록한 것이다.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는 물론 공간된 통계집에서 장기 시계열 통계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다.
3.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은 위의 연구 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정한 농업통계 자료를 표로서 정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 1) 『보정 농업통계표: 1910-2001년』에는 1910-2001년의 농업통계를 전국 및 도별로 제시한 통계표만 수록하고, 별도의 설명이나 각주 등은 수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면 먼저 『농업통계의 보정에 관한 기초연구』, 특히 제4장과 부록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한다.
  - 2) 수록된 통계자료는 공간된 통계집의 통계자료 중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고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였으며, 통계조사 변경 시기 전의 통계치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방법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 통계집의 통계수치와 다른 경우가 많다.
4. 이번 연구는 장기 농업통계의 본격적·체계적인 추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갖고 있다.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연구를 맡아 주신 황수철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 차 례

I. 과제 설정 .....	1
II. 정비 원칙 .....	3
1. 기본원칙 .....	3
2. 자료 및 정비대상 .....	6
2.1. 해방 이전 .....	6
가. 자료 .....	6
나. 정비대상계열 .....	8
2.2. 해방 이후 .....	9
가. 자료 .....	9
나. 정비대상계열 .....	10
III. 자료의 성격 및 보정 .....	11
1. 식민지기의 농업통계조사 .....	11
2. 해방 이후의 농업통계조사 .....	16
2.1. 개관 .....	16
2.2. 농업통계상의 주요 변동내용 .....	19
가. 산출계열 .....	19
나. 투입계열 .....	20
2.3. 기계적 보정내용 .....	22
가. 생산량 .....	23
나. 작부면적 .....	26
다. 토지 .....	27
라. 경상투입재:농약 .....	28
IV. 통계표 해설 .....	29

1. 계열별 통계정비작업내용: 해방 이전 .....	29
2. 계열별 통계정비작업내용: 해방 이후 .....	29
2.1. 산출 .....	30
2.2. 토지 .....	35
2.3. 경상투입재 .....	40
<b>V. 결과요약 및 활용상의 주의 .....</b>	<b>41</b>
<b>VI. 보 론 : 장기농업통계 계열 작성을 위한 예비적 추계:</b>	
— 쌀 생산량의 경우 — .....	51
1. 1920~35년의 쌀 생산량 수정 .....	51
2. 남북한 분할문제에 관해 .....	66
3. 1966~1979년의 쌀 생산량 수정 .....	68
3.1. 농림통계연보의 쌀생산량 과잉추계 검증 .....	68
3.2. 쌀 생산량의 수정계열 추계 : 1966~1979년 .....	73
3.3. 해방 이후 쌀 생산량의 추계 결과 및 음미 .....	78
<b>VII. 부 록 .....</b>	<b>83</b>
1. 계열별 통계정비작업 내용 .....	85
1.1. 해방 이전 .....	85
1.2. 해방 이후 .....	90
가. 공통 .....	90
나. 생산량 .....	91
다. 작부면적 .....	107
라. 축산 .....	113
2. 원자료 오류 수정 등 .....	117
2.1. 해방 이전 .....	117
가. 통계연보의 오류 수정 .....	117
나. 기타사항 .....	117
2.2. 해방 이후 .....	117

## 표 차례

표 1. 단위 환산비율 .....	4
표 2. 행정구역 변동내역(해방 이후) .....	5
표 3. 생산량 조사가 이루어진 최초 연도 .....	7
표 4. 산출계열 .....	10
표 5. 투입계열 .....	10
표 6. 논 면적에 대한 벼 재배 면적의 비율:1916~1940년 .....	13
표 7. 작물별 표본조사방법 실시연도 .....	18
표 8. 미곡 재배면적의 증가율:1914~1937년 .....	54
표 9. 우량품종의 변천 .....	57
표 10. 비료소비량:1921~39년(1925=100) .....	59
표 11. 미곡의 수정 생산량:1911~1940년 .....	62
표 12. 미곡 소비량:1914~1938년 .....	64
표 13. 이시카와와 반성환의 남한 비율의 차이 .....	67
표 14. 남한의 미곡생산량:1936~1940년 .....	68
표 15. 작황시험 재배품종 : 일반계 및 통일계 .....	69
표 16. 작황시험 재배지역 .....	70
표 17. 기술격차 변화율에 의한 일반농가 평균단수 추정:1966~85년, 일반벼 .....	74
표 18. 기술격차 변화율에 의한 일반농가 평균단수 추정:1971~92년, 통일벼 .....	75
표 19. 쌀 생산량 추계결과:1937~2001년 .....	80

## 그림 차례

그림 1. 밭벼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45
그림 2. 밀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46
그림 3. 콩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47
그림 4. 팥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47
그림 5. 고구마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48
그림 6. 파의 생산량 및 단수 추이 : 1955~2001년 .....	49
그림 7. 노지배추의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50
그림 8. 노지호박의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50
그림 9. 미곡 단보당 생산량 : 1911~1940년 .....	56
그림 10. 통계연보 및 시험장 평균단수 비교 : 1966~95년(전국평균) .....	71
그림 11. 품종별 시험장 평균과의 단수격차 지수 : 1966~95년(전국평균) .....	72
그림 12. 일반벼의 평균단수 추계결과 비교 : 1966~95년 .....	76
그림 13. 통일벼의 평균단수 추계결과 비교 : 1971~92년 .....	77
그림 14. 품종별 단수수정에 의한 쌀 전체 단수추계 결과:1966~95년 .....	77
그림 15. 쌀 생산량 추계 결과 : 1937~2001년 .....	78



## I. 과제 설정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농업의 장기성장과정을 수량적으로 해명하는데 필요한 거시경제통계의 기초 시계열을, 공식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기시점부터 최근까지를 대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다. 대상기간은 1910년부터 2001년까지로 한다.

장기간의 농업성장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농업산출과 농업투입통계에 관한 정확하고 일관된 시계열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확하고 일관된 장기통계계열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소·과대 추계, 통계계수 결락 등 통계자료가 갖는 원천적 제약에 기인한다.

현재 공식통계를 통해 발표되는 산출 및 투입계열의 통계수치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시계열을 만들고자 할 때는 계열간의 커다란 단층, 통계계수의 결락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기적 농업성장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을 모두 감안한 추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추계작업은 시도하지 않으며, 향후 본격적 추계를 위한 전제작업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즉, 공식통계들을 충실히 수집·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현 단계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수정 내지 조정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과제를 한정한다.

이렇게 과제를 한정하는 이유는 현재로선 공식통계의 수정을 통한 추계작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계열간의 커다란 단층, 통계계수의 결락 등은 수정·보완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보정 근거의 유무이다. 명백한 보정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선부른 보정 시도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추계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실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격적 추계를 대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진행된 이 연구의 검토결과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제시된다.

제1부는 작업내용 전반의 해설편이며, 제2부는 작업결과 정비된 통계표이다.

먼저 제1부의 II에서는 수집한 통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원칙, 이용한 자료, 정비대상이 되는 계열에 관해 설명한다. III에서는 정비의 기초가 되는 공식통계자료의 성격에 관해 검토한다. IV에서는 제2부의 통계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설명이 부가된다. V는 작업결과의 요약으로서 여기서는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공식통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VI은 보론이다. 여기서는 쌀 생산량에 관한 예비적 추계작업에 관해 서술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통계계열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계열추계를 시도하지 않지만, 향후 '한국의 장기농업 경제통계 계열'을 생산하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 쌀의 생산량을 대상으로 수정계열 추계를 시도한다. 공식통계에 나타나는 쌀 생산 통계 계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현 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쌀 생산량 계열을 제시한다. 끝으로 VIII은 부록으로, 여기서는 정비대상으로 된 각 계열별 작업내용을 상술하며, 작업을 통해 발견된 원자료의 오류와 그 수정내용을 제시한다.

제2부에는 작업의 결과 정비된 통계표를 수록한다. 여기서는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도별 수준의 통계와 전국 수준의 통계를 대상계열별로 제시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해방 이전과 이후는 1945년을 기점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2부의 해방 이전 통계표는 1910년부터 1942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며, 해방 이후의 그것은 193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된 것이다. 이는, 해방 이전 및 이후의 공식통계가 포괄하는 대상기간을 염두에 두고 통계표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의 경우 조선총독부 공식통계인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1942년까지만 제시된다. 그리고 1943년 이후의 통계는 미군정과 한국정부에서 소급정보 형태로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937년까지 소급하여 제시되고 있다.

## II. 정비 원칙

### 1. 기본원칙

우선, 이 연구에서는 추계는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거나 타당한 보정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시도한다. 즉, 연차별 시계열통계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적 흐름(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른 계열의 단층 등), 일부 연도 통계계수의 결여 등에 관련하여 명백한 보정재료(근거)가 없는 한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산상 혹은 기재상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계수는 수정하고 정정표를 제시하며, 불연속이 뚜렷한 계열에 관해서는 계열 이용상의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또한, 행정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조사방법이 변경되면서 공식적으로 행정조사계열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나, 행정조사계열과 표본조사계열이 동시에 제공되는 등 일정한 보정재료가 존재할 경우에는 원계열의 변동추세를 반영시키면서 조사방법변경에 따른 교란을 배제하는 방법(이하 '기계적 보정'이라 함)으로 최소한의 조정을 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해방 이후에만 해당된다. 해방 이전의 경우 보정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에서 공식통계로 발표된 자료에 의거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공식통계에서 제공되는 동일연도의 수치가 발간연도에 따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방이후에는 최근 연도 발간자료의 수치가 옳다고 보고 정리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도별 수준과 전국 수준의 통계를 모두 정비한다. 이때 도별 수준 통계의 경우 공식통계자료에서는 단년도 수치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수준의 통계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도별 통계치의 합과 전국 통계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전국수준의 통계치를 근거로 도별 통계치를 기계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 단위 환산비율

원래 단위	농작물명	수정 단위	수정/원래	계산 근거
정보		ha	0.99174	
관		kg	3.75	
근		kg	0.6	
석	쌀, 찹쌀, 옥미	kg	144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보리	kg	99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밀, 쌀보리	kg	135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라이보리	kg	126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콩	kg	135	농림통계연보 1952
석	팥, 녹두	kg	150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땅콩	kg	66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채두, 완두	kg	144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조	kg	114	농림통계연보 1952
석	피	kg	72	농림통계연보 1952
석	기장	kg	108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수수	kg	132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옥수수	kg	135	농림통계연보 1952
석	귀리	kg	78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메밀	kg	98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누에고치	kg	32	농업통계표와 총독부 통계표에서 계산
석	참깨	kg	98.62	농림통계연보 1952
석	들깨	kg	56.2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아주까리	kg	113.3	농림통계연보 1952
석	우유	liter	180.4	농업통계표와 총독부 통계표에서 계산

넷째, 통계정비작업은 해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정비된 계열도 별도로 제시한다. 해방 이전과 이후의 농업통계간의 갭은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의 추계작업 없이 하나의 계열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양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방 이전의 통계는 1910년부터 1940년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는 1937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수치를 포괄한다. 그리고 해방 이전의 통계는 남북한을 합한 조선 전체(全鮮)의 자료이며, 해방 이후의 그것은 원칙적으로 남한만의 통계자료이다.

다섯째, 해방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되, 장차 양 시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염

두에 두고 식민지기의 생산량 및 면적 단위는 해방 이후의 그것과 일치시켜 두었다. 이때 적용된 단위 환산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2. 행정구역 변동내역(해방 이후)

1949.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li> <li>·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덕도면과 시흥군 도림리, 반대방리, 구로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li> </ul>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화천군이 경기도 포천군에서 강원도 관할로 돌아옴</li> </ul>
196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9개리와 구리면의 5개리(목동, 중화, 상봉, 신내, 망우리), 광주군 구천면, 언주면, 중대면과 대왕면의 5개리(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리),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 부천군 오정면의 2개리와 소사읍의 7개리, 시흥군 신동면과 동면의 5개리(시흥, 독산, 가리봉, 봉천, 신림리)가 각각 서울시로 편입</li> <li>·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li> <li>· 울진군이 강원도 관할에서 경상북도로 편입</li> <li>· 부산시를 정부 직할시로 승격. 동래군의 구포읍, 사상면, 북면 및 기장면 송정리를 부산시로 편입</li> <li>·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li> <li>·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편입</li> </ul>
198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가 정부 직할시로 승격·분리</li> <li>· 대구시가 정부 직할시로 승격·분리,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읍, 고산면과 칠곡군 칠곡읍이 대구시로 편입</li> </ul>
1986.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시가 정부 직할시로 승격·분리</li> </ul>
198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광주 직할시로 편입</li> </ul>
198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을 통합하여 대전 직할시로 승격·분리</li> <li>·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일원과 의창군 천가면 일원이 부산시에 편입</li> </ul>
199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응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li> <li>· 인천광역시 북구 서운동 일부가 부천시 오정구로 편입</li> <li>·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일부와 오류동 일부를 광명시 광명동으로 편입</li> <li>· 광명시 천산동, 하안동, 소하동, 광명동 일부와 고양시 지축동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li> <li>·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를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으로 변경</li> <li>· 경상남도 양산군 동부 5개읍 면(기장·장안읍·일광·정관·철마면)과 진해시 응동 2동 일부 (공유수면)가 부산시에 편입</li> </ul>
1997.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로 승격</li> </ul>
200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li> <li>·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도 일부가 김해시로 편입</li> </ul>

여섯째,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는 행정구역에 많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도별 수준의 통계 정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단, 해방이후 지역별로 분리 발표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수치는 분리이전 도에 합하여 제시한다(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에,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에 포함시킨다).

일곱째, 해방 이전과 이후의 연속적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남북 분단의 처리이지만, 통계 계열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분할하여 제시하는 경우 이 문제는 특별히 장애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의 추계작업을 위해 남북 분단에 따른 계열수정의 문제를 「VI. 토론」의 미곡생산량에 관한 예비적 추계작업에서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제시한다.

## 2. 자료 및 정비대상

### 2.1. 해방 이전

#### 가. 자료

조선총독부의 공식통계집인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기초로 하고,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 발행한 『농업통계서』(1921~1930)와 『농업통계표』(1931~1940)를 보완자료로 이용하였다.

일제 후반기 통계는 대한민국 농림부의 『농림통계연보』(1952)에도 1937년까지 소급되어 나와 있으나, 이는 해방 이후 수정된 계열이기 때문에 계열의 연속을 감안하여 이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방 이후'의 통계계열에 포함시켰다.

정비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계연보의 오자 등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수정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한 자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을 보자.

일제시대에는 61개의 농작물 생산량이 조사되었다. <표 3>을 보면, 1907년에는 14개 작물의 생산량이 조사되었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에 실제로 생산된 작물은 61개를 훨씬 넘으며, 통계로 잡히기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던 작물도 적지 않다. 통계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 생산량조사의 포괄 범위가 실제 재배되는 작물의 숫자를 밑도는 점은 향후 추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3. 생산량 조사가 이루어진 최초 연도

연도	품목	품목 수
1907	맷쌀, 찰쌀, 보리, 대두, 조, 육지면, 재래면, 삼베, 모시, 들깨, 아주까리, 인삼, 담배, 무	14
1909	밀, 쌀보리, 팥, 피, 기장, 수수, 옥수수	7
1910	귀리, 靑刈大豆, 자운영, 알팔파	4
1912	왕골, 고구마, 감자, 배추, 참외	5
1913	메밀, 사과, 포도, 배	4
1915	녹두	1
1916	땅콩, 참깨	2
1919	닥나무	1
1921	채두, 완두	2
1925	청모시, 고리버들, 제충국, 박하, 헤아리벤티지	5
1930	복숭아, 감	2
1931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호박, 수박, 마늘, 곤약, 고추, 미나리	10
1933	황모시, 아마, 아마씨	3
1936	호밀	1
합계		61

일제시대의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통계 생산 당시부터 오류의 가능성이 지적되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부정확한 면적에 근거하여 산출된 1910년대의 쌀 생산량 통계인데, 그것이 수정된 이후에도 1920~35년의 생산량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를 보정하는 새로운 수정통계계열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1910년대의 통계계열은 전국통계만 제시되고 도별 통계는 없기 때문에 수정계열을 기초로 도별 수치를 일률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정보의 유실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미곡생산통계의 수정은 보론에서 별도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부에 제시된 미곡생산통계는 수정 이전의 자료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정비대상계열

- 경지면적
  - 전답(자소작별), 관개답, 화전
- 농가호수 및 인구
  - 전업·겸업농가 호수
  - 주업·겸업인구수
- 곡류
  - 미곡 : 쌀, 찰쌀, 발벼
  - 맥류 : 보리, 밀, 쌀보리, 라이보리
  - 두류 : 콩, 팥, 녹두, 채두, 완두
  - 잡곡 : 조, 피, 수수, 기장, 옥수수, 귀리, 메밀
- 특용작물
  - 의류작물 : 면화, 삼베, 모시, 청마
  - 깨류 : 들깨, 참깨, 피마자
  - 약용작물 : 제충국, 박하, 인삼, 연초
  - 기타 : 왕골, 고리버들, 닥나무
- 소채류 : 감자, 고구마, 무우, 배추,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마늘, 토란, 고추, 미나리
- 과수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밤



- 녹비 : 청예대두, 청예소두, 자운영, 루상, 힐초, 목숙, 헤아리벻찌
- 잡업 : 빵밭, 누에고치
- 축산업
  - 사육가축 : 축우, 젓소, 말, 돼지, 토끼, 면양, 산양, 칠면조, 닭, 오리
  - 축산물 : 도살한 소, 도살한 돼지, 달걀, 꿀, 우유

## 2.2. 해방 이후

### 가. 자료

해방 이후 시기의 농업통계는 『농림통계연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정비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통계법에 따라 농업센서스,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촌물가 및 임료금지수, 식량작물생산량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등 농업에 관한 정부지정통계조사가 일제시대에 비해 크게 확충되었다. 또한 농업부문에 한정되지 않지만 인구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일반경제에 관한 정부지정 통계에서도 농업부문에 관한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면서 폭넓은 농업통계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 통계는 『농림통계연보』이다. 이 통계서는 1952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종합통계서로서, 1984년까지는 『농림통계연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다가 1985~96년까지는 『농림수산통계연보』로 이후 1997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또한 특별히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통계 14호로서 1955년부터 1978년까지 『식량작물통계』가 발간되었는데, 이 통계서는 1979년부터 전체 작물을 포함하는 『작물통계』로 대체발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년의 『농림통계연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작물통계』~『농협연감』~『농약연감』~『양정자료』~『비료편람』~등도 비교자료로서 함께 검토하였다.

## 나. 정비대상계열

해방 이후 시기의 정비대상계열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산출계열

		품 목 명
곡 류	미 곡	논벼, 밭벼
	맥 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잡 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피, 기장)
두 류		콩, 팥, 녹두, 기타(채두, 완두 포함)
서 류		감자, 고구마
과 실 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기타(자두 포함)
채소류	과 채 류	수박(노지, 시설), 참외(노지, 시설), 딸기(노지, 시설) 오이(노지, 시설), 호박(노지, 시설), 토마토(노지, 시설), 가지
	엽 채 류	배추(노지, 시설), 시금치(노지, 시설), 상추(노지, 시설) 양배추, 미나리
	근 채 류	무(노지, 시설), 당근, 우엉, 토란
	조미채소류	고추(노지, 시설), 파, 양파, 생강, 마늘, 아스파라거스
	기타 채소류	
특용작물		면화, 대마, 저마, 완초, 닥, 들깨, 참깨, 피마자, 제충국, 아마, 박하, 차, 홉, 신서란, 협죽도, 인초, 수세미, 청마, 유채, 양송이, 해바라기, 기타
기 타		담배, 산견량
축산	가 축	한육우(육용우, 축우), 젓소, 마필(말, 노새, 당나귀), 돼지, 면양, 사슴, 개, 산양(재래용, 우유용), 토끼,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꿩, 꿀벌통수
	축산물	우유, 벌꿀

표 5. 투입계열

		내 용
농가인구		농가인구, 전·겸업별 농가인구, 취업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경지면적(논, 밭), 관개면적(수리안전답, 수리조합답,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비료소비		질소, 인산, 카리(성분량)
농약생산		농약생산(성분량)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
농약출하		농약출하(성분량)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종자소독제, 살균살충제, 살비제, 전착제, 기타
농약소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제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팩트, 양수기, 동력방제기구(고성능방제기 : 과수전용, 수도일반용, 분무기, 살분무기), 탈곡기, 건조기(순환식 : 곡물건조기, 평면식 : 농산물건조기), 파종기

### Ⅲ. 자료의 성격 및 보정

#### 1. 식민지기의 농업통계조사

한국에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09년부터였다. 統監府에서 『統計年報』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1906년부터이지만, 거기에는 경지면적, 미곡·대두·인삼·담배·면화·보리·삼베·깨 등 생산량에 관한 추정값이 실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07년과 1908년의 『統計年報』에는 농업생산통계가 완전히 빠져 있다.

1908년에 농가호수, 농업인구, 쌀, 보리, 콩의 경작면적과 수확량, 牛馬의 수, 양잠호수, 병밭의 면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農業統計에 關한 件」이 제출되었으며,<sup>1)</sup> 1909년부터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09년에는 경지면적, 미곡, 대두, 인삼, 담배, 면화, 보리, 삼베, 깨, 특용작물, 잡곡, 닭, 가축 시장, 농촌 임금, 물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및 농작물 무리별 단수가 조사되었다.<sup>2)</sup> 1911년에는 작황 조사가 추가되는 등 이전보다 조사가 충실하게 되었다.<sup>3)</sup>

1916년에 이르러 조사방법은 한층 엄밀하게 되었다.<sup>4)</sup>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배면적: 재배면적은 土地調査事業에 의한 경지면적에서 논둑 등의 경작불능면적을 공제하여 구한다.
2. 단위면적당 수확량: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里長 또는 洞長이 호별로 조사하여 면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한다. 그리

1) 韓國統計發展史 編纂委員會, 『韓國統計發展史(1)』(大韓民國統計廳, 1992) p.115.

2) 같은 책, p.116.

3) 朝鮮農會, 『朝鮮農會報』, 6권 1호, 1911.

4) 農林省米穀局, 「農業統計作成に關する件」, 『朝鮮米穀關係資料』(1937) pp.163~164.

고 면의 논과 밭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고, 한 면에 3개소 이상 1개소 10평을 平세<sup>5)</sup>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한 다음, 앞의 방법과 비교한다.

3.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추정 생산량에 추정 재배면적을 곱하여 구한다.
4. 보완방법: 쌀, 보리, 콩, 조 등은 소작료로 납부되므로 소작료 납부량으로써 수확량을 추정하여 비교한다.
5. 시행시기: 전체 수확량 통계는 土地調査事業이 종료한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

위의 지침은 적어도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료할 때까지는 지켜졌던 듯하다. 총독부가 과세의 기준이 될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지의 수확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독부는 논을 19등급으로 나누었다. 수확량 2석 이상의 논을 가장 우량한 논으로 하고, 3두 이하의 논을 가장 열등한 논으로 했으며, 각 등급 사이의 수확량 차이는 1두로 했다. 논을 19등급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엄밀하게 조사해야 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 미곡연도에 2번의 작황조사를 했는데, 1917 미곡연도에는 9월 24일과 11월 1일에 조사했다.<sup>6)</sup> 臨時土地調査局 訓令 제1호 收穫高等級及地位等級調査規程 중의 제4조가 수확량 조사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논에 관련된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1. 수확량은 기존 秋收記 혹은 기타기록에 의거하여 조사할 것.
2. 수확량은 기왕 5개년의 평균으로 할 것.
3. 平세를 시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성적을 참작할 것.

5) 평예란 執租의 소작지에서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수확량 배분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소작지 가운데 평균적인 作況을 보이는 부분을 직접 베어서 수확량을 확인해 보는 작업을 말한다.

6) 조선총독부, 『조선휘보』, 1918년 1월, p.77.

7) 조석곤,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확립』(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278.

4. 면장/동장/地主總代/지주/소작인/知事人 기타 토지의 사정에 정통한 자의 진술을 참작할 것.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이전만큼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은 듯하다. 조선총독부의 「農作物의 作付段別(附收穫高)의 確實을 期할 件」(1920년)에 따르면, 미곡의 재배 면적은 “논둑 등을 공제하지 않은 토지 대장 면적을 기초로 하며, 실지 地目과 달리 이용되는 경지만큼만 그것에서 공제해서 구한다”라고 1916년의 방침을 수정했기 때문이다.<sup>8)</sup> 전문적인 조사원이 없는 한, 논둑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표 6>에 따르면 1918~35년 사이에 논 면적에 대한 벼 재배면적의 비율이 1을 넘거나 1에 가까웠다. 1916년과 1917년에 그 비율이 1을 넘은 것은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직후 총독부가 1917년 이전의 재배면적만 수정하고 논면적은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9)</sup>

표 6. 논 면적에 대한 벼 재배 면적의 비율 : 1916~1940년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1916	1.13	1921	0.99	1926	1.00	1931	1.01	1936	0.93
1917	1.06	1922	1.00	1927	1.00	1932	0.98	1937	0.94
1918	1.00	1923	0.99	1928	0.94	1933	1.01	1938	0.95
1919	0.99	1924	1.01	1929	1.00	1934	1.01	1939	0.70
1920	1.01	1925	1.01	1930	1.01	1935	0.99	1940	0.93

자료: 朝鮮總督府農林局, 『農業統計表』, 1940년판.

1916년의 지침과는 달리 수확량이 표본실측조사에 따라 구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수확량 조사에 관한 규정은 그 이후의 지침에서도 거듭 나타났으며 1916년의 지침과 일치했다. 1920년에 하달된 「農作物의 作付段別(附收穫高)의 確實을 期할 件」에서는 수확량은 농가 각 호에 대해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일정 면적의 수량, 소작료의 수납 상황 등을 實査하고, 그것을 참조

8) 朝鮮農會, 『朝鮮農務提要』, 1936, pp.1155~1156.

9) 총독부의 수정이 부정확했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인 수정을 행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수정시도는 박섭, 「1912~1940年の 韓國農業生産統計」(『경제학연구』 47-4, 1999)를 참조.

한다라고 규정했다. 1927년에 나온 「農産物 生産統計의 調査方法改善에 관한件」은 里 및 洞에 조사원을 두고, 그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었다.<sup>10)</sup> 그렇지만 표본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sup>11)</sup> 왜냐하면 1936년에 행정보고와 표본조사 양자에 의한 수확량 조사를 모두 수행했는데 단수의 차가 29.76%에 달했기 때문이다.<sup>12)</sup>

당시의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던 미곡에 국한한다면, 의미있는 변화는 1936년에 비로소 일어났던 듯하다. 조사 방법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36년에 공포된 「米穀自治管理法」이었는데,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sup>13)</sup>

1. 일본 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 전체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추산하여 과잉 수량을 추산한다.
2. 과잉 수량의 35%만큼은 일본에서, 43%만큼은 한국에서, 22%만큼은 대만에서 각각 출하를 통제한다.
3. 과잉 미곡의 출하 통제는 미곡 생산자 등으로 조직된 米穀統制組合이 수행한다.
4. 일본 정부가 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한국의 경우는 道가 단위로 됨)에 통제 수량을 할당하면, 연합회가 소속 米穀統制組合에 다시 할당한다.

따라서 과잉 수량의 추산, 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 및 米穀統制組合으로의 할당 등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의 미곡 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1936년을 계기로 조사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을 지낸바 있는 石塚峻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조선의 미곡 생산량은 始政 당시부터의 조사 방법에 의해서 발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믿어도 좋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러한 생산량 조사로서 미곡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했

10) 같은 책, p.1159.

11) 朝鮮農會, 『朝鮮農會報』, 1936년 9월, p.97.

12) 東畑精一·大川一司, 『米穀經濟の研究』, 1939, p.425.

13) 같은 책, pp.45~53.

다.”<sup>14)</sup>

아울러 일본으로의 미곡 이출이 본격화된 1920년대 이후 한국인의 미곡 소비량 감소의 실태를 파악해야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石塚峻은 “특히 종래의 생산량으로서 수급을 추산하면, 한국인의 일인당 소비량이 매우 적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생산량 조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조사하게 할 필요가 痛感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서 1936년에 「米穀生産高調査要綱」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5)</sup>

1. 재배면적: 재배면적은 土地臺帳에 의한 경지면적에서 두둑 등의 경작불능면적을 공제하여 구한다.
2. 단위면적당 수확량: 府·邑·面을 8區로 구분한다. 各區마다 작황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한다. 미곡 생산량 조사원이 상중하 각각에 대해서 평균 1평씩, 府·邑·面당 평균 30개소를 평시하고, 가중 평균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구한다.
3. 조사원: 府·邑·面·學校·農會 등의 직원 또는 府·邑·面 내에 거주하는 적당한 자를 골라 조사원으로 촉탁한다. 하나의 府·邑·面에 평균 8명의 조사원을 둔다.
4. 보완 방법: 독농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5. 총생산량: 단위면적 당의 추정 생산량에 추정 재배면적을 곱하여 구한다.

식민지기의 농업생산 통계는 1918년 이전의 농작물 생산량 통계와 1936년 이후의 미곡 생산량 통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행정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행정보고의 방법을 간략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4) 石塚峻, 『朝鮮における米穀政策の變遷』(東京, 友邦協會, 1983) pp.12~13.

15)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における米穀統制の經過』, 1938, pp.141~157. 朝鮮農會, 『朝鮮農會報』, 1936년 10월, pp.28~34.

최초에 이장이 농가를 방문하여 생산량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이장이 보고된 생산량을 邑·面의 서무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보고했다. 읍·면 공무원은 그 보고를 집계하여 府·郡 서무계의 통계 주임에게 다시 보고했다. 부·군 공무원은 그것을 집계하여 道長官 官房 서무계의 통계 주임에게 보고했고, 후자는 그것을 다시 집계하여 총독 관방 문서과장에게 보고했다. 『農業統計表』 『朝鮮の農業』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등에 실려 있는 식민지 시기의 주요 농업통계들은 앞에서 쓴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 통계에 속했다.<sup>16)</sup>

## 2. 해방 이후의 농업통계조사

### 2.1. 개관

일제 말부터 해방 직후, 대체로 1940년경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0년대 초반 경까지 통계의 정보량은 급속히 감소한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1942년까지 간행되지만 통계수치가 결여된 항목수는 증가한다. 그리고 1943년 이후 공간된 통계서는 우리가 아는 한 거의 없다. 다만, 해방 직후 미군정과 한국정부가 소급정보 형태로 총독부에 의한 계수치를 부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가령, 1954년 공간된 내무부통계국의 『제3회 대한민국통계연감, 단기 4287년』은 한국 領有地에 관한 것을 재집계하여 수록하고 있다. 1950~53년의 한국전쟁기간에 관한 통계도 위 통계연감에 수록되고 있는데, 그 정밀도는 한층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 이후 한국 전체의 통계정비는 급속히 진전된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국민소득통계의 작성작업도 시작된다. 각종 센서스의 실시 및 산업연관표의 작성도 이루어져 1960년대에 들어서면 서서히 선진국형 통계체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결과는 매년 통계국(통계청의 전신)의 『한국통계연감』으로 발표되며, 『농림통계연보』와 같은 분야별 통계연감류의 간행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통계정밀도의 향상을 목표로 한 조사방법의 개선과 가공방법의

16) 韓國統計發展史 編纂委員會, 『韓國統計發展史(1)』, 통계청, 1992, p.125, p.142.



개량도 진전되었다. 농업통계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들어서면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 일환으로 수량표시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쌀의 생산량은 해방 전 및 해방 후 1950년대까지 '석'으로 표시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는 '톤'으로 표시되었다. 농업통계의 연감 등에는 농산물별로 '용적·중량 환산율'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론상은 양자의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 표시가 중복하고 있는 시점에 대해 환산율을 이용하여 두 종류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품목에 따라서는 예상 밖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계 단위의 변경 이외에 조사방법의 변화 등에도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이후 통계의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방법의 변화이다.

생산량통계조사를 예로 들어보자. 생산량(작물)통계조사는 식부면적조사와 10a당 생산량조사로 나뉜다. 1964년까지는 모든 농산물생산통계가 행정조직을 통한 행정조사로 작성되었으나 1965년에 처음으로 미곡 10a당 수량조사가 표본조사로 대체된 이래 점차 표본통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생산량이 표본조사방식으로 조사되는 대상작물은 <표 7>과 같으며, 그 밖의 작물은 여전히 행정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즉, 10a당 생산량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조사방법과 표본조사방법이 병행 실시되고 있다.

한편, 식부면적조사의 경우에는 1973년까지 전부 행정조사에 의거하였으나 1974년에 논벼, 밭벼,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감자, 고구마, 콩, 팥 등 대부분의 식량작물의 식부면적 조사가 표본통계로 전환되었고, 그 밖의 밭작물 식부면적은 1975년부터 4개년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9년부터 표본조사로 전환되었으며 1975년 자료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작물의 식부면적조사는 표본통계로 되어 있다.

애초 작물통계조사는 작물별 식부면적과 생산량을 파악하여 토지이용의 개선, 농산물의 수급 및 증산계획과 가격안정, 농업경영개선 등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일제 때부터 행정통계로 작성되던 것을 과학적인 조사로 개선하기 위해 표본조사방법이 도입된 것이다.

표 7. 작물별 표본조사방법 실시연도

구 분	표본조사방법 실시연도	
	10a당 수량	식부면적
미 곡		
논벼, 밭벼	1965	1974
맥 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1966	1974
서 류		
봄감자, 고구마	1966	1974
가을감자	-	1974
두 류		
콩, 팥	1974	1974
녹두, 기타두류	-	1974
잡 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	1975
채 소		
김장배추, 김장무, 고추, 마늘	1975	1975
양파	1979	1975
과 실		
사과, 배	1987	1975
특용작물		
유채, 참깨, 땅콩	1985	1975
빵 발	-	1974
시설작물	-	1979
기 타	-	1975

그런데 장기간의 연속적 시계열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통계의 표본통계로의 전환은 시계열의 단층을 유발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조사방식의 전환에 따라 『농림통계연보』에는 표본조사 이전의 시기에 대해 소급 수정한 계열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통계조사방법의 변화, 그에 따른 행정통계의 소급수정의 예는 미곡 및 맥류의 경우가 대표적인 바,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농림부는 미국경제협조처(USOM)의 권고에 따라 경제부흥특별기금을 활용하여 1959년부터 미곡(논벼의 단수)에 한해 전국 400개 표본을 선정하여 예비시험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행정조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한

통계고문단에 표본설계를 의뢰하여 1962, 63년에 1,200개, 그리고 1964년에는 2,400개의 포구를 시험조사하는 농림통계개량연구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행정조사가 표본조사에 비해 10a당 평균 26%(70kg) 정도 과소 평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543만석(78만톤)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양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행정통계를 작성하는 일선 읍·면 조사원들의 산업행정 업무량이 과중하여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조사자 주관의 유의조사방법으로 인한 비표본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세금 및 매상량 할당 등의 이유로 생산량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로써 행정통계가 사실과는 상당히 왜곡된 신빙도 낮은 계수라는 오랜 의혹이 확증되자, 1965년부터 道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을 설계하여 실측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농림부는 1959년의 예비시험조사, 그리고 1961~64년간의 시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55년까지 소급하여 수정한 쌀생산량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급시점을 왜 1955년까지로 잡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 2.2. 농업통계상의 주요 변동내용

그러면 이상과 같은 조사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농업통계상의 주요 변동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기서는 산출계열과 투입계열로 나누어 농림통계연보의 검토를 통해 관찰된 주요 변동내용을 열거한다. 이러한 변동내용들은 향후 추계작업을 본격화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 가. 산출계열

1962년부터 생산량의 단위는 '석', '관', '근'에서 '톤'으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다.

1965년 농림통계연보에 따르면, "1961년 이전의 생산량은 행정구역 변경 이전의 조사"라는 점이 명시되고 있다.

미곡은 1965년부터, 그리고 맥류와 서류는 1966년부터 생산량조사가 표본조

사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농림부는 “표본조사 이전의 행정조사에 의한 과거 계수와의 시계열을 볼 수 없으며 생산지수 추세 증가율 등을 계산할 수 없어 통계이용상 지장이 초래되므로 과거 행정조사계수를 잠정적으로 소급 수정한다”고 밝히면서 수정비율을 발표한 바 있다(1967년 농림통계연보, pp.544~546).

한편, 1979년 농림통계연보의 ‘농림업생산지수’의 항목에 “1975년 이전 지수는 작물통계 현실화에 따라 추계한 것임”이라는 설명으로 통계조사방법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식부면적 조사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를 반영한 조정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나. 투입계열

### □ 토지

1974년부터 식부면적 조사방법이 행정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대체되었다. 1973년에 식부면적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식부면적조사 표본을 설계하고, 1974년부터 이 표본에 의한 식부면적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에 따라 맥류, 잡곡, 서류는 1974년부터, 그리고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은 1975년부터 새로운 계열의 전국 생산량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1985년에는 농업기반 변화와 주요 작물의 작부체계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여, 1986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후 1987년부터 새로 설계한 표본에 따른 식부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표본교체에 따른 이전 통계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노동

전·겸업별 농가인구수는 1968년 농림통계연보부터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겸업농가는 1종겸업과 2종겸업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때 1종겸업은 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 농가, 2종겸업은 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

입이 50% 미만인 농가로 정의되고 있다.

농가인구,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연령별 농가인구는 1971~1973년까지는 당년 10월 1일 현재 조사된 수치이고, 1974년의 경우는 12월 1일 현재 표본조사한 수치로 되어 있다(1972년 농림통계연보, p.28, p.48, p.58, 1976년 농림통계연보 p.24).

1990년부터는 농가인구의 연령구분이 변하고 있다. 1987년까지는 14세 미만, 14~19세 미만으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1990년부터는 하한연령을 올려 15세 미만, 15~19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1992년 농림통계연보, p.32).

그리고 1992년 농림통계연보부터는 취업별 농가인구의 하한연령도 14세에서 15세로 바뀌고 있다.

1995년의 농가인구는 「1995년 농업총조사」의 잠정결과에 따라 1994년까지 5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발표되던 연령대가 15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과 이상으로 두 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또 전·겸업별 농가인구가 아닌 농가호수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 취업별 농가인구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1996년 농림통계연보, pp.32~33).

그리고 1998년부터는 전·겸업별 농가인구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 □ 경상투입재 및 자본재

### <비료>

1962년까지는 비료연도가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였으나, 1963년 이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변경되고 있다(1966년 농림통계연보, p.86) 단, 1962년의 비료연도는 1962년 8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1963년 농림통계연보, p.58).

1960년 이전에는 ICA(관수용) 도입과 민간도입(ICA민수 및 수출불에 의한 도입분)으로 비료가 공급되고 소비실적으로는 관수용만이 발표되었다(1961년

농림통계연보, pp.16~18). 그러나 1961년부터는 원조에 의한 공급량도 소비실적으로 잡히면서 이전 소비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962년 농림통계연보, p.16, p.18).

1999년 농림통계연보(p.66)의 비료소비실적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판매분임을 밝히고 있다.

### <농약>

농약생산량은 1976년까지 실물량으로 지역별이 아닌 제조회사별로 전국수치만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이후부터는 1972년까지 소급하여 실물량과 성분량이 동시에 발표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성분량만 발표되고 있다.

농약소비량은 1975년까지 발표되다가 일시 중단된 후 199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농약소비면적과 ha당 소비량이 1979~80년간, 그리고 1985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검토결과 ha당 농약 소비량은 농약출고분을 경지이용면적으로 나눈 것임을 알 수 있다.

### <농기계>

1984년 농림통계연보(p.44)는 농기계 보유현황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96년부터 건조기는 곡물건조기(순환식)와 농산물건조기(평면식)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1991년도부터 소급하여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소급 발표된 수치는 기존 발표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1995년의 건조기 수치는 순환식 건조기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2.3. 기계적 보정내용

앞서 살펴본 농업통계상의 주요 변동내용, 특히 행정조사로부터 표본조사로의 조사방법 변경은 장기간의 통계계열의 정비에 있어서는 시계열의 단층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간의 단층

이 공식통계를 통해 조정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sup>17)</sup>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후 시기간에 커다란 시계열상 단층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층이 분명하게 나타날 경우 보정을 가할 근거가 존재하는 한 구계열에 일정한 조정을 가해 신계열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상의 통계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조정문제 등을 포함하여 보정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바탕으로 기계적 보정을 시도하였는 바, 이하에서 조금 상세히 그 내용을 제시한다.

### 가. 생산량

1962년부터 생산량 단위가 변경되고 있는데, '석'으로 발표됐던 미곡, 맥류, 잡곡, 참깨, 들깨, 땅콩은 석당 중량에 따라 수정한다.

1965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61년 이전 생산량은 행정구역 변경전의 조사”라고 발표하면서 사과, 배추, 특용작물 중 일부 생산량 등이 1961년까지 소급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자료와 새롭게 발표된 자료가 동시에 나타나는 1961~63년간 양 자료간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하고 그 3개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수정한다.

1965년 미곡, 1966년 맥류와 서류의 생산량이 표본조사로 대체되면서 1955년까지 소급 수정된 숫자가 발표되고 있다. 소급 수정이 1955년까지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와의 단층이 불가피한 바, 1954년 이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급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농림부에 의한 수정방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자. 미곡의 경우는 1959, 61, 62, 63, 64년도의 계수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시험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고, 1958년 이전과 1960년의 계수는 수정비율(132.48%)에 의해 수정 현실화한다(1967년 농림통계연보, p.544).<sup>18)</sup> 그런데 논벼생산량은 1965년 표본

17) 물론 이 경우에도 쌀의 소급현실화조치에서 본 바와 같이 왜 특정시점(쌀의 경우 1955년)까지만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등의 의문은 남게 된다.

18)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frac{1959\sim64\text{년산시험조사의생산량합계}}{1959\sim64\text{년산행정조사의생산량합계}} = \text{수정비율}$

조사방법으로 대체조사되어 생산량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밭벼 생산량의 경우에는 표본조사작물에 포함되어 표본조사방법으로 조사된다고 밝히면서도 행정계통을 통한 조사보고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발견된다(1967년 농림통계연보, p.543).

맥류생산량의 수정방법을 보면, 1965년도에 전국을 모집단으로 시험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맥종별로 과종면적의 과대평가, 정곡환산율, 생산량의 과소평가 등을 감안하여 수정되고 있다. 수정비율은 다음과 같다.<sup>19)</sup>

	수정비율	비 고
겉 보 리	194.66%	정 곡
쌀 보 리	132.39%	정 곡
밀	226.30%	알 곡
호 밀	209.90%	알 곡

서류의 경우 표본조사방법으로의 대체조사에 따른 수정에는 1964, 65년도에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원(80개 지역)을 동원, 평굴(坪掘)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수정비율은 고구마 178.53%, 감자 133.29%이다.<sup>20)</sup>

그런데 이러한 수정원칙과 실제의 수정비율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54년 이전 자료의 수정에 있어 실제 적용된 수정비율에 따르기로 한다. 즉, 기존 발표 자료와 수정되어 발표되는 생산량 비율의 3년 평균치를 기존 자료에 적용하기로 한다.

1974년부터 콩과 팥의 생산량은 표본조사 수치로 발표되고 있다(1975년 농림통계연보, 76p). 그러나 1973년 이전까지 행정조사방법에 따르던 생산량의 소급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74년 이전의 통계계열은 행정조사

19) 한편, 1991년 겉보리와 쌀보리의 정곡환산율은 종전의 65%에서 59%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20)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frac{1964,65\text{년산坪掘조사단수}}{1964,65\text{년산행정조사단수}} = \text{수정비율}$



방법, 1974년 이후부터는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계열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작부면적의 조사가 1974년부터 표본조사로 대체됨에 따라 생산량 역시 수정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미곡, 콩, 팥, 고구마의 생산량에는 아무런 조정흔적이 없으며, 맥류의 경우에만 1975년 통계자료 발표시 1955년까지 소급 수정되고 있다. 따라서 맥류에 대해서는 1954년 이전 자료의 수정에 있어 행정통계와 표본조사통계 양 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1955~57년 기간의 양자의 비율의 3년 평균치를 이용하여 수정하기로 한다.

작부면적의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생산량의 수정은 위에서 말한 작물 이외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잡곡, 서류(감자)의 경우 1974년,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1975년까지 소급하여 수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잡곡, 서류(감자)는 1974~76년, 그 밖의 작물은 1975~77년의 기간 동안 신규 양계열 간의 비율의 3년 평균치를 각각 1973년, 1974년 이전 자료에 적용하여 수정한다.

특용작물 중 참깨, 유채, 땅콩의 생산량은 1985년에 표본조사의 도입에 따라 1980년까지 소급하여 새로운 계열로 수정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발표자료와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수정된 발표자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1980~82년 두 자료간 비율의 3년 평균치를 1979년 이전 자료에 적용하여 수정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수정은 전국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道(지역)別 자료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및 도별 자료를 모두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별 계수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조사 계열로 수정된 전국자료에 각 지역별 생산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계적 보정을 가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1962년 경상남도에서 부산이, 1981년에는 경상북도에서 대구,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천이 분리되었고, 1987년에는 전라남도에서 광주가, 1989년에는 충청남도에서 대전이, 또 1998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울산이 분리되어 발표되었다. 이 연구의 지역별 통계자료의 수정에 있어서는 시로 분리되어 발표된 자료를 분리 이전의 각 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량 이외의 자

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작물이 속한 중분류 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의 분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작물명	변경연도	변경분류	변경기간	비 고
귀리	1958년	잡곡에서 맥류로 변경	1937~57년	
땅콩	1982년	두류에서 특용작물로 변경	1937~81년	
생강	1966년	특용작물에서 채소류로 변경	1956~61년	

#### 나. 작부면적

1973년부터 면적단위가 '정보'에서 'ha(1정보=0.99174ha)'로 변경되고 있으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의 경우 '정보'로 발표된 통계수치가 수정되지 않은 채 단위명만 'ha'로 바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작물의 작부면적은 미터법에 따라 수정한다.

1974, 75년에 작부면적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실시되고, 종래의 발표자료와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결과치가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자료간 비율의 3개년 평균치를 구한 후 이를 기존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된 작물과 수정비율 및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본조사자료 발표년도	수정비율		비 고
		산출기준년도	적용년도	
맥류	1975년	1955~57년 평균	1937~54년	
잡곡, 두류, 감자	1978년	1974~76년 평균	1937~73년	두류 중 콩, 팥 제외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	1978년	1975~77년 평균	1937~74년	

미곡, 콩, 팥, 고구마는 작부면적의 조사방법이 바뀌었지만 계열의 수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정재료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수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작부면적 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자료의 수정 역시 전국통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자료는 위에서 수정한 전국 작부면적에 각 지역별 면적의 비율을 구하여 일괄 수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기타로 분류된 작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첫째, 기타 잡곡이다. 1978년 농림통계연보까지 6개 품목(조, 수수, 옥수수, 메밀, 피, 기장)이 발표됐으나, 1979년 농림통계연보부터는 '피'와 '기장'이 '기타 잡곡'에 포함되고 있으며 1974~77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계열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피, 기장으로 구분되어 발표된 자료를 '기타 잡곡'에 포함시킨 후 보정하기로 한다.

둘째, 기타 두류이다. 1979년 농림통계연보부터 두류에서 채두와 완두가 '기타 두류'에 포함되고 있으며, 1974~77년 작부면적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계열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채두, 완두로 구분된 기존 자료를 '기타 두류'에 포함시켜 보정한다.

셋째, 기타 과실류이다. 1979~81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자두'가 '기타 과실류'에 포함됐다가 1982년 농림통계연보부터 다시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발표된 1975~77년간의 자료는 '기타 과실류'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기타 과실류'에 '자두'자료의 추가뿐만 아니라 작부면적 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계열로 수정된 자료이다. 따라서 현재 '자두'가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기타 과실류'에 포함시켜 1975년 이전 자료를 보정한다.

#### 다. 토지

1974년에 경지면적 조사방법은 행정조사방법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87년에는 새롭게 설계된 표본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나 이전 자료에 대해 소급 수정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특별한 보정근거가 없으므로 발표되고 있는 경지면적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1980년 관개시설별 논면적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이 변경되면서 1979년 이전은 전국 합계치에 대해서만 소급수정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74~79년 지역별 관개면적 합계와 수정 발표된 전국합계치 자료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974~79년 지역별 자료에 대한 보정근거가 없어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 라. 경상투입재 : 농약

농약은 전국치만이 발표되고 있다. 1976년까지 실물량으로 발표되던 농약생산량의 1972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성분량으로 수정을 가한다. 1972~76년까지는 농약 실물량과 성분량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들 두 자료간 비율을 살펴보면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는 1972년 두 자료간 비율인 0.15591을 1971년 이전 실물량으로 발표된 자료에 적용하여 농약성분량 계열로 수정하기로 한다.

1975년까지 실물량으로 발표됐던 농약소비량에 대해 1972~75년까지는 농약생산량 실물량과 성분량 두 자료간 비율을 적용하였고, 1972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농약생산량과 마찬가지로 1972년 비율 0.15591을 적용하여 성분량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975년 이후 농약소비량 발표가 중단되다가 1979~80년, 1985~2001년에 농약 소비면적 및 ha당 소비량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농약출고분에 대한 경지이용면적당 소비량이지만, 이것 이외의 농약소비량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종전 1975년까지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기계적으로 보정한다. 즉, 농약소비면적에 ha당 소비량을 대입하여 총 농약소비량으로 간주하고,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1976~1978년은 1974~75년과 1979~80년 각 2개년 간의 농약생산에 대한 소비량 비율의 평균치의 평균을, 1981~84년 자료는 1979~80년, 1985~86년 농약생산량에 대한 소비량 비율의 평균치를 1976~78년과 1981~84년 농약생산량에 적용하기로 한다.

## IV. 통계표 해설

### 1. 계열별 통계정비작업내용: 해방 이전

세부 분류항목별 수록기간과 단위 및 참고사항은 부록에 제시해 두었다.

수록기간은 원칙적으로 도별통계를 제시할 수 있었던 연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도별통계는 제시되지 않지만 『농업통계표(서)』를 이용하면 전국통계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비교에 명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단위는 모두 원자료에 기재된 단위이며, 통계표에 제시된 수치는 이를 근거로 하여 앞의 <표 1>에 제시된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수정한 것이다.

원자료를 입력함에 있어서 합계의 불일치나 이후 연도의 수치 등을 비교할 때 명백히 오류로 판단되는 수치들은 수정하였다.

이 경우 계산 실수나 인쇄시 오식 등 분명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류의 원천이 도별 통계에 기인하는지, 합계의 잘못인지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경우는 도별 통계를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계를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계열별 통계정비작업내용: 해방 이후

여기서는 산출, 투입계열별로 보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보정비율, 보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1. 산출

### ○ 미곡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논벼	1.02	1937~54년	현미로 발표된 미곡 정곡을 백미로 환산	
	0.144	1937~58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3248	1937~54년	미곡 생산량조사가 표본조사로 대체됨에 따른 수정	
밭벼	1.02	1937~54년	현미로 발표된 미곡 정곡을 백미로 환산	
	0.144	1937~58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 ○ 맥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겉보리	0.141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9464	1937~54년	맥류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0.8146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쌀보리	0.141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3237	1937~54년	맥류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0.8028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밀	0.100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2.263	1937~54년	맥류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0.6133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호밀	0.100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2.0985	1937~54년	맥류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0.478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귀리	0.138	1937~58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 잡곡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조	0.142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047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수수	0.141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103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옥수수	0.135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8773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메밀	0.120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112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기타잡곡	0.138	1937~54년	피 생산량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144	1937~54년	기장 생산량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931	1937~73	피와 기장이 기타잡곡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 두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콩	0.135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974년 이후부터 표본조사 결과치임.	
팥	0.150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974년 이후부터 표본조사 결과치임.	
녹두	0.150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6293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기타두류	0.144	1937~54년	강낭콩, 완두, 기타두류 생산량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6116	1937~73년	강낭콩, 완두가 기타두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 서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감자	0.12228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3329	1937~54년	서류 생산량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0.965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고구마	0.1302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77615	1937~54년	서류 생산량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 과실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사과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1165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사과생산량이 기존 생산량과 다르게 발표됨에 따른 수정	
	1.0087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배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9580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복숭아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940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포도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873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감귤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84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감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4787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기타 과실류	0.00375	1937~52년	자두 생산량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00375	1947~59년	기타 과실류 생산량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760	194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생산량이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음.	
	1.4406	1947~74년	자두를 기타과실류에 포함시켰으며,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정	



○ 채소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노지수박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479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노지참외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253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노지딸기	2.153	1971~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노지오이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5604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노지호박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1551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노지토마토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5814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가지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노지배추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017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1960년 이전 자료에 대한 수정	
	3.052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노지시금치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122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양배추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4251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미나리	0.00375	1937~58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노지무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89848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당근	0.00375	1937~58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2.894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우영	0.00375	1937~58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토란	0.00375	1937~58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노지고추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5885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파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4002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양파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1375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1979년부터 양파 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이전 자료에 대해 소급·수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함.	
생강	0.00375	1937~61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2.4738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마늘	0.00375	1937~61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3144	1937~74년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기타 채소류	0.00375	1937~61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451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자료에 대해 수정	

○ 특용작물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면화	0.0006	1937~59년	'근'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1.006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 자료에 대해 수정	
	0.9082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대마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9754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 자료에 대해 수정	
저마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443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 자료에 대해 수정	
완초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0.9525	1937~60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닥	0.00375	1937~61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들깨	0.112	1937~59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120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참깨	0.112	1937~59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3851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0.6539	1937~79년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전 자료에 대해 수정	
피마자	0.113	1937~59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제충국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아마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1.0425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이전 자료 수정.	
박하	0.000047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다른 작물과는 비율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1962년 생산량 발표시 '원유' 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전 생산량을 이에 일치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보임.	
	5.363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자료에 대해 수 정함.	
흡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신서란	0.00375	1937~58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청마	0.00375	1937~61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유채	1.117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1.0389	1937~74년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땅콩	0.132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 변경함.	
	1.1971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0.8434	1937~79년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기타 특용작물	0.00375	1937~59년	'관'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담배	0.132	1937~54년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0.999973	1937~61년	생산량이 새롭게 발표되고 있어 이전 자료에 대해 수정	
	0.001	1937~68년	'kg'에서 '톤'으로 단위변경	

○ 기타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우유	0.18	1954년	'석'으로 발표된 우유생산량을 '톤'으로 단위변경함. (1955년 농림통계연보, p.222 참고)	
별꿀	0.00375	1952~58년	'관'으로 발표된 생산량을 '톤'으로 단위변경함.	
산견량	3.75	1937~58년	'관'에서 'kg'으로 단위변경함.	
	1.000465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생산량에 대해 수정함.	
	0.001	1937~64년	'kg'으로 발표된 자료를 '톤'으로 단위변경함.	

2.2. 토지

○ 미곡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논벼, 밭벼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 맥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겉보리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815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쌀보리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801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밀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613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호밀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479	1937~5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귀리	0.99174	1937~60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 잡곡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조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968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수수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9973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옥수수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882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메밀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1.1216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기타잡곡	0.99176	1937~54년	피 작부면적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다른 작물과는 달리 단위환산율 1정보=0.99174ha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0.99174	1937~54년	기장 작부면적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1.1416	1937~73년	기타잡곡에 피와 기장이 포함됐으며,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 두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콩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1974년 이후부터 표본조사결과치임.	
팥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1974년 이후부터 표본조사결과치임.	
녹두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6213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기타두류	0.99176	1937~54년	강낭콩 작부면적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다른 작물과는 달리 단위환산율 1정보=0.99174ha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0.99173	1937~54년	완두 작부면적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다른 작물과는 달리 단위환산율 1정보=0.99174ha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0.99173	1937~54년	기타두류 작부면적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6111	1937~73년	강낭콩, 완두를 기타두류에 포함했으며,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 서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감자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9707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고구마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 과실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사과	1.001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1960년 이전 자료에 대한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977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배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9375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복숭아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9255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포도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070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감귤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848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감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478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기타 과실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라 자두 작부면적을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라 기타 꺾임 작부면적을 수정.	
	1.3117	1937~74년	자두를 기타 과실류에 포함시켰으며,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에 따른 수정.	

○ 채소류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노지수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058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노지참외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251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노지딸기	0.99174	1971~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2.145	1971~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노지오이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55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노지호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1562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노지토마토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56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가지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노지배추	1.004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647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노지시금치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134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양배추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42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미나리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노지무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657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당근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2.87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우엉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토란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노지고추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9028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파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41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양파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139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생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2.48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마늘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9116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아스파라거스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기타 채소류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 특용작물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면화	1.2117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이전 자료의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8845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대마	0.989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이전 자료의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저마	1.0405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이전 자료의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완초	1.9273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이전 자료의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닥	0.99174	1937~6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들깨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1205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참깨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3882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피마자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제충국	0.99174	1937~71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아마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박하	0.945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이전 자료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차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흡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신서란	0.99174	1937~69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협죽도	0.99174	1937~69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인초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수세미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청마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유채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1.1174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땅콩	0.99174	1937~54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1.1734	1937~73년	작부면적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	
양송이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해바라기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특용작물기타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명만 변경됨에 따른 수정	
담배	1.0015	1937~61년	1962~64년 작부면적이 새로 나타나므로 수정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 기타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뽕밭	0.634	1937~60년	1961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 자료에 대해 수정함.	
	0.99174	1937~72년	'정보'에서 'ha'로 단위변경함.	
	0.543	1937~74년	작부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됨에 따른 수정	

2.3. 경상투입재

	보정비율	보정기간	내 용	비고
농약생산량	0.1559	1951~71년	1972년부터 '성분량'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전 '실물량'으로 발표된 자료를 수정함.	
	0.001	1951~71년	'kg'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농약소비량	0.001	1951~71년	'kg'에서 '톤'으로 단위변경함.	
	0.1559	1951~72년	'실물량'으로 발표된 자료를 농약생산량에서 '성분량'으로 변경시 적용한 수정비율을 적용 수정함.	
	0.1296	1973년	농약생산량에서 '성분량'으로의 각 연도 수정비율을 적용	
	0.1068	1974년	농약생산량에서 '성분량'으로의 각 연도 수정비율을 적용	
	0.0962	1975년	농약생산량에서 '성분량'으로의 각 연도 수정비율을 적용	
	0.9924	1976~78년	농약생산량에 대한 소비량 비율의 각 2개년 평균의 평균치임.	
	0.9567	1981~84년	농약생산량에 대한 소비량 비율의 각 2개년 평균의 평균치임.	



## V. 결과 요약 및 활용상의 주의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통계서들, 즉 『농업통계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농림통계연보』<sup>21)</sup> 등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1910년대부터 최근까지 근·현대 한국농업통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산출 및 투입부문의 주요 변수들에 관해 전국차원 및 지역(도)차원의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시계열통계를 정비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목표였다. 그러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조건 아래에서 연속성 있는 시계열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과 인력 으로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농업통계는 조사방법의 변화 등에 따른 통계계열의 불연속성, 그리고 통계계수의 결락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계열통계가 갖춰야 할 기본적 두 요건인 연속성, 일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간단히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통계를 이용한 장기간의 농업성장분석에서는 경제통계계열의 심각한 단층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된다.<sup>21)</sup>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소·과대 추계, 통계계수 결락 등 통계자료가 갖는 원천적 제약을 배제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즉, 보정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한 추측에 근거를 둔 자의적 수정은 또 다른 통계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작업과정을 통해 우리는 크고 작은 통계계열의 단층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를 보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

---

21) 공식통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시계열분석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이용하는 통계의 성격에 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통계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기계적으로) 시계열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나는 현재의 공식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매년 발간되는 통계서를 엄밀히 비교·검토하여 각 통계계열별 문제점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현 단계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조정(수정)작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때 '현 단계에서 가능한'이란 적어도 수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에만 원래의 통계를 수정하여 가급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계열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이번 작업은 이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작업은 장기농업 경제통계의 일차적 정비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번의 정비작업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공식통계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계열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sup>22)</sup> 보정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료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향후 보완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강조해 둘 점이 있다. 이번 작업으로 제시되는 통계표는 추계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통계표는 공식통계가 안고 있는 계열의 불연속성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보정재료의 발굴 등을 통한 추계작업에서 구체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본격적 추계작업을 추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과 현재의 공식통계를 활용할 때의 주의점을 간단히 제시해 보자.

### <작업의 방대함>

농업통계의 정비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우선 산출물의 다양함을 보더라도 그 작업의 방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투입요소들 역시 매우 다양하며, 이들에 대한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및 관련사료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 전혀 조사되지 않던 항목을 후에 추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리고 경제분석과 관련지어 볼 때 농업관련 통계자료의 정비에서는 생산물과 각종 투입요소에 관련된 물량적 계열 이외에도 관련된

---

22) 공식통계에 발표되고 있지만 작업에서 배제된 경상투입재, 자본재가 적지 않다.

가격계열의 확보도 시급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열의 확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을 요한다.

이번 통계정비작업에서는 道 수준의 지역별 시계열 자료도 정비하였다. 이 작업은 한 개의 국가통계를 정비하는 작업 이상의 방대한 작업량을 요하는 일이다. 특히, 道 수준의 통계자료의 경우 오류의 발견과 수정에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인 정보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道 수준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제한적인 통계자료와 관련자료로부터 정비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검증사료의 부족과 신뢰도 확보문제>

이번 통계정비작업과정에서는 통계자료의 수많은 불연속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불연속성이 검출된 경우 이를 검증할 대체적 사료 발굴이 매우 어려운 현실은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업통계의 경우 다른 통계로부터 교차 검증할 만한 독립적인 통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정부의 통계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해방 이후 농림통계연보계열에서 행정조사로부터 표본조사로 조사방법이 변경되면서 과거의 행정통계들에 대해 일괄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내용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찾기는 어렵다. 정부의 일괄적인 수정은 통상 기계적인 환산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그러한 일괄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등에 관련한 설명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만한 근거사료도 거의 없다.

그나마 농업생산물에 관한 통계는 나은 편이다. 적어도 매년의 공식통계를 비교·검토해보면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입요소부문에 대한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가 전혀 없다. 이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계작업을 거쳐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통계계열을 작성할 필요가 절실하다.

### <조사항목에 대한 경제통계로서의 문제>

현재의 공식농업통계는 경제분석에 직접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 많다. 특히, 투입부문의 통계가 그러하다. 가령 농업노동력에 관련한 현재의 농업통계계열은 단지 인구조사 수준의 계열에 불과하다. 또 자본스톡의 추계를 위한 다양한 통계계열의 확보도 매우 곤란하다. 이는 통계조사항목의 설계단계에서 경제분석 등 그 활용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농업경제통계계열의 정비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사항목의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확보하고, 그를 근거로 한 경제통계계열의 생산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통계자료의 연속성 및 신뢰성 결여>

이번의 통계계열정비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계열의 연속성과 조사방법 변경상의 환산과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이다. 이는 단순히 통계연보로부터 발췌·수집하여 경제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계열간 불연속(단층)의 심각성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의 성격에 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분석에 활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이고자 한다.

### □ 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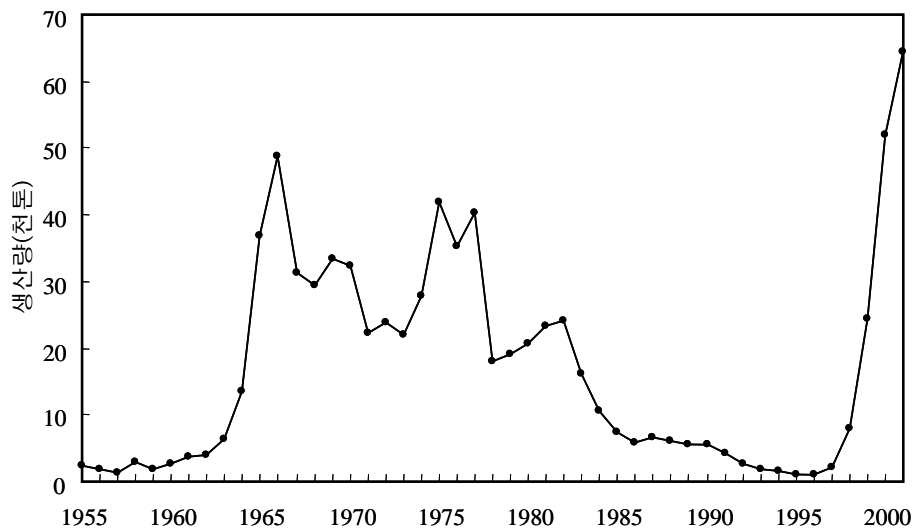
#### <밭벼>

미곡생산량조사는 종래의 행정조사로부터 대체되어 1965년부터 표본조사방법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논벼의 경우는 1964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수정·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밭벼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조사된다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석'으로 발표됐던 생산량이 미터법으로 단위환산만 이루어진 채 현재까지 그대로 발표되고 있다.

이는, 표본조사와 행정조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계계열상의 커다란 단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 1>은 공식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의 산출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실제의 추이인지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 발벼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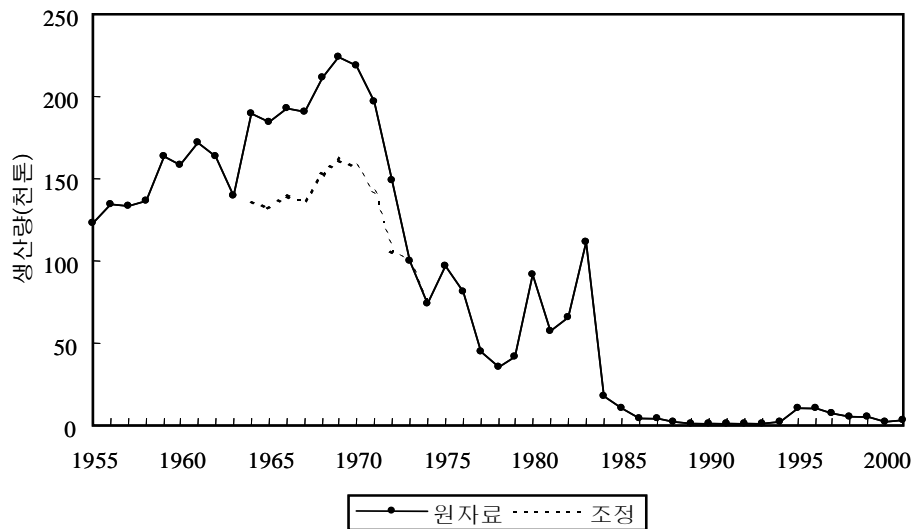
‘밀’과 ‘호밀’의 경우 1965년까지는 ‘소맥분’과 ‘호맥분’의 명칭으로 정곡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1966년에 생산량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변화되면서 수정비율 적용대상을 ‘알곡’이라고 밝히고 이를 소급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급수정된 생산량 자료는 정곡이 아닌 ‘원곡(unhulled)’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1972년까지 ‘원곡’ 그대로 발표되고 있다.

많은 의문<sup>23)</sup>이 남아 있긴 하지만 발표된 자료를 추계(보정)하지 않고 기계적 보정만을 할 경우의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원자료’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작업의 결과이며, ‘조정’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맥분을 조정한 경우

23) 1966년 수정비율 산정시 적용한 정곡환산율, ‘소맥’, ‘호맥’의 수정비율을 ‘알곡’에 적용하였다는 것, 1964~72년 사이 ‘원곡(unhulled)’으로 발표한 자료의 정곡환산 여부, 1973년 이후 발표되는 자료가 ‘원곡’인지 ‘정곡’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60년대 전반기부터 70년대 전반기까지 커다란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2. 밀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두류>

1974년부터 콩과 팥의 생산량은 표본조사 결과치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다. 다른 품목의 경우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실시될 경우, 과거 행정조사 결과치에 대해 3~4년 소급하여 수정 발표함으로써 표본조사 이전의 자료수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이들 작물은 행정조사 결과치와 표본조사 결과치의 수정 정보만을 발표하고 있어 단층을 연결할 정보가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계적 보정이 불가능하며, 1974년 이전의 행정통계 자료와 이후의 표본통계자료의 불연속성을 수정할 수 없다.

다른 품목들의 경우에 비취볼 때 이들 통계의 시계열자료를 분석에 그냥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림 3. 콩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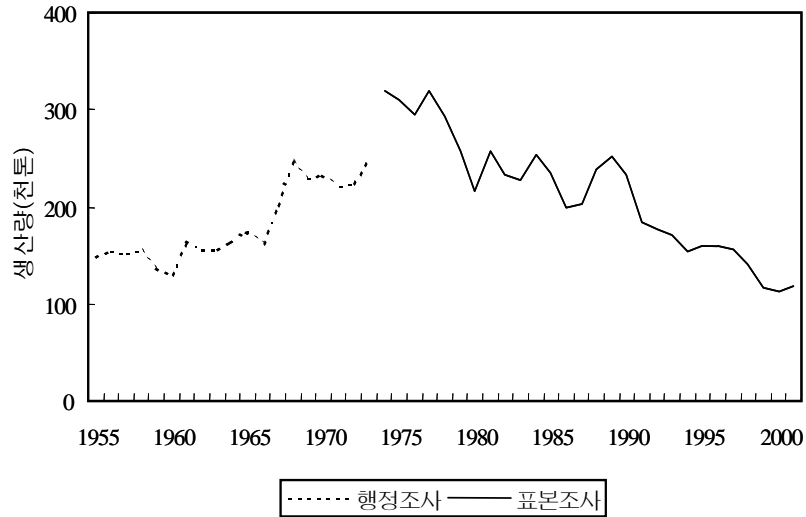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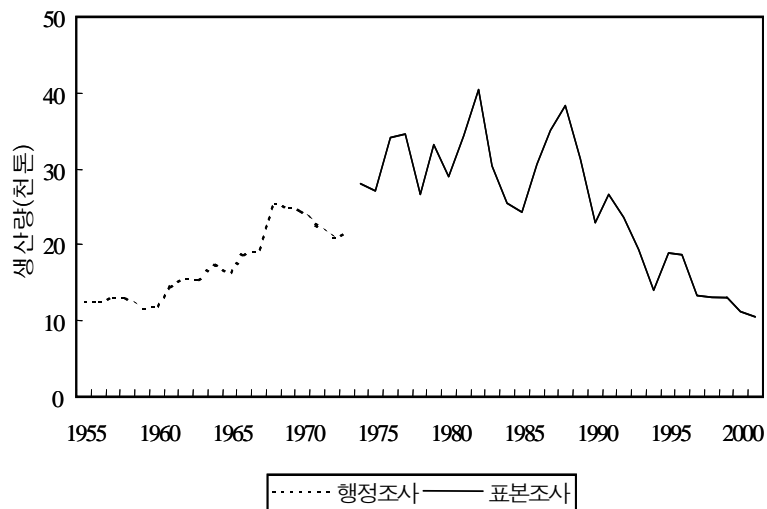


그림 4. 팥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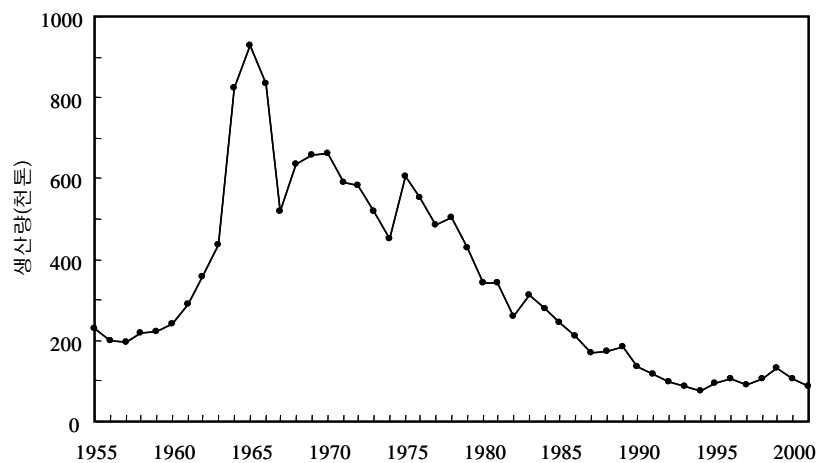
<서류>

1966년부터 서류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 조사된 이후 1955년까지 소급하여 수정된 통계계열이 발표되고 있다. 그 이후 1974~77년 사이에 재배

면적에 대한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로 전환되고, 고구마는 1974년에 표본조사로 재배면적 조사방법이 바뀌었다.

감자의 경우 재배면적 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조정되었지만, 고구마의 경우에는 생산량 및 재배면적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발표된 통계의 무분별한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고구마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 <채소류>

1975년 채소류 재배면적 조사가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계열의 생산량이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75년까지 소급하여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채소류 중 '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5~78년까지는 생산량이나 10a 당 생산량이 비슷하게 발표되다가 1979년 이후 이전 발표된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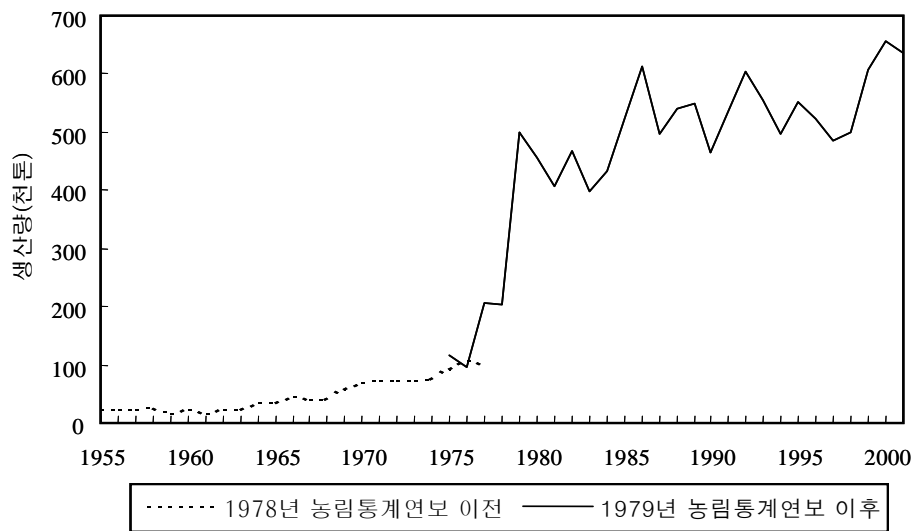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노지배추 및 노지호박 생산량의 경우도 이전 발표자료와는 상당히 큰 단층을 보이고 있다(그림 7, 그림 8 참조).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의 추이는 만일 이들 부분에 대해 가정을 두고 수정을 가할 경우 추계의 예시이다.



따라서 이들 채소류의 통계계열 역시 특정연도의 통계서로부터 시계열 또는 몇 년간의 수치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림 6. 파의 생산량 및 단수 추이 : 1955~2001년

<생산량>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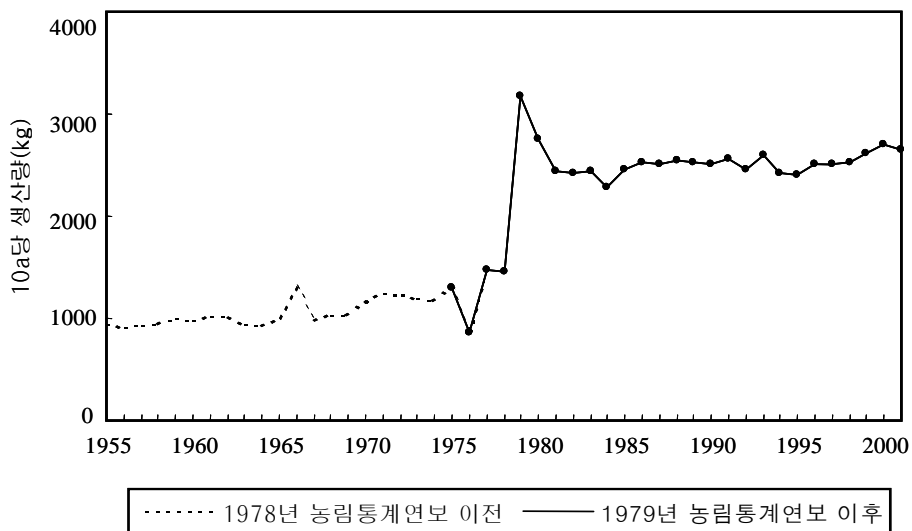


그림 7. 노지배추의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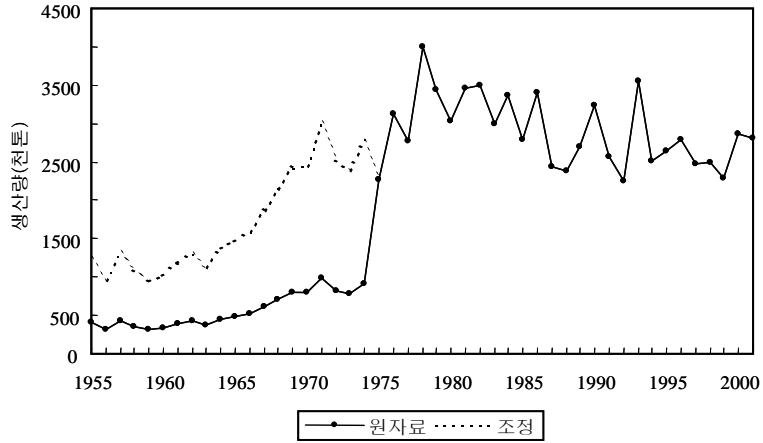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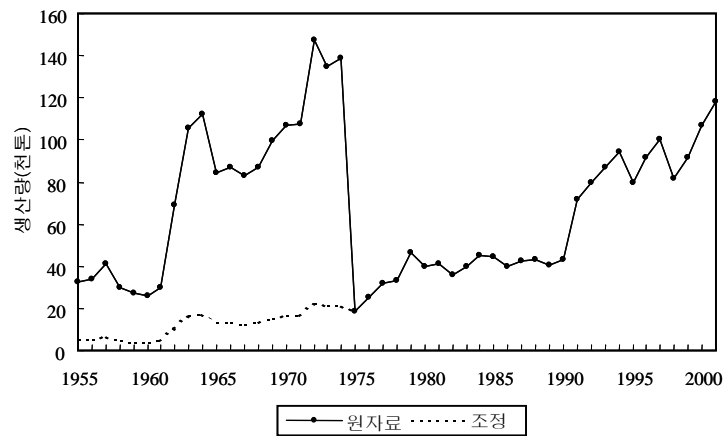


그림 8. 노지호박의 생산량 추이 : 1955~2001년



<기존 통계자료 활용의 위험성>

상기의 사례로 볼 때, 공간된 통계자료의 단순 수집과 보정을 통해 경제분석을 할 경우, 이들 계열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과 신뢰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석결과는 상당한 왜곡을 수반하게 될 위험성을 안게 된다. 결국 전국 단위의 단일통계를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하여 한국농업을 계량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허무한 일일 수 있다.

특히, 산출물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계열단층 발생문제는 자료활용에 깊은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투입요소의 경우에는 한층 심각하다. 예컨대, 노동투입의 경우에는 추계작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통계계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자본 역시 동일한 문제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국농업의 계량분석에 앞서 통계계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농업의 총생산액 집계계열과 투입요소들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는 통계계열의 정비가 없이 이루어진 기존의 수많은 계량분석논문들의 결과해석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비작업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한국농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계량변수의 계열확보가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출물에 대한 집계문제(aggregation problem)의 해결은 물론 토지, 노동, 자본, 농약 등 모든 생산관련 투입요소들에 대해 유의성 있는 통계계열의 확보가 선결되지 않고, 기존의 공식 통계자료로부터 수집된 계열을 무분별하게 경제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해석상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VI. 보 론 : 장기농업통계 계열 작성을 위한 예비적 추계 — 쌀 생산량의 경우 —

### 1. 1920~35년의 쌀 생산량 수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6년에 米穀生産高調査要綱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미곡 생산량 조사방법이 행정보고에서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생산량 조사 방법의 변경은 수확량에 큰 차이를 가져 왔다. 1936년도 미곡 생산량이 발표된 직후, 東畑精一과 大川一司가 舊調査方法과 新調査方法에 의한 수확량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36年産 미곡에 대해서 비로소 생산량 조사 방법이

개정되었다. 총독부의 발표에 의하면 동년의 實收穫高는 新調査方法에 의한 것이 19,410,763석(段步當 생산량 1.212석), 舊調査方法에 의한 것이 15,427,832석(단보당 생산량 0.963석)이어서, 그 차는 실로 3,942,931석(단보당 0.249석)에 이르렀다. 이 해는 드물게 보는 흉작이었지만, 통계상의 400만 석 증수는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160만석 증수라고 하는 기묘한 사태를 낳았던 것이다.”<sup>24)</sup> 신조사방법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1935년 무렵에는 미곡 생산량이 25.82% 정도 과소 집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東畑精一·大川一司, 그리고 서상철(Sang-Chul Suh)은 1935년 이전의 수확량 통계가 실제 수확량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서상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작농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취량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최저 소비량에 미달하면 수확량을 줄여서 보고했다. 둘째로, 과소 집계된 시기는 일인당 미곡 소비량이 0.55석에 미달하는 1924~35년 사이였다. 왜냐하면 戰時期의 일인당 미곡 소비량을 참조할 때 한국인의 미곡 소비량 최저한이 0.55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35년 이전의 생산량 통계가 실제 생산량보다 적은 것이 소작농의 과소 보고에 기인한다는 서상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打租 또는 執租의 경우는 줄여서 보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작료 부담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定租의 경우는 줄여서 보고함으로써 재계약할 때 소작료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작농의 과소 보고의 정도가 결핍에 비례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작농의 목적은 최저 소비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료를 줄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소작농의 과소 보고에 기인했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농민이 里長 또는 洞長을 무한정 속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소작 논외의 일부가 平刈의 執租地였는데, 里長 또는 洞長은 執租地의 소작료를 소작료율로 나누어 실제 수확량을 추정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줄이는 힘과 견제하는 힘이 양방향에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36년에 25.82%의 차이가 나온 것이 그 결과였을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에 이르러 미곡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켰을 가능

24) 東畑精一·大川一司, 『米穀經濟の研究』, 1939, p.425.

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총독부의 이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곡 생산량이 증가하면, 일인당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독부에 대한 비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의 移出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미곡 이출을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조사원을 동원한다는 것과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石塚峻이 진술하고 있듯이 전부터 생산량 통계를 의심하고 있던 총독부가 일인당 소비량의 감소, 미곡 이출을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 조사 방법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서상철은 생산량을 직접 수정하고 있지만 필자들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과 재배면적을 각각 수정한 다음 양자를 곱하는 방법을 택했다. 읍·면에서 총생산량을 구할 때는 단위 면적당 추정 수확량에 재배면적을 곱했지만,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실린 한국 전체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추정 총생산량을 재배총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읍·면 수준에서 전부 수정할 수 없는 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수정해서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통계상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의 차이를 낳은 요인은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양자에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수정한 다음 곱해서 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먼저 재배면적을 보자. 앞의 <표 6>에 따르면, 논 면적에 대한 벼 재배면적의 비율은 비율이 1.06을 초과하는 1911~17년, 비율이 0.98~1.01 사이에 있는 1918~35년, 비율이 0.93~0.95 사이에 있는 1936~40년이라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두 번째 시기의 1928년과 세 번째 시기의 1939년이 같은 시기의 다른 연도에 비해 낮은 것은 큰 규모의 한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수정해야 하는 것은 1911~17년의 기간과 1918~35년의 기간인데, 이중 후자의 수정은 간단하다. 1918년 土地調査事業이 끝난 이후의 경지면적은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것에서 추정 논독면적만큼 공제하면 1918~35년의 미곡 재배면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5년 이전의 비율과 1936년 이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논 면적에서 논독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였다.

문제는 정확한 재배면적을 알 수 없는 1911~17년 사이의 재배면적을 구하

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918년에 土地調査事業이 끝난 이후 총독부가 그 결과를 참조하여 이전의 농작물 재배면적을 수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7년 이전의 농작물 재배면적이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sup>25)</sup>

<표 8>은 미곡 재배면적 증가율의 5년 이동 평균값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1914~19년 사이에 미곡 재배면적의 증가율이 계속 하락했다. 1914~19년 사이에 1.65%에서 0.18%로 하락했는데, 그 이후의 어떤 시기를 보아도 증가율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는 없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하락이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대장에서 파악하는 경지의 면적이 점점 실제 면적과 가깝게 되었고, 그 결과로 경지의 면적이 덜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1918년 이전에는 재배면적이 과소 집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 미곡 재배면적의 증가율:1914~1937년 (단위: %)

연도	증가율	연도	증가율	연도	증가율	연도	증가율	연도	증가율	연도	증가율
1914	1.65	1918	0.75	1922	0.50	1926	-0.40	1930	0.60	1934	-0.84
1915	1.52	1919	0.18	1923	0.39	1927	0.80	1931	2.32	1935	0.00
1916	1.22	1920	0.38	1924	0.72	1928	1.04	1932	0.96	1936	-0.41
1917	0.71	1921	0.03	1925	0.57	1929	1.16	1933	0.40	1937	-5.70

자료: 朝鮮總督府農林局 『農業統計表』 1940년판.

주: 5년 이동 평균값임.

1918년 이전의 미곡 재배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증가율을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19년부터 産米増殖計劃이 본격화하는 1925년 사이의 그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1918년 재배면적에서 1919~25년 사이의 증가율인 0.35%씩 누적적으로 할인해서 1917년 이전의 재배면적을 구한다. 누적적으로 할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25) 溝口敏行·梅村又次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8) p.46.

고려해서, 벼 재배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한다. 첫째로 1910년대 중후반은 미가의 상승기였다. 1915년에 9.25(엔/석)이었으나, 1918년에는 26.41(엔/석)까지 상승했다. 이것에 비하면 1919~25년은 미가의 하락기였다. 1919년에 40.63(엔/석)이었던 미가는 1923년에 26.39(엔/석)까지 하락했고, 이후 약간 상승했지만 1925년에도 32.10(엔/석)에 머물렀다.<sup>26)</sup> 그러므로 1910년대 중후반에는 벼 재배면적의 증가율이 높고, 그 이후에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토지개량사업 면적은 1918년까지 49,500정보였으며, 1919~25년에는 125,500정보였다.<sup>27)</sup> 토지개량사업은 밭을 논으로 바꾸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는 미곡 재배면적에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서로 상쇄된다.<sup>28)</sup>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수정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36년에 옛 조사방법에 의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새 조사방법에 의한 그것보다 29.76% 낮았다는 것이다. 옛 조사방법에 의하면 1936년의 재배면적은 1,651,000정보,<sup>29)</sup> 생산량은 15,427,832석으로서 단보 당 생산량이 0.934석이었는데, 새로운 조사 방법에 의한 단보당 생산량은 1.212석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과소 집계된 원인이 농민의 과소 보고에 있다는 것이다.

수정에 임해서 위의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과소 집계가 시작된 시점이며, 다른 하나는 과소 집계의 크기가 처음부터 동일했는지, 아니면 누적적으로 커졌는지 하는 점이다.

먼저 후자에 대해서인데, 처음부터 29.76%의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6) 石川滋, 『韓國農業生産額の推計, 1910-1970』, 戦前の部(國立市, 一橋大學) 1973.

27) 朝鮮總督府, 『土地改良事業要覽』, 1927년판, 도표 2.

28) 이 시기의 벼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鄭英一, 「耕地面積의 推計와 分析: 1911-1971」, 『經濟論集』, 14-2(1975)을 참고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는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았다. 첫째로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경지 면적을 수정함에 있어서 각도별로 전부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p.28). 둘째로 위 논문은 1932년 이전의 토지대장 미등록지 면적을 1933년 면적과 같다고 가정하고 추계하여, 그것과 등록지 면적을 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p.29), 그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1)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미등록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2) 미등록지 면적은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직후에 가장 작았다가 이후 점차로 증가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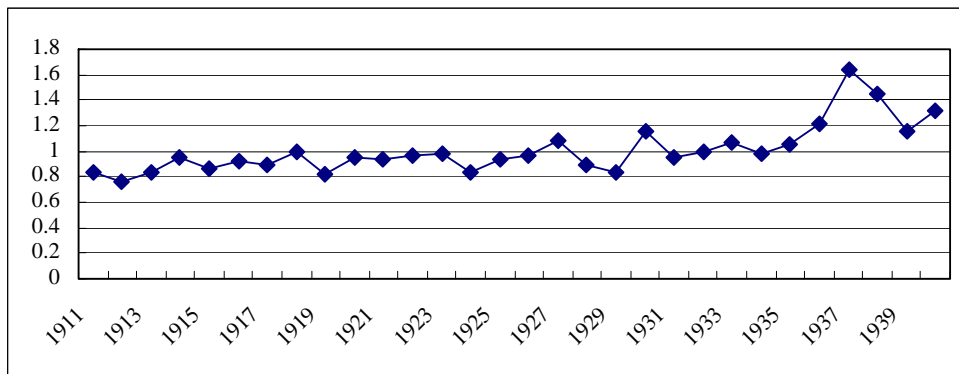
29)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1944, p.139.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서술한 대로 식민지 시기 미곡 생산량 통계는 농민의 구두 진술에 기초한 이장 및 동장의 보고에 의존했다는 것, 즉 과소 집계가 농민의 과소 보고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농민은 매년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므로 매년 과소 집계의 정도가 누적되어 가게 된다.

병합 직후부터 과소 집계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과소 집계되기 시작한 시점을 구해 보자. 총생산량에 대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東畑精一과 大川一司는 産米増殖計劃이 행해지기 시작한 1920년 이후부터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시기부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지만, 그 변동이 수확량 조사에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sup>30)</sup> 서상철은 1924년 이후부터 농민이 과소 보고하기 시작했고, 생산량이 과소 집계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두 견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논리는 미작의 토지 생산성의 상승분만큼 과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소 보고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소극적으로든지 적극적으로든지 총독부에 의해서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서술했으므로 생략한다.

<그림 9>는 총독부의 공식통계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에 의하면 1918년대 말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단보당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9. 미곡 단보당 생산량:1911~1940년 (단위: 석/단보)



자료: 朝鮮總督府農林局, 『農業統計表』, 1940년판.

30) 東畑精一·大川一司, 『米穀經濟の研究』, 1939, pp.426~429.



1920년대의 정체에 대한 종래의 설명은 산미증식계획 중에 농업 정책의 중점이 토지 개량에 두어졌고, 농사 개량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優良品種의 보급률이 정체했던 것, 비료 소비량이 완만하게 증가했을 뿐인 것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sup>31)</sup> 우리는 아래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위와 같은 파악에 반대한다. 첫째로 이 시기에 優良品種의 보급률이 정체하기는 했지만 다수확 품종으로 바뀌어 갔다. 둘째로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보다는 낮지만 1920년대에도 비료 소비량은 증가했다. 셋째로 우량품종의 보급도가 같고, 비료의 소비량이 같다고 해도, 관개 시설이 늘어날수록 수확량은 증가한다.

표 9. 優良品種의 변천 (단위: 천정보)

연도	1위 품종	면적	2위 품종	면적	3위 품종	면적
1912	早神力	23	都	3	穀良都	3
1916	早神力	230	穀良都	110	多摩錦	48
1920	早神力	250	穀良都	241	多摩錦	156
1924	穀良都	319	早神力	220	多摩錦	162
1928	穀良都	361	多摩錦	156	早神力	130
1932	穀良都	428	多摩錦	169	龜の尾	110
1936	銀坊主	420	穀良都	410	陸羽132號	160
1940	銀坊主	478	陸羽132號	219	穀良都	177

자료: 朝鮮總督府農林局 『農業統計表』 1940年版.

정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농업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금 (조선은행, 식산은행, 보통은행)의 5년 이동 평균값을 구해 보면, 1912년에 190만원, 1917년에 798만원, 1922년에 4,444만원, 1927년에 11,301만원, 1932년에 18,524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중으로는 1930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sup>32)</sup> 촌락

31) 박원서, 「식민지조선에서의 수도생산력 발전의 지역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4. 이영훈·장시원·宮嶋博史·松本武祝,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서울: 일조각, 1995) p.174, 230. 우대형, 「1920년대 한국 미곡생산성의 정체」(『경제사학』 25, 서울: 경제사학회, 1998).

금융조합의 농업 부문 대출금도 1921년에 2,122만원, 1923년에 3,191만원, 1928년에 4,703만원, 1932년에 7,768만원으로 증가했다.<sup>33)</sup> 즉 농업 투자액의 흐름으로 판단해 보면, 1910년대 이후 농업 정책은 강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질적으로 검토해 보자. 총독부의 대표적인 증산 시책으로서는 품종 개량, 관개 시설의 증가, 비료 사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품종 개량은 1905년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다른 방법보다 빠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증산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방법은 일본의 優良品種을 지방 행정 기관 또는 지주를 통해서 그대로 보급하는 것과 勸業模範農場에서 한 차례 개량하여 보급하는 것이었다.

優良品種이란 더 많은 미곡 또는 질이 더 높은 미곡을 생산하게 하는 품종이었는데, 소수의 품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多肥多收穫 품종이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多肥多收의 정도가 더 높은 품종이 보급되었다. <표 6>에 의하면, 파종 면적 1위의 품종은 早神力(1910년대)→穀良都(1920~1930년대 전반)→銀坊主(1930년대 후반)로 변화해 갔다. 早神力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穀良都和 銀坊主의 단보당 적정 질소 소비량은 각각 6.30kg과 11.42kg이었으며<sup>34)</sup> 평균 생산량은 각각 2.3석과 2.7석이었다. 즉 곡량도보다 은방주가 더 다비다수확 품종이었다.<sup>35)</sup>

품종 개량을 바로 뒤따른 것이 관개 시설의 개선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1910년대의 초반부터 대규모의 관개 개선 사업이 행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920년부터의 産米増殖計劃 기간에 본격화되었다. 수리조합에 의한 蒙利面積이 1919년에 31,057정보, 1925년에 82,403정보, 1933년에 225,389정보, 1938년에 229,025정보로 증가했다.<sup>36)</sup> 수리조합에 의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1935년에 灌溉畝의 면적이 76만 정보로서 논 면적의 45% 정도, 1940년에는 83만 정보로서 약 50%였다.<sup>37)</sup>

32) 朝鮮總督府財務局, 『朝鮮金融事項參考書』, 1939년판.

33) 朝鮮總督府, 『金融組合要覽』, 1932, pp.33~34.

34) 李相舜 「韓國農業における肥料の派生需要分析」 『北海道大學農經論叢』44, 1988.

35) 蘇淳烈, 「植民地期 全北에서의 水稻品種의 變遷」,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23집, 1992, p.129

36) 農林省熱帶農業研究センタ, 『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験研究の成果』, 1976, p.28.

표 10. 비료소비량:1921~1939년 (1925=100)

연도	1921	1923	1925	1927	1929	1931	1933	1935	1937	1939
자급비료 합계			100	109	110	125	155	170	177	182
동물질 비료	49	69	100	28	327	658	399	743	1,200	1,229
식물질 비료	50	64	100	156	121	125	80	49	69	53
광물질 비료	26	33	100	223	625	695	1,359	2,130	2,652	2,021
복합 비료	173	271	100	242	1,248	1,028	1,809	9,599	15,717	28,288
판매비료 합계	47	61	100	164	232	253	337	563	686	707

자료: 朝鮮總督府農林局『農業統計表』1940年版.

1920년대 중반부터 총독부는 비료의 사용을 장려했다. 총독부는 1926년에 ‘自給肥料増産10個年計劃’을 세웠고, 3,200만원 가량의 판매비료 구입 자금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1926~40년 사이에 판매 비료 소비액에 대한 肥料購買貸附資金의 비율이 47%에 달했다.<sup>37)</sup>

1925~33년의 사이에 비료의 소비량은 <표 10>과 같이 증가했다. 특히 효율이 높은 화학 비료의 소비량이 급증했다. 정리하면, 투자량으로 보든 총독부의 농업 기술 정책으로 보든 1920~30년대에 총독부의 증산 정책은 강화되어 갔다.

그렇지만 정책이 강화되어 간다고 해도, 1920년대 초중반에 특히 기상 상황이 나빴다면 토지 생산성이 정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강수량이 특히 적었던 연도는 1913, 1915, 1919, 1924, 1928, 1929, 1935, 1936, 1939, 1942년이었기 때문에<sup>38)</sup> 1920년대의 초중반에 특별히 기상 상황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검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1920년대에 수확량 조사가 정확하게 행

37)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1944, p.123. 嵐嘉一, 『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験研究の成果』, 農林省熱帶農業研究センター, 1976, p. 25.

38) 朝鮮總督府農林局, 『農業統計表』, 1940년판.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の肥料』, 1942.

39) 農林省熱帶農業研究センター, 『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験研究の成果』, 1976, p.79.

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東畑精一, 大川一司, 서상철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1920~35년의 단위 면적당 미곡 생산량을 누적적으로 할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민의 보고를 기초로 수확량을 계산하는 한, 오차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9.76%를 복리로 할인하면, 1920년부터 매년 1.5443%씩 오차가 거듭하여 발생한 것으로 된다. 풍년과 흉년을 구별하지 않고 오차가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민의 과소 보고의 정도가 반드시 결핍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리조합 몰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수확량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하 그 이유를 소개한다.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공사를 위해서 얻은 부채를 기한 내에 상환하고, 수리조합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그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리조합비를 차질 없이 징수해야 했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수리조합비가 수리조합 사업의 결과로 증가한 순소득액을 밀돌았기 때문에 그 통계에 따르는 한 지주가 수리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문제는 수리조합비의 증가속도가 순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빨랐던 데에 있었다. 1934년에는 수리조합비가 순소득 증가액의 79%에 달했다.<sup>40)</sup>

순소득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중하게 높아지자, 경지 소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증수량을 줄여서 보고하려 했다. 수리조합비가 수리조합 구역 내의 총증수량에서 차지하는 개별 경지 소유자의 증수량의 비율에 따라서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리조합 경영진은 예상 수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富平水利組合에 대한 사례 연구에 의하면, 등급 별 水利組合費 부과율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sup>41)</sup> 첫째로 단보당 예상 수확량에서 단보당 수확량을 뺀 단보당 예상 증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결정한다. 둘째로 단보당 조합

40) 田剛秀, 「日帝下水利組合事業이 地主制展開에 미친 영향」, 『經濟史學』 8호, 1984, p.153.

41) 이영훈·장시원·宮嶋博史·松本武祝, 앞의 책, p.219.

비는 등급별 단보당 표준 증수량에 증수량 1두당의 조합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셋째로 等內地 16등급, 等外地 2등급으로 해서 모두 18등급으로 나누며, 단보당 예상 증수량 0.2석마다 등급을 부여한다.

18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했다. 부평 수리조합에서의 1927년의 등급 再調整 조사 요령은 “농사에 경험이 있는 조합 직원 4명과 평의회에서 선임한 지방 사정에 밝은 지주 위원 20명으로 조사원을 구성하고, 이 조사원이 1927년 8월 11일에서 1927년 9월 20일 사이에 관계 지주 입회하에 各畢마다 실지 조사하여 증수량과 등급을 정하도록”하는 것이었다.<sup>42)</sup> 실제로는 18등급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10등급에 머물렀지만,<sup>43)</sup> 10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도 수리조합 지구 내의 수확량 조사를 엄밀하게 해야 했다.

이처럼 수리조합 지구내에서는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수리조합 몽리 면적이 전체 미곡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할증 비율을 조정했다. 미곡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수리조합 몽리 면적의 비율은 1920년에 2.2%였으나, 1935년에는 14.0%로 상승했다. 따라서 100%에서 수리조합 몽리 면적의 비율을 빼면, 1920년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97.8%에서 과소 집계되고 있었으며, 1935년에는 86.0%에서 과소 집계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1920년과 1936년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1928년의 새로이 발생한 오차 비율은 그대로 두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새로이 발생하는 오차 비율을 누적적으로 1.7457/91.75(%)만큼씩 늘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같은 값만큼씩 줄였다. 여기서 91.75는 1920년의 수리조합 몽리 면적 비율인 2.2%와 1936년의 14.3%의 산술 평균을 100에서 공제한 값이다. 수리조합 몽리 면적의 비율이 100%로 되면 오차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7457%는 1928년에 새로이 발생한 오차이다.

이상의 방법에 따라 구한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곱해서 미곡의 수정 생산량을 구했다. <표 11>에 의하면 1911년과 1912년을 제외하면, 식민지 초기의 미곡 생산량은 과다 집계되어 있었고, 식민지 中終期の 생산량은 과소

42) 같은책, p.225.

43)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各年판 중의 「수리조합비」 항목.

집계되어 있었다.

표 11. 미곡의 수정 생산량:1911~1940년 (단위: 석)

미곡년도	생산량(a)	수정 생산량(b)	b/a
1911	11,568,362	11,869,328	1.03
1912	10,865,051	11,046,720	1.02
1913	12,109,840	12,010,370	0.99
1914	14,130,578	13,807,330	0.98
1915	12,846,085	12,487,555	0.97
1916	13,933,009	13,392,968	0.96
1917	13,687,895	13,117,405	0.96
1918	15,294,109	14,531,124	0.95
1919	12,708,208	12,067,093	0.95
1920	14,882,352	14,409,370	0.97
1921	14,324,352	14,117,774	0.99
1922	15,014,292	15,071,950	1.00
1923	15,174,645	15,497,750	1.02
1924	13,219,322	13,727,202	1.04
1925	14,773,102	15,593,777	1.06
1926	15,300,707	16,416,900	1.07
1927	17,298,887	18,848,512	1.09
1928	13,511,725	14,936,727	1.11
1929	13,701,746	15,384,211	1.12
1930	19,180,677	21,834,021	1.14
1931	15,872,999	18,326,968	1.15
1932	16,345,825	19,137,000	1.17
1933	18,192,720	21,352,068	1.17
1934	16,717,238	20,095,485	1.20
1935	17,884,669	21,752,988	1.22
1936	19,410,763	19,410,763	1.00
1937	26,796,950	26,796,950	1.00
1938	24,138,874	24,138,874	1.00
1939	14,355,793	14,355,793	1.00
1940	21,527,393	21,527,393	1.00

이하에서 미곡소비량과 그 변동양상을 검토하여 이상의 수정이 타당함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미곡소비량부터 보자. 소비총량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C_t = (P_{t-1} - E_t - S_t) \times 0.85$$

$C_t$ 는 당해 연도의 미곡 소비량,  $P_{t-1}$ 은 직전 연도의 미곡 생산량,  $E_t$ 는 당해 연도의 미곡 순수이출량,  $S_t$ 는 당해 연도의 종자량이다. 재고의 증감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1929년 이전의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44)</sup>

소비의 기초로 되는 미곡 생산량을 직전 연도의 미곡 생산량으로 한 것은 미곡의 수확이 10~1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종자량은 1910년경의 정보당 종자량이 0.70석, 1933년경의 종자량이 0.53석이었기 때문에, 1910년 이후는  $(0.70-0.53)/23$ 석만큼 균등하게 감소시켰다.<sup>45)</sup>

마지막의 0.85는 수확후의 손실률을 15%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츠히코 키무라의 논문은 손실률이 1913~40년 사이에 10%에서 5%로 하락했다고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15%로서 같았다고 해 두었다.<sup>46)</sup> 그 이유의 하나는 10%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한국 농수산부 糧政자료에 의하면, 1994년의 감모량은 백미를 기준으로 할 때, 20만 900톤으로서 1993년 생산량의 4.2%였다. 감모의 내용은 화물차에 싣고 내리는 도중에 없어지는 것, 창고 보관 중에 쥐가 먹어 버리거나 부패하여 없어지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sup>47)</sup> 그런데 식민지 시기의 미곡 통계는 현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손실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모율에 도정율을 더해야 한다. 밥을 지을 때는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기 때문이다. 감모율 4.2%에 도정율 7.5%를 더하면,<sup>48)</sup> 손실률은 11.7%로 된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에는 지금보다 搗精 및 창고의 설비 수준 등이 낮았기 때문에 손실율은 이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손실률이 하락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搗精 공정이 합리

44)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米穀要覽』, 1940, p.3.

45) 菱本長次, 『朝鮮米の研究』, 1940, p.184, p.234.

46) Kimura, Mitsuhiko, 앞의 글, p.640.

47) 농수산부, 『양정자료』, 1995.

48) 김경중, 『한국의 경제 지표』, 매일경제신문사, 1993, p.326.

화되고 보관 시설이 정비되면, 손실률이 하락하며, 搗精度가 높아지면 손실률이 상승할 것이다. 양자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전체적인 손실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손실률은 전시기에 걸쳐서 15%로 고정시켰다.

<표 12>는 위의 방법에 따라 구한 미곡 소비량이다. 일인당 소비량 지수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걸친 농업 불황기를 제외하고는 꽤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추정치의 타당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이다.

표 12. 미곡 소비량:1914~1938년(단위: 석)

연도	소비 총량	총량 지수	일인당 소비량	소비량 지수
1914	8,525,673	101	0.5521	124
1915	8,560,901	101	0.5362	121
1916	8,652,611	102	0.5292	119
1917	8,763,624	104	0.5263	118
1918	8,558,903	101	0.5069	114
1919	8,649,980	102	0.5067	114
1920	8,551,375	101	0.4965	112
1921	8,651,404	102	0.4981	112
1922	8,661,541	102	0.4935	111
1923	8,630,452	102	0.4859	109
1924	8,601,617	102	0.4754	107
1925	8,649,097	102	0.4698	106
1926	8,725,258	103	0.4660	105
1927	8,451,182	100	0.4450	100
1928	8,538,169	101	0.4440	100
1929	8,969,772	106	0.4599	103
1930	8,925,905	106	0.4521	102
1931	8,798,588	104	0.4388	99
1932	9,136,369	108	0.4485	101
1933	9,288,681	110	0.4488	101
1934	9,112,582	108	0.4326	97
1935	9,381,414	111	0.4381	98
1936	10,181,027	120	0.4670	105
1937	11,171,396	132	0.5032	113
1938	11,646,028	138	0.5177	116

주: 1. 1927년을 100으로 한 지수임.  
 2. 두 지수와 일인당 소비량은 5년 이동 평균값임.



소비 총량은 1917년까지 미약하나마 증가했다가, 이후 1927년까지 역시 미약하나마 감소했으며 1927년에 최저값을 기록했다. 단순 논리이지만 그것은 미곡의 수·이출 증가량이 미곡 생산 증가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1927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수·이출 증가량이 생산 증가량을 하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農業恐慌期에 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을 판매량 증가로 만회하기 위해서 수출을 크게 늘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생산량 증가분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었다. 풍흉의 차, 수·이출의 차이 등에 의해서 변동하기는 했지만,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1910년대 초반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1930년대 후반에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여기에는 수출량의 감소 및 1937, 38년의 풍작이 영향을 미쳤다.

일인당 미곡 소비량은 1914년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감소했다. 1930년대 초반에 소비량이 매우 적은 것은 1930년 이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궁핍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통계표상으로 1934년이 최저점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1927~35년 사이에 거의 정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소비 총량이 증가했지만 그것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인당 소비량이 증가하지 못했다. 이후 1936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93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1914년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일인당 소비량의 위와 같은 변동, 즉 1914~27년 사이의 감소, 1927~34년 사이의 정체, 1935년 이후의 증가라고 하는 상황은 식민지 시기의 경제 변동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곡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커다란 요인으로서 미곡 수출의 증가, 産米増殖計劃에 의한 미곡 생산량의 증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친 농업 불황에 의한 구매력 감소, 1930년대 중반부터의 공업화에 의한 구매력 증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미곡 수출이 증가하여 소비량이 계속 감소해 가던 중, 産米増殖計劃에 의한 미곡 생산량 증가가 한국의 미곡 소비를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농업 불황기에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어 갔던 것이 구매력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미쳤다.<sup>49)</sup> 미곡 소비 총량은 증가했어도, 그것이 인구 증가율

을 상회하지는 못하여, 일인당 미곡 소비량이 증가하지는 못했고, 1927~35년의 사이에는 거의 정체해 있었다. 한국 내에서의 미곡 생산 증가가 미곡 소비 증가로 연결된 것은 공업화에 의한 구매력의 상승이었다. 그 결과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인당 미곡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곡 소비량의 변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또한 생산량의 수정치가 타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남북한 분할문제에 관해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한 분할은 대한민국 농림부의 『농림통계연보』(1952)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경기도를 전부 남한에 귀속시켰고, 황해도는 전부 북한에 귀속시켰으며, 강원도는 50%씩 나누어 귀속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1937~1944년의 농작물 생산량을 남북한으로 분할했다.

반성환(Ban, Sung Hwan)은 1938~1940년의 평균 논·밭 면적에 대한 1957, 1959, 1960년의 평균 남한 논·밭 면적의 비율로서 1945년 이전의 경기도와 강원도의 농업 생산액을 남북으로 나누었다. 황해도는 북한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했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논 83.1%와 밭 61.0%, 강원도 논 54.8%와 밭 32.7%가 남한에 속했다(Ban 1979: 318~320). 반성환은 개별 농작물의 생산량을 전부 남북한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분할 비율을 이용하면 농작물을 남북한으로 분할할 수 있다.

1980년에 이시카와(石川)는 1968년 남한 지도에 의거해서 휴전선에 걸쳐 있는 각 군이 남북한에 속하는 비율을 구했다. 경기도의 18개군, 황해도의 2개군, 강원도의 13개군은 남한에 속하며, 경기도의 1개군, 황해도의 2개군, 강원도의 5개군은 남북한에 걸쳐 존재하는데, 그는 경계에 걸쳐 있는 8개군의 경지면적을 각 군에 속하는 면의 수의 비율에 따라 남북한으로 분할했다.

京畿道 『農事統計』(1940), 黃海道 『農業統計表』(1938), 江原道 『農業統計』(1939)에 의거해서 경지면적을 남북한으로 분할했는데, 그에 따르면 경기도 논 87.96%와 밭 77.73%, 황해도 논 2.36%와 밭 0.61%, 강원도 논 63.65%와 밭 58.92%가 남한에 속한다(石川滋 1980: 14). 위의 분할비율을 모

49) 車明洙, 「世界農業恐慌과 日帝下 朝鮮經濟」, 『經濟史學』, 15호, 1991, p.77.

든 작물의 생산량에 적용하면 농작물의 생산량을 남북한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시카와의 방법에는 하나의 결점이 있다. 경계 군의 경지면적의 비율을 면의 수의 비율로 대신하려면 면의 경지면적이 모두 같아야 하는데 이 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농림부 및 반성환의 작업과 비교하면 면 면 레벨까지 내려가 분할했다는 점에서 이시카와의 방법이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 같다. 참고로 이 세 방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

이시카와와 반성환의 분할 비율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합계란에서 반성환의 비율이 낮은 것은 군사 분계선 때문에 경지면적이 줄어든 것과 비무장 지대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환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반성환의 밭비율은 이시카와의 밭 비율보다 크게 낮지만, 논비율은 조금밖에 낮지 않은데 그것은 밭이 논으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시카와의 방법이 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반성환의 방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대한민국 농림부와 이시카와의 분할 결과를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미곡1'은 이시카와의 추계결과이며, '미곡2'는 대한민국 농림부의 추계결과인데, 흥미로운 것은 양자의 사이에 1%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농림부의 작업은 논리적으로는 엄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식민지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남북으로 분할할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농림부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13. 이시카와와 반성환의 남한 비율의 차이 (단위: %)

	도명	이시카와	반성환
경 기 도	논	89.5	83.1
	밭	83.0	61.0
	합계	86.5	73.0
강 원 도	논	71.5	54.8
	밭	60.9	32.7
	합계	63.7	38.6

표 14. 남한의 미곡생산량 : 1936~1940년 (단위: 천석)

	미곡 1	미곡 2	미곡1/미곡2
1936	13,854	13,977	0.99
1937	19,118	19,348	0.99
1938	17,256	17,456	0.99
1939	7,376	7,387	1.00
1940	15,304	15,408	0.99

### 3. 1966년~1979년의 쌀 생산량 수정

1960년대 중반 농림부는 1959년과 1961~1964년까지 수행된 표본조사결과에 따라 과거의 행정통계수치를 1955년까지 소급하여 일률적으로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쌀은 주곡의 자급자족이라는 정치적인 목표 설정치를 달성하고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증산을 추진하였던 주요작물이었다. 매년 쌀의 생산량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높았으며, 1970년대에는 특히 그러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IR계 통일벼가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992년까지 생산통계로 집계되고 있다. 당시 도입된 통일계는 증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다수확품종으로 이들의 기술적 우위는 현저한 단수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수통계의 과잉추계가 전체 쌀 생산량의 과잉집계로 연계되어 생산통계를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서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농림통계연보의 쌀 생산량통계의 과잉추계(왜곡) 가능성을 검증하고, 약간의 가정을 바탕으로 수정계열의 추계를 시도한다.

#### 3.1. 농림통계연보의 쌀생산량 과잉추계 검증

농림통계연보에서 밝히고 있는 쌀 생산량의 추계방법은 표본조사 구역의 평균단수를 재배면적에 곱하는 것이다. 이 통계의 집계과정에서는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수도작황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전국의 지역별, 품종별(일반벼 및 통일벼) 단수를 집계한 후 농림통계연보의 지역별, 품종별 단수와 비교해 보자.

여기서 사용되는 농촌진흥청의 수도작황조사는 1917년부터 조사된 權業模範場의 “權業模範場事業報告書”가 기원이 되는데, 1953년 이후에는 중앙농업기술원의 “중앙농업기술원사업보고서”, 1959년부터 1965년까지는 농업시험장 및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연속적인 추계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발표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보고서”, 그리고 1988년 이후의 “주요작물 작황시험보고서” 및 1993년 이후의 “작황시험보고서”를 사용하여 1966년부터 1995년까지를 대상으로 품종별, 지역별 단수를 집계해보기로 한다.

집계에 사용된 품종은 시험보고서에 발표된 일반계 품종 76종과 통일계 품종 24종을 포함한 100여종의 품종이다. 이들에 대해 54개 시험지역의 재배시험 결과 나타난 단수를 1966년부터 1995년까지 30년간을 대상으로 집계한 후, 연도별, 지역별, 품종별(일반계 및 통일계) 평균단수를 추정하였다.

표 15. 작황시험 재배품종 : 일반계 및 통일계

	품 종 명
일반계	계화벼, 관악벼, 관옥, 광명벼, 김마재, 낙동벼, 노풍, 농립29호, 농립6호, 농백, 대관벼, 대성벼, 대청벼, 도봉벼, 동진벼, 동해벼, 레이메이, 마쓰마에, 만경, 만금벼, 밀성, 밀양15호, 밀양16호, 백암벼, 북광벼, 사도미노리, 삼남벼, 삼백벼, 상주벼, 상풍벼, 서광벼, 서남벼, 서해벼, 설악벼, 섬진벼, 소백벼, 송전벼, 수원222호, 수원264호, 수원287호, 수원288호, 수원306호, 수원82호, 스스가제, 시로가네, 신2호, 아끼바레, 아끼히까리, 여명벼, 영덕벼, 영산벼, 오대벼, 오봉벼, 운봉벼, 이리317호, 이리326호, 이리342호, 일품벼, 재건, 진미벼, 진부벼, 진주벼, 진흥, 천마벼, 치악벼, 탐진벼, 팔공벼, 팔굉, 팔금, 팔달, 풍광, 풍산벼, 호광, 화성벼, 화진벼
통일계	가야벼, 남영벼, 남풍벼, 내경, 만석벼, 밀양21호, 밀양23호, 밀양30호, 밀양42호, 백암벼, 백양벼, 삼강벼, 서광벼, 수정벼, 용문벼, 유신, 장성벼, 조생통일, 청청벼, 추풍벼, 칠성벼, 태백벼, 통일, 호남조생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즉, 1966년부터 1970년까지는 지역별 시험 품종의 각 단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평균단수를 추계하였고, 1971년부터 1987년까지의 지역별 평균단수는 일반벼 및 통일벼에 대한 품종별 단수를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추계하였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수도작황조사를 추가하여 평균단수를 추계하였으며, 1992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계품종에 대해서만 추계하였다. 추계에 사용된 품종과 지역은 <표 15>와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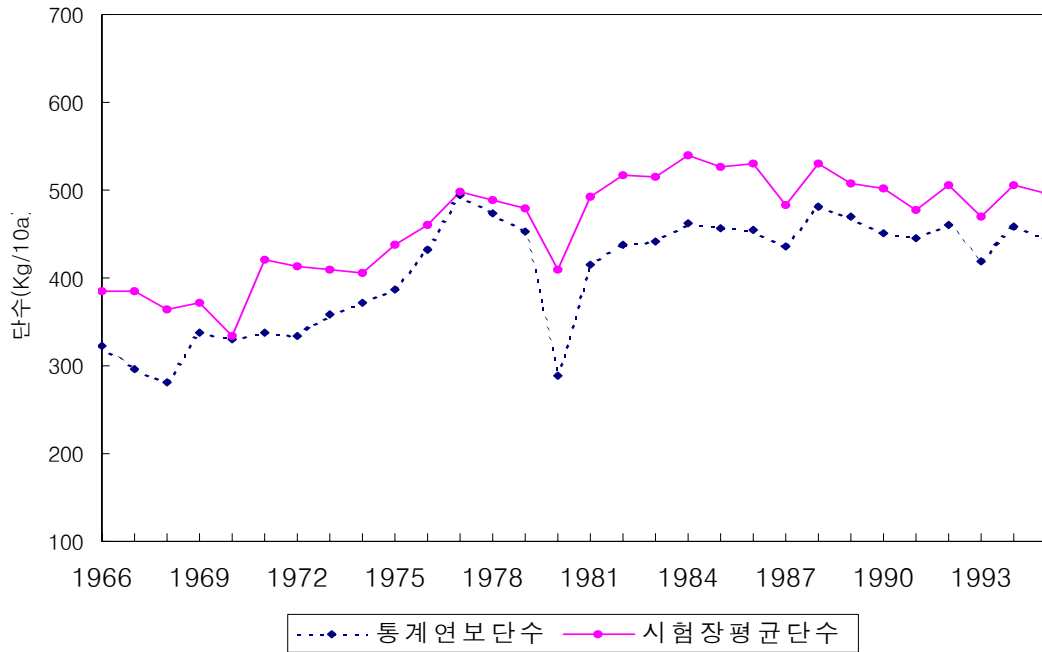
표 16. 작황시험 재배지역(시험포)

도	지역	도	지역
강원	강릉, 명주, 영덕, 원성, 진부, 철원, 춘천, 홍천	경남	거창, 밀양, 양산, 진주, 함양, 화서
경기	김포, 남양, 부천, 수원, 양평, 연천, 이천, 화성	경북	대구, 봉화, 상주, 안동, 영일, 칠곡
충남	논산, 대전, 서산, 예산, 유성	전남	곡성, 광산, 광주, 나주, 남평, 목포, 승주, 해남
충북	괴산, 영동, 제천, 청주	전북	계화도, 남원, 운봉, 이리, 이리(호시), 익산, 정읍, 진안
제주	제주		

이상과 같이 집계된 시험연구보고서의 평균단수를 농업통계연보로부터 계산되는 일반벼 및 통일벼의 단수와 비교함으로써 표본조사결과의 평균단수와 시험장 연구결과의 단수차이를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연구보고서의 단수가 시험장 수준의 재배기술이라고 할 때, 표본조사에 의한 일반농가의 벼 재배기술로부터 집계되는 쌀의 단수는 시험장의 그것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은 집계된 시험장 단수와 통계연보상의 단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이후의 두 계열 사이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시기에서는 양자간 괴리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1970년과 1977년의 경우에는 시험장 평균단수와 일반농가평균단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쌀 생산이 최대에 달해 쌀의 자급을 선언한 1977년 전후에 생산량의 과잉집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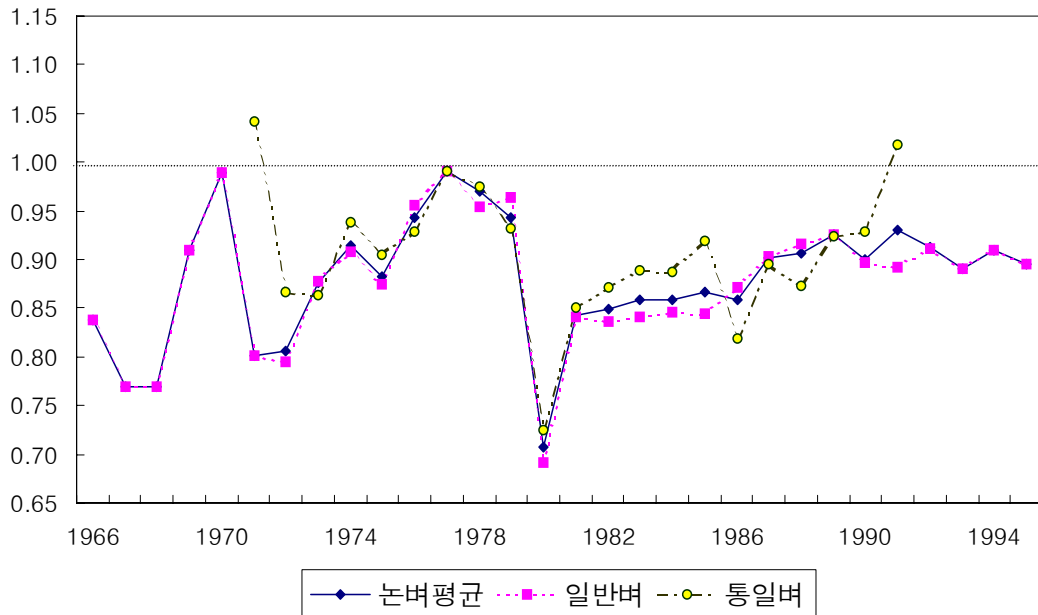
그림 10. 통계연보 및 시험장 평균단수 비교 : 1966~95년(전국평균)



<그림 10>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1981년 이후 통계연보의 단수는 시험장 평균단수에 비해 85~90%의 기술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자는 근접해 가고 있다. 이는 일반농가의 재배기술이 기술보급에 따라 시험장 기술수준에 근접해 가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약 90%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의 기술수준이 1970년, 1977년에 이미 시험장 기술과 일치할 정도로 높아졌다가 다시 하락한 후 안정세를 갖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바로 이 점이 과잉추계의 의혹을 낳고 있다.

<그림 11>은 농림통계연보상의 평균단수와 시험장 연구보고서의 평균단수를 비교하여 기술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농가의 재배기술과 시험장 기술과의 기술격차는 [기술격차=일반농가의 쌀 생산단수/시험장 시험연구의 평균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품종별로 살펴본 것이 <그림 11>이다.

그림 11. 품종별 시험장 평균과의 단수격차 지수 : 1966~95년 (전국평균)



<그림 11>에 따르면, 통일벼의 기술수준은 일반농가가 시험장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벼에 비해 기술격차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1968년까지는 75~85% 수준이던 일반농가의 기술이 급격히 상승하여 1970년에는 시험장기술과 동일한 수준에 다다르다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시험장 기술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1980 이후부터 전체 기술수준은 85%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79년 이전의 시기에 과잉추계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작황시험결과보고서의 내용에서도 발견된다. 1968년의 경우 “해남에서는 극심한 한발 때문에 전년보다 약 30% 감수”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나 통계연보상의 전남은 오히려 8% 증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의 경우에는 수원, 해남 이외의 전체 시험지에서 평년보다 2~66%의 감수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저온, 과조, 다우 등 벼 생육에 불리한 이상기온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농림통계연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의 감수를 보이고 있으며, 경남은 1% 감수에 불과하고 경북은 오히려 0.2% 증수된 것으로 발표된다. 또 쌀의 자급을 달성했다고 하는 1977년의 경우 시험장의 통



일계 품종은 6.3~9.2% 증수되었고, 일반벼의 경우에는 6.0% 증수된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림통계연보상의 일반벼는 7% 증수, 통일벼는 15% 증수를 나타내고 있어 통일벼의 증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1966년부터 1979년 이전까지의 쌀 생산량은 과잉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쌀 생산량의 수정계열 추계 : 1966~1979년

예상되는 과잉추계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우선,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시기에 대해 시험장 연구보고결과로부터 추계된 평균단수를 시험장수준의 기술로 보고 일반농가의 기술수준 비율을 추정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1980년대 이후 안정적인 기술격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반벼의 단수격차비율을 적용하여 기술수준의 차이를 추정하도록 한다. 이 기술수준의 차이를 적용하여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일반벼 및 통일벼의 새로운 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재배면적에 곱해 새로운 생산량을 추계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농가의 t년도 평균적 단수 :  $B_t$
- (2) 시험장의 t년도 평균적 단수 :  $A_t$
- (3) t년도의 일반농가 기술격차 :  $T_t = B_t/A_t$
- (4) 기술격차 변화율 :  $r = (T_t/T_{t-1}) - 1$

위 식에서 표본조사에 의한 일반농가의 평균적 단수  $B_t$ 가 과잉추계되었다고 가정하고, t년도의 일반농가의 기술격차  $T_t$ 를 추계하여  $A_t$ 로부터 새로운 계열의  $B_t$ 를 추계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격차가 안정적인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의  $T_t$ 를 사용하여, 이들 기간중의 기술격차변화율  $r$ 을 추계한 후<sup>50)</sup>, 이

50) 1981~85년, 1986~90년, 1991~95년의 세 시기에 대해  $r$ 의 평균적 수준을 계측한 결과

를 기준으로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T_t$ 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각 연도의 새로운 일반농가의 단수  $B_t$ 를 계산한 후 작부면적을 곱해 생산량을 추계하였다. 이때 모든 지표는 일반벼와 통일벼 각각에 대해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국 쌀 생산량을 추계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격차의 변화율  $r$ 은 통일벼와 일반벼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sup>51)</sup>, 지역별 기술격차의 변화율에는 두 품종 모두에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sup>52)</sup>.

표 17. 기술격차 변화율에 의한 일반농가 평균단수 추정: 1966~85년, 일반벼

	일반농가단수 (통계연보) B	시험장 평균단수 A	기술격차 비율 $Ta=A/B$	기술격차 비율(추계) $Te$	조정율 $E=Te/Ta$	일반농가단수 (추계) $Be$
1966	323	385	0.838	0.751	111.5	289
1967	297	386	0.769	0.756	101.7	292
1968	281	365	0.770	0.761	101.1	278
1969	339	372	0.909	0.766	118.6	285
1970	330	334	0.990	0.771	128.3	257
1971	337	421	0.801	0.777	103.1	327
1972	324	408	0.794	0.782	101.6	319
1973	345	393	0.878	0.787	111.6	309
1974	353	389	0.909	0.792	114.7	308
1975	351	402	0.874	0.798	109.6	321
1976	396	415	0.955	0.803	119.0	333
1977	423	427	0.991	0.808	122.5	345
1978	435	457	0.953	0.814	117.1	372
1979	437	453	0.964	0.819	117.6	372
1980	292	422	0.691	0.825	83.8	292
1981	408	485	0.841	0.830	101.3	408
1982	413	494	0.836	0.836	100.0	413
1983	420	499	0.842	0.842	100.0	420
1984	446	528	0.845			446
1985	437	518	0.844			437

<표 17>은 일반벼의 평균단수 추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각각 0.842, 0.903, 0.9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81~85년과 1991~95년 사이의 평균치로부터 연평균 증가율  $r$ 을 추계하여, 이로부터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T_t$ 를 구했다.

- 51) 통일벼의 경우 기술지도의 정도가 일반벼에 비해 높아서 일반벼보다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가정한다.
- 52) 이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이나, 각 도별 통일벼와 일반벼의 단수비교결과 1981년 이후에도 불안정한 기술격차율을 나타내고 있어, 안정적인 수치를 사용하기 위해 전국수치의 기술격차변화율을 택하기로 한다.

벼에서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기술격차변화율 추계결과와 농림통계연보상의 기술격차 비율을 비교하면 동시기에 단수추계에 과잉현상이 발견되고, 특히 1977년에는 22.5%의 과잉추계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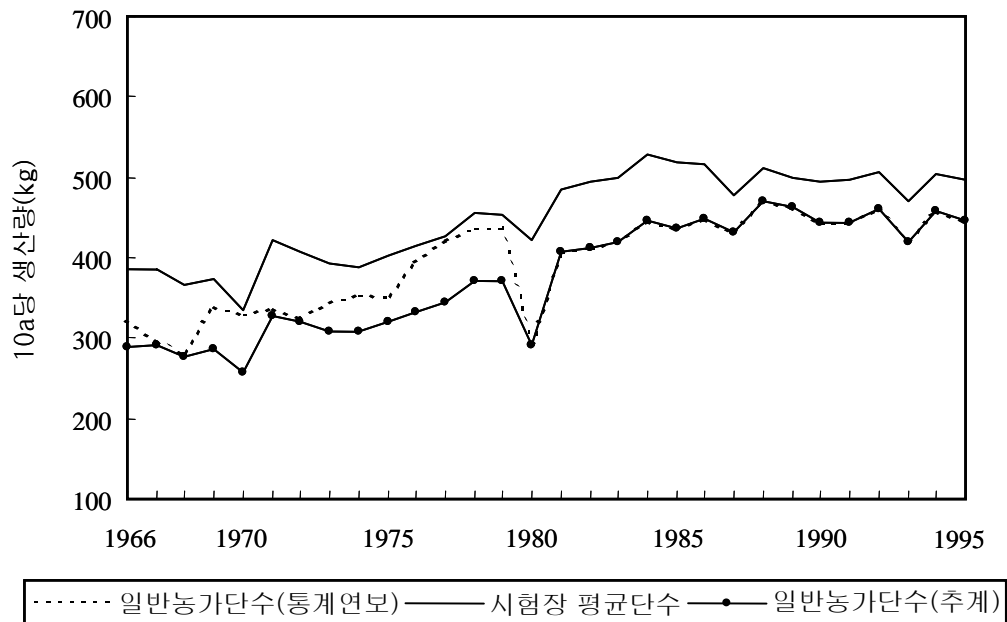
표 18. 기술격차 변화율에 의한 일반논가 평균단수 추정 : 1971~92년, 통일벼

	일반논가단수 (통계연보) B	시험장 평균단수 A	기술격차 비율 $Ta=A/B$	기술격차 비율(추계) Te	조정율 $E=Te/Ta$	일반논가단수 (추계) Be
1971	501	480	1.042	0.872	119.5	419
1972	386	446	0.866	0.873	99.2	389
1973	474	549	0.863	0.874	98.7	480
1974	473	504	0.938	0.875	107.2	441
1975	503	556	0.905	0.876	103.3	487
1976	479	515	0.929	0.877	106.0	452
1977	553	557	0.992	0.878	113.0	489
1978	486	498	0.975	0.879	111.0	438
1979	463	497	0.932	0.880	105.9	437
1980	287	396	0.724	0.880	82.3	287
1981	437	514	0.850	0.881	96.5	437
1982	489	561	0.872	0.882	98.8	489
1983	483	544	0.888	0.883	100.6	483
1984	502	566	0.887			502
1985	504	549	0.919			504
1986	472	577	0.819			472
1987	457	511	0.895			457
1988	536	614	0.873			536
1989	511	552	0.924			511
1990	520	559	0.929			520
1991	494					494
1992	531					531

<표 18>로부터는 통일벼의 평균단수 추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sup>53)</sup>, <표 17>과 비교할 때 일반벼보다 기술격차가 낮게 나타나 있다. 이는 통일벼 품종의 경우 일반벼보다 더 많은 기술지도가 이루어져 시험장 단수와 일반농가의 단수차이의 폭이 일반벼에서만큼 나타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일벼의 경우에도 일반벼에서와 같이 1977년을 중심으로 과잉추계가 확인된다. 이는 각 지역의 쌀 생산량 집계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과잉추계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12>는 1966년~1979년의 기간 동안 일반벼에 대해 새로 추계한 기술격차비율에 의해 단수를 재추계한 다음 추정된 쌀 생산량이다. 이를 보면, 일반농가의 단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차이에서도 완만한 진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이후의 기술격차 변화폭과도 어느 정도의 합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일반벼의 평균단수 추계결과 비교: 1966~95년



53) 통일벼의 경우 농림통계연보상에서 1971년부터 1991년까지의 자료밖에 얻을 수 없다.

<그림 13>에서도 1971~1979년의 기간 동안 통일벼에 대한 새로운 단수가 농림통계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안정적이며 1980년 이후와도 연속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3. 통일벼의 평균단수 추계결과 비교:1971~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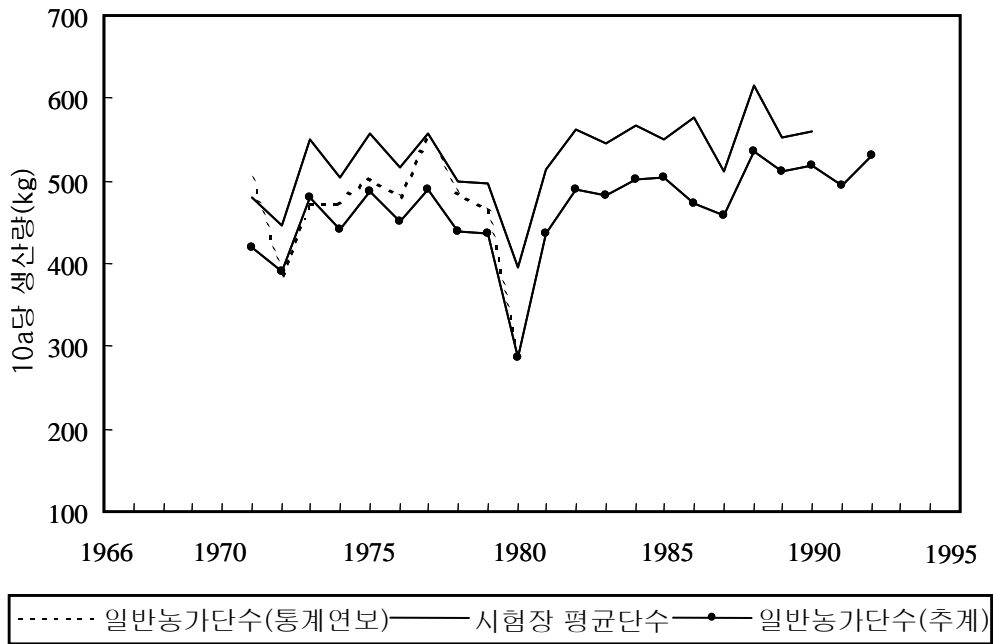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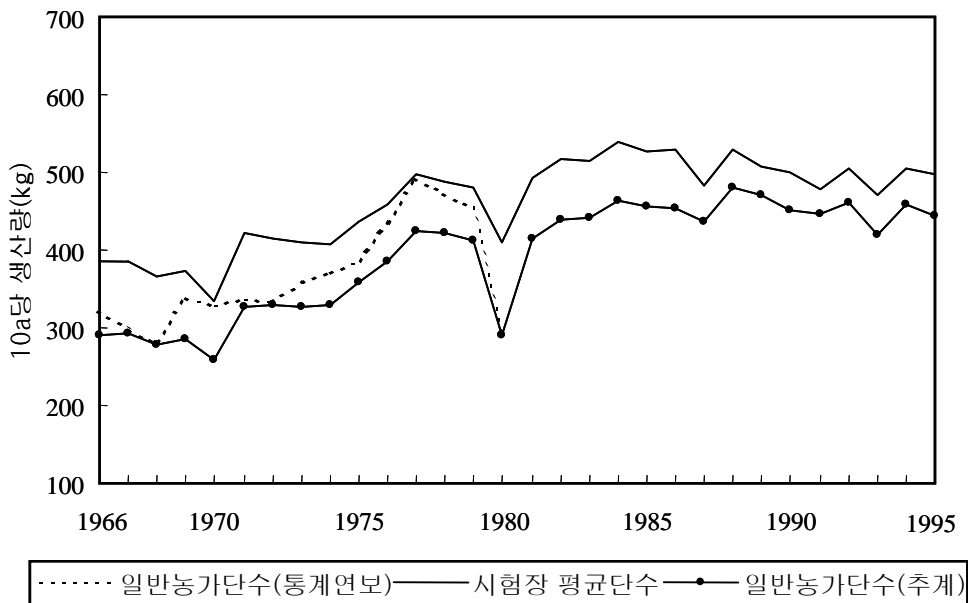


그림 14. 품종별 단수수정에 의한 쌀 전체 단수추계 결과:1966~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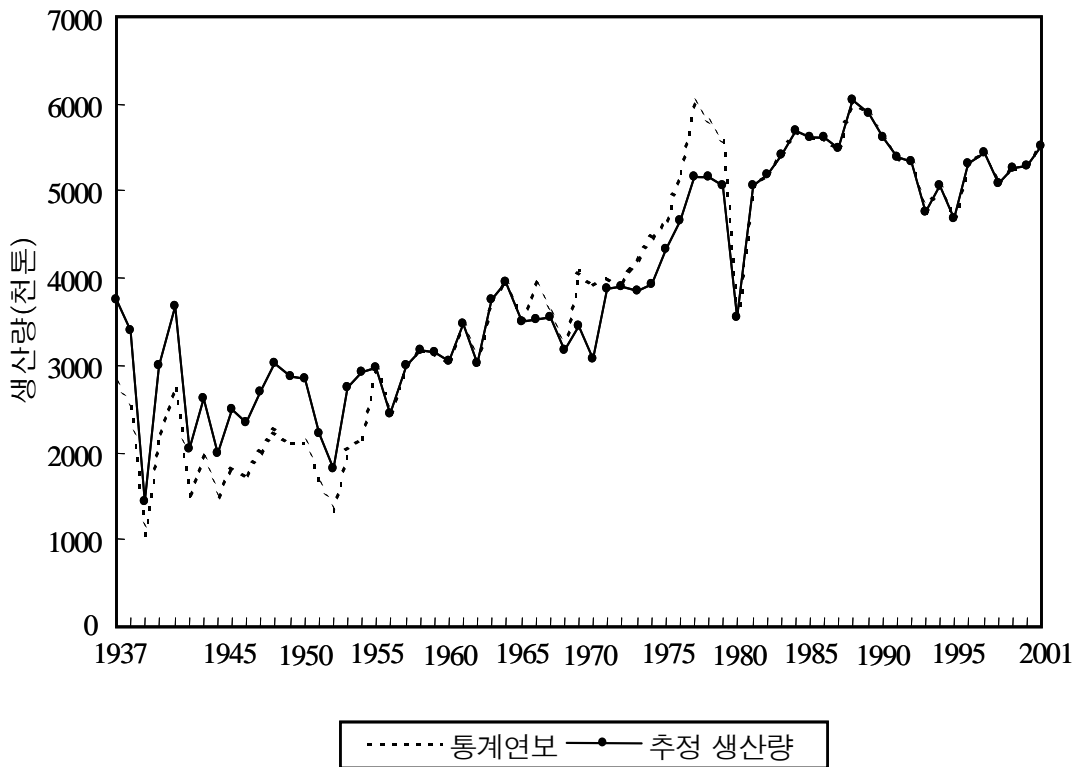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1966~1979년의 기간 동안 쌀의 단수추이를 비교하면 <그림 1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쌀 생산량 추세에 있어 1966~1979년 사이의 추이는 안정적임이 발견되며, 1981년 이후의 추이와 안정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3.3. 해방 이후 쌀 생산량의 추계 결과 및 의미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우리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쌀 생산 통계는 과잉추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작물시험통계의 단수추계를 통해 보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15>, <표 19>와 같다.

그림 15. 쌀 생산량 추계 결과: 1937~2001년



1966~1979년의 보정과 더불어 <그림 15>에는 1937~1954년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정을 가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림부는 1959~1964년까지의 시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55년부터 행정조사에 따른 쌀

생산통계수치를 일괄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이 1955년까지로 제한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농림통계연보계열과 커다란 단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층을 조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1955년까지 소급 현실화하는데 이용한 조정계수를 근거로 1937년까지 연장하는 보정을 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괄수정은 행정통계계열이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향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5>에 따르면, 농림통계연보의 공식통계보다 1955년 이전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더 많으며,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정계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최대치에 달한 시점은 1977년이 아니라 1988년이 된다. 즉, 1970년대 후반의 최대 생산을 정점으로 쌀 생산량이 정체 하락 추세로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1988년까지 꾸준히 기술수준 및 생산량을 증대시켜오다가 그 이후 감소 추이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쌀 생산량의 추계 및 보정작업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료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의 추계가 갖는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종에 달하는 품종별, 지역별 쌀의 평균 단수를 파악해 추계에 활용하여 보았지만, 그 각각에 대한 품목별 재배면적 자료가 없어 가중치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술보급을 격차를 가정한 것 역시 가용 통계자료의 부족에서 유발되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좀더 정교한 보정사료를 발굴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19. 쌀 생산량 추계 결과 : 1937~2001년

	기존 통계연보 (A)	추정생산량 (B)	비율 (B/A, %)
1937	2 786 199	3 763 792	135.09
1938	2 513 680	3 395 654	135.09
1939	1 063 776	1 437 023	135.09
1940	2 218 834	2 997 356	135.09
1941	2 721 589	3 676 512	135.09
1942	1 516 210	2 048 202	135.09
1943	1 943 011	2 624 754	135.09
1944	1 477 429	1 995 815	135.09
1945	1 848 359	2 496 892	135.09
1946	1 735 256	2 344 105	135.09
1947	1 994 400	2 694 174	135.09
1948	2 229 943	3 012 363	135.09
1949	2 121 657	2 866 081	135.09
1950	2 103 464	2 841 506	135.09
1951	1 634 292	2 207 768	135.09
1952	1 336 834	1 805 813	135.08
1953	2 035 580	2 749 854	135.09
1954	2 160 398	2 918 498	135.09
1955	2 959 037	2 959 037	100.00
1956	2 437 616	2 437 616	100.00
1957	3 001 882	3 001 882	100.00
1958	3 160 932	3 160 932	100.00
1959	3 149 537	3 149 537	100.00
1960	3 046 546	3 046 546	100.00
1961	3 462 548	3 462 548	100.00
1962	3 014 915	3 014 915	100.00
1963	3 758 047	3 758 047	100.00
1964	3 954 491	3 954 491	100.00
1965	3 501 132	3 501 132	100.00
1966	3 919 280	3 519 705	89.80
1967	3 603 104	3 543 112	98.33
1968	3 195 335	3 160 308	98.90
1969	4 090 444	3 452 931	84.41
1970	3 939 260	3 078 339	78.15
1971	3 997 635	3 875 944	96.96
1972	3 957 190	3 912 465	98.87
1973	4 211 630	3 843 660	91.26
1974	4 444 858	3 931 094	88.44
1975	4 669 098	4 341 156	92.98
1976	5 214 963	4 651 753	89.20
1977	6 005 610	5 160 432	85.93
1978	5 797 128	5 164 264	89.08
1979	5 564 808	5 057 405	90.88



	기존 통계연보 (A)	추정생산량 (B)	비율 (B/A, %)
1980	3 550 257	3 550 257	100.00
1981	5 062 975	5 062 975	100.00
1982	5 175 073	5 175 073	100.00
1983	5 404 045	5 404 045	100.00
1984	5 681 852	5 681 852	100.00
1985	5 625 874	5 625 874	100.00
1986	5 607 235	5 607 235	100.00
1987	5 493 343	5 493 343	100.00
1988	6 053 482	6 053 482	100.00
1989	5 897 936	5 897 936	100.00
1990	5 605 979	5 605 979	100.00
1991	5 384 388	5 384 388	100.00
1992	5 330 826	5 330 826	100.00
1993	4 749 562	4 749 562	100.00
1994	5 059 764	5 059 764	100.00
1995	4 694 956	4 694 956	100.00
1996	5 322 962	5 322 962	100.00
1997	5 449 561	5 449 561	100.00
1998	5 096 879	5 096 879	100.00
1999	5 262 700	5 262 700	100.00
2000	5 290 771	5 290 771	100.00
2001	5 514 796	5 514 796	100.00



# 부 록



## VII. 부 록

### 1. 계열별 통계정비작업 내용

#### 1.1. 해방 이전

분류	세분류	수록기간	단위	비고
경지면적	전답	1910~42	정보	
	자소작전답	1914~42		
	관개답	1934~42	정보	
	화전	1921~22 1929~42		1918~28년의 전국계는 『농업통계서』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전업·겸업농가호수	1921, 1923 1928~40		1910~27년의 전국계는 농업통계표(1940년), 단 전·겸업구분은 1913년부터 단 1921, 23년의 도별 통계는 『농업통계표』에 있다.
	주업·겸업농가인구	1917~42		

분류	세분류	수록기간	단위		비고
			면적	생산량	
미곡	쌀	1910~1940	정보	석	
	잡쌀	1910~1940	정보	석	
	육미	1910~1940	정보	석	
맥류	보리	1910~1940	정보	석	1918~32년은 논밭별 구분
	밀	1910~1940	정보	석	1918~32년은 논밭별 구분
	裸麥(쌀보리)	1910~1940	정보	석	1918~32년은 논밭별 구분
	라이보리	1936~1940	정보	석	
	귀리	1910	정보	석	이후는 잡곡 항에
두류	콩	1911~1940	정보	석	
	팥	1910~1940	정보	석	
	녹두	1915~1940	정보	석	
	땅콩	1916~1940	정보	석	
	채두	1933~1940	정보	석	1922~32년 전국계는 농업 통계표
	완두	1933~1940	정보	석	1922~32년 전국계는 농업 통계표
	기타	1910~1940	정보	석	빠진 연도의 총합
잡곡	조	1910~1940	정보	석	
	피	1910~1940	정보	석	
	기장	1910~1940	정보	석	
	수수	1910~1940	정보	석	
	옥수수	1910~1940	정보	석	
	귀리	1910~1940	정보	석	1910년은 맥류에
	메밀	1913~1940	정보	석	

분류	세분류	수록기간	단위		비고
			면적	생산량	
특용작물	육지면	1911~1942	정보	관,근	1910, 1913년은 합계 통계만 있다. 1910~1913까지는 단위가 관임.
	재래면	1911~1942	정보	관,근	*육지면과 동일
	삼베(대마)	1910~1942	정보	관	
	모시(저마)	1910~1942	정보	관	
	청마	1932~1943	정보	관	1925~31년의 전국계는 농업통계표(1940) 1932년은 『농업통계표』
	왕골(완초)	1912~1942	정보	관	
	닥나무(楮)	1921, 1923 1928~1942	정보	관	1919~27년까지 전국계는 농업통계표(1940) 1921, 23, 28는 『농업통계표』~각 년도에 도별 통계가 있다.
	참깨(胡麻)	1916~1942	정보	석	
	들깨	1910~1942	정보	석	
	피마자(蓖麻)	1931~1941	정보	석	고리버들과 동일
	고리버들(杞柳)	1931~1942	정보	관	1925~30년 전국계는 농업통계표(1940) 1931, 32는 농업통계표 각년도
	제충국	1931~1942	정보	관	*고리버들과 동일
	박하	1931~1942	정보	관	*고리버들과 동일
	인삼	1931~1942 (생산량) 1933~1942 (면적)	정보	근	1913~30년 생산량은 1940년 농업통계표 1931, 32년 도별통계는 농업통계표 작부면적 정보는 통계연보에만 있음
연초	1910~1942	정보	관		

분류	세분류	수록기간	단위		비고
			면적	생산량	
소채류	감자	1911~1941	정보	관	
	고구마	1911~1941	정보	관	
	무우	1912~1942	정보	관	
	배추	1912~1942	정보	관	
	양배추(甘藍)	1933~1942	정보	관	1931, 32년 전국계는 농업통계표
	과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가지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오이(胡瓜)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호박(南瓜)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참외(倭瓜)	1912~1942	정보	관	
	수박(西瓜)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마늘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토란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고추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미나리	1933~1942	정보	관	*양배추와 동일	
과수	사과	1912~1942	나무수	관	
	배	1912~1942	나무수	관	
	포도	1912~1942	나무수	관	
	복숭아	1912~1916 1933~1942	나무수	관	
	감	1912~1916 1933~1942	나무수	관	
	밤	1912~1920	나무수	관	
녹비	청예대두	1913~1939		관	1912년 전국계는 농업통계표 1918년은 전답구분 있음 1933~39년은 농업통계표
	자운영	1913~1939		관	*청예대두와 동일
	루상	1913~1939		관	*청예대두와 동일
	힐초	1913~1927		관	1918년은 전답구분 있음
	목숙	1913~1927		관	*힐초와 동일
	청예소두	1915~1917		관	
	헤아리벻찌	1928~1939		관	*청예대두와 동일
기타			관		



분류	세분류	수록기간	단위		비고
			면적	생산량	
잠업	뽕밭	1910~1942	정보	-	
	고치	1910~1942	-	석	
축산	축우	1910~1942		마리	
	유우	1910~1939		마리	1925~27년은 전국통계만 있다. 1928~39년은 농업통계표
	말	1910~1938		마리	
	돼지	1910~1942		마리	
	토끼	1933~1942		마리	
	면양	1916~1939		마리	1912~15년의 전국계는 농업통계표
	산양	1910~1942		마리	
	칠면조	1933~1942		마리	
	닭	1910~1942		마리	
	오리	1933~1942		마리	
	축산물	도살한 소	1910~1942		마리
도살한 돼지		1910~1942		마리	
달걀		1934~1942		천개	
꿀		1914~1917 1933~1942		kg	
우유		1910~1915 1921~1924 1928~1942		석/리터	1910~15, 1921~24, 1928~30년 단위는 석 1928~30, 1932~33년 은 농업통계표

## 1.2. 해방 이후

### 가. 공통

연도	품목명	내 용	비고
1962	공통	부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음(1963농림통계연보, p.114)	
1964	공통	1965년 농림통계연보에서부터 농림업생산지수가 발표되고 있음(1965년 농림통계연보, p.375)	
1965	공통	1961년 이전은 “행정구역 변경전의 조사”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곡 생산량의 경우 1965년산은 표본조사(현실화)결과이며, 1961~64년산은 시험조사(표본조사)결과에 의한 추계수치라고 표시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3)	
1966	공통	맥류, 미곡, 서류의 생산량은 행정통계자료와 표본통계자료를, 서류생산량은 생서과 정곡환산(감자 0.2, 고구마 0.31)한 자료를 병기해 놓는다고 밝히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3)	
1974	공통	미곡, 맥류, 서류, 잡곡, 두류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1955년부터 ‘톤’과 ‘ha’로 변경된 전국수치가 발표되고 있으며, 1973년의 재배면적이 단위변경된 자료 외에 1955~63년 자료는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입력함(1975년 농림통계연보, pp.92~99)	
1978	공통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부터 과종면적과 생산량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는데, 생산량 발표시 식부면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현재 작업에서는 식부면적을 중심으로 입력함(1979년 농림통계연보, pp.72~79)	
1981	공통	1982년 농림통계연보에서부터 대구시, 인천시가 경북과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1981년 자료는 각 도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76)	
1981	공통	1981년 생산량 중 미곡, 맥류, 서류가 정곡으로만 별도로 발표되고 있고, 1981년 단위당 생산량은 조곡(미곡은 현미)부분만 나타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 pp.76~82)	

## 나. 생산량

### <미곡>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논벼	1952농림통계연보에서는 논벼, 밭벼가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1953농림통계연보에는 전국치만 발표됨(1953농림통계연보, p.70)	
1951	미곡	논벼/밭벼, 정곡/조곡 구분이 없음.	
1954	미곡	생산량은 현미로서 정조(unhulled)의 50%라고 나와 있으며, 그 전년도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유지되고 있음(1955농림통계연보, p.127)	기계적 보정 참조
1955	미곡	수확고는 백미이며, 1954년 이전의 정곡환산율은 정조의 50%였으나, 1955년부터는 농림부와 FAO간에 협정된 환산율 51%를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1956 농림통계연보, p.139). 그러나 1951~54년 미곡 정곡으로 현미가 발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1956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미곡 정조생산량이 1951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존 50%에서 51%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환산률의 변화(50%→51%으로의 비율변화)를 기존 발표된 1951~54년 현미생산량에 적용시킨 바, 기존 발표된 정곡생산량(현미)에 2%를 추가 계산하면 정조에 51%를 적용한 수치와 일치하게 됨.	
1963	미곡	미곡 생산량이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된 1959~61년 자료가 196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음(1964농림통계연보, p.98)	
1965	미곡	1965년산이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고, 1961~64년산 역시 새로운 생산량이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146, p.3)	

연도	품목명	내 용	비고
1966	미곡	1965년 표본조사에 의해 수정되어 발표되었던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에 추가하여 1955~1960년 자료 역시 발표되고 있으며 1955~1964년 생산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34, p.534) 여기서는 1959, 61, 62, 63, 64년도의 계수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시험조사한 계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58년 이전과 60년의 계수는 59~64년산(60년산 제외) 시험조사의 생산량합계를 59~64년산 행정조사의 생산량합계로 나눈 수정비율 132.48%를 적용하여 수정현실화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수정현실화하여 발표하고 있는 자료 중 58년과 60년 생산량을 살펴보면 58년도는 132.32%, 60년은 132.68%로 55~57년 132.48%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수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966	미곡	미곡생산량의 경우 1965년산 이후는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생산량이며, 1959, 1961~64년산은 농림통계개량사업(표본시험조사) 결과의 각년 단보당 수확량을 행정통계조사결과와 식부면적에 곱한 추정생산량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외의 각년산은 농림통계개량사업(표본시험조사) 결과의 각년 단보당 수확량 합계를 5년간의 단순산술 평균한 단보당 수확량을 행정통계조사의 단보당 수확량과 비교하여 평균증가율만큼 행정통계의 각년 수확량에 가산한 추정생산량이라 밝히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p.565~566).	
1966	미곡	4287년(1954년) 이전의 정곡환산율은 정조의 50%였으나, 4288년(1955년)부터는 농림부와 FAO간에 협정된 환산율 51%를 적용(1956년 농림통계연보, p.139)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량에 의한 환산율은 74%로 1965년 농림통계연보 곡류용량중량환산표까지는 그대로 발표되었음. 그러나 1966년 농림통계연보부터는 용량에 의한 환산율은 50%, 중량에 의한 환산율은 72%로 1954년 이전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최근 2002년 농림통계연보까지 유지되고 있음. 1966년 농림통계연보(1965년)에서 다시 환산율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오류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1951	밭벼	1952농림통계연보에는 논벼, 밭벼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1953농림통계연보에 전국치만 발표됨(1953농림통계연보, p.70).	
1965	밭벼	1965년산 미곡생산량이 표본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논벼만이 포함된 것으로 밭벼의 경우 이전 자료가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지 않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146).	
1966	밭벼	1965년부터 미곡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되면서 논벼생산량은 1965년부터 기존 행정조사에 의한 자료와는 다른 새로운 생산량 계열이 발표되고 있으나, 밭벼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조사방법까지 밝히고 있으면서도 기존 행정조사자료 계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발표하고 있음. 다만 1955~1960년까지 '석'으로 발표되던 것이 '톤'으로 단위만 변경되고 있음. 따라서 미곡생산량의 수정비율로 발표한 132.48%가 논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밭벼에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1967년 농림통계연보, p.134, p.543, p.544).	

<맥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맥류	전국합계만 있고, 지역별 품목합계 자료가 없음.	
1954	맥류	맥류정곡환산율은 대맥 55%, 쌀보리 83%, 소맥 113%, 호맥 93%이며, 소맥의 정곡이라 함은 소맥분을 말함(1955, 56, 57년 농림통계연보, p.134, p.146, p.168)	
1962	맥류	1962년에는 생산량 단위가 '석'과 '톤'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으며, 단수도 '홉'과 'kg'으로 동시에 게재되고 있음(1963농림통계연보, p.140)	
1963	맥류	맥류 생산량이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된 1959~61년 자료가 1964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음(1964농림통계연보, p.128).	
1975	맥류	1975년 작부면적 및 생산량이 발표되면서 이전 1955년부터 소급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 발표자료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맥류에 대한 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 것 같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1976년 농림통계연보, p.84).	
1977	맥류	1977년 맥류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그 전해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1977년 미곡의 경우는 그 전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맥류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함(1978년 농림통계연보, p.70).	
1991	맥류	겉보리, 쌀보리 생산량은 1991년부터 변경된 정곡환산율을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겉보리 65%→59%로 변경, 쌀보리 72%→68%로 변경	
1966	겉보리	1963년 생산량이 기존 발표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1955~1958년까지 '석'으로 발표된 자료가 '톤'으로 바뀌어 1955~1965년까지 행정자료와 표본자료가 동시에 발표되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52).	
1968	겉보리	1967, 1968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63년 생산량이 119,100.9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원래 생산량은 119,120톤이며, 1969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 다시 원래 발표량이 나타나고 있음(1969년 농림통계연보, p.148).	
1980	겉보리	1981년 농림통계연보에서부터 겉보리가 맥주보리와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1973년부터 소급하여 맥주보리 생산량과 재배면적, 그리고 겉보리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발표되고 있음(1981년 농림통계연보, pp.86~87).	
1966	쌀보리	1955~58년 '석'으로 발표된 자료가 '톤'으로 단위가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1955~1965년까지 행정자료와 표본자료가 동시에 발표되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53).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67	쌀보리	1962년 생산량이 46,1269.6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68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461,299.6톤으로 나오고 있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135).	
1952	밀	1952년 조곡, 정곡 생산량이 동일하게 나옴. 확인 필요(1954농림통계연보, p.85).	
1966	밀	1965년까지 밀 정곡은 소맥분으로 발표되었으나, 1966년에는 소맥이 원곡으로 발표되면서 조곡(unhulled)이 게재되고 있는데, 이전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1966년 자료만 원곡인지 확인 필요(1967년 농림통계연보, p.153).	
1981	밀	정곡과 조곡으로 발표되고 있는 생산량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77, p.81).	
1951	밀, 호맥	조곡, 정곡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으나 1952년판 농림통계연보 p.30 하단의 각주에 정곡이라고 나와 있음.	
1953	호밀	1952년 조곡, 정곡생산량이 동일하게 나옴(1954농림통계연보, p.85).	
1966	호밀	밀과 마찬가지로 1966년에는 호맥이 원곡으로 발표되면서 조곡(unhulled)이 게재되고 있는데, 이전 정곡으로 발표된 생산량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1966년 자료만 원곡인지 확인 필요(1967년 농림통계연보, p.153).	
1939	귀리	1939년 귀리 생산량이 1938년, 1940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음. 또한 1939년 이전, 이후의 남북한 생산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총 생산량에서 남한 비율이 대략 25~40% 정도인데 반해, 1939년 남한 생산량 비율을 보면 70%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	
1951	귀리	잡곡에 포함됨.	
1958	귀리	1957년까지 잡곡에 포함되어 발표되던 귀리(연맥)가 1958년부터는 맥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음. 그러나 1958년 자료만 맥류에 포함되어 합산되고 있는 반면, 1957년 이전 자료는 잡곡에 포함된 채 잡곡이 계산되고 있음(1959농림통계연보, p.73, p.74, p.77).	
1959	귀리	1958년부터 맥류에 포함되어 발표되는 귀리가 여전히 그 이전 자료와는 연결되지 않고 있음(1960년 농림통계연보, p.85).	
1960	귀리	1958년부터 맥류에 포함되어 발표되면서도 이전 자료는 잡곡에 포함되었지만, 1960년부터는 1957년 이전 자료 역시 맥류에 포함시켜 계산이 되고 있음.(1961농림통계연보, p.81).	

<두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두류	지역별 품목합계가 없으며, 품목별 작부면적의 전국합계가 다름.	
1954	두류	타작물에 간작된 두류도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1955 농림통계연보, p.144).	
1963	두류	두류 생산량이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된 1959~61년 자료가 1964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음(1964 농림통계연보, p.174).	
1974	두류	대두(콩), 소두(팥)의 74년 수치는 표본조사 수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를 일컫는 지는 확인 필요(1975년 농림통계연보, p.76).	
1966	콩	1962년 생산량이 155,746.9톤으로 발표됐으나, 1967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55,476.9톤으로 발표됨. 그러나 이전 발표된 자료에서 지역별 합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후 발표된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1967년 농림통계연보, p.180).	
1978	녹두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71년부터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1974년부터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이전 발표자료와는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83).	
1978	기타 두류	1971년부터 소급하여 발표되면서 이전 발표된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1978년부터 발표되고 있지 않은 완두, 채두를 포함하여 발표하는 것 같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1979년 농림통계연보, p.83).	

<서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서류	전국합계만이 생서, 정곡 구분없이 발표되고 있으며 정곡 작부면적의 경우 전국수치와 지역별 합계가 다르게 나타남.	
1951	서류	생서, 정곡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생산량이 '관'으로 표시된 것은 '생서'로, '석'으로 표시된 것은 '정곡'으로 입력함.	
1954	서류	춘식, 추식을 합한 것이며, 정곡은 감자 163관, 고구마 112관을 1석으로 환산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1955년 농림통계연보, p.148, p.149).	
1955	서류	춘식, 추식을 합한 것이며, 정곡은 감자 163관, 고구마 112관을 1석으로 환산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1956년 농림통계연보, pp.160~161).	
1962	서류	1962년부터 서류 생서 생산량 단위는 '관'에서 '톤'으로 변경되었지만, 정곡 생산량 단위는 여전히 '석'을 사용하고 있음(1963농림통계연보, p.182).	
1963	서류	1963년 생산량은 조곡만이 발표되고 있으며, '관'으로 발표되었던 1959~1961년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고 있음(1964농림통계연보, p.184).	
1966	서류	현실화한 계수가 발표되고 있으며, 행정자료도 동시에 발표되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90).	
1978	서류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71년부터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1974년부터 이전 발표자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81).	
1998	서류	정곡생산량은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감자는 20%, 고구마는 31%임을 밝히고 있음(1999년 농림통계연보, p.96).	
1966	감자	생산량의 경우 행정자료와 표본자료가 1955년부터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데, 1964년 생산량이 428,002.4톤인데 248,002.4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963~65년 정곡이 발표되지 않았던 감자의 정곡 생산량이 게재되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91).	
1975	감자	1972년 생서 생산량이 458,534.8톤으로 발표됐으나, 1976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이전 자료들을 소급 발표하면서 453,534.8톤으로 게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때 정곡 생산량은 변함없이 그대로 발표되고 있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1976년 농림통계연보, p.73, p.85).	
1977	감자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의 경우 발표되고 있는 단수와 실제 계산한 단수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정곡의 경우 두 단수가 일치되고 있으므로 생서생산량이 틀리게 발표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곡생산량을 환산율에 따라 계산된 생산량과 생서 생산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지역별 생산량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 정곡생산량에 따라 지역별 생산량을 수정해야 할 것임. (1978년 농림통계연보, p.71).	
1978	감자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71년부터 소급하여 발표하면서 1974년 이후 감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이전 발표자료와는 다르게 발표되고 있으며, 고구마의 경우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81).	



<잡곡>

연도	품목명	내 용	비고
1951	잡곡	지역별 품목합계가 없음	
1954	잡곡	잡곡 정곡환산율은 조 55%, 피 28%, 기장 60%, 수수 65%, 옥수수 100%, 연맥 30%, 교맥 70%임(1955농림통계연보, p.140 하단).	
1955	잡곡	잡곡 정곡환산율은 조 56%, 피 28%, 기장 52%, 수수 70%, 옥수수 100%, 연맥 37%, 교맥 49%임(1956, 57년 농림통계연보, p.152, p.174).	
1960	잡곡	잡곡에서 연맥이 제외되면서 1956, 1957년 잡곡합계에서도 연맥 작부면적과 생산량 자료를 빼고 계산하고 있음. 이 또한 연맥이 포함된 맥류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계산을 수정하는 것이 나올 듯함(1961농림통계연보, p.102).	
1978	잡곡	1971년부터 생산량과 식부면적을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1974~77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이전 발표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82).	
1951	옥수수	정곡, 조곡 구분이 없음.	
1958	메밀	전국 단수가 없음(1959년 농림통계연보, p.77).	
1978	기타 잡곡	1978년부터 기타 잡곡 생산량과 식부면적이 발표되고 있으며, 1971년부터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음. 이전 잡곡에 포함되어 발표되다가 1978년 이후 발표되고 있지 않은 피, 기장 등의 합계로 보이지만 이의 합계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83).	
1981	기타 잡곡	1978년부터 기타 잡곡이 1971년부터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1982년 농림통계에서는 1961년부터 재발표되고 있음. 잡곡류에 포함되어 발표되던 개별품목이 기타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1982년 농림통계, p.84).	

<과실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과실류	1952농림통계연보에 1945~50년 작부면적, 생산량 자료만 발표하고 있으며, 1936~44년 자료는 남북한이 구분되어 발표됨(pp.196~211).	
1952	과실류	1953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농림통계연보, p.93).	
1962	과실류	1962년 생산량이 '관'과 'kg'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으나, '관'이 'kg'으로 바뀌면서 발표된 생산량 계산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음(1963 농림통계연보, p.190).	
1963	과실류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59~1962년까지는 kg으로 다른 품목들이 단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여기서는 1959~61년 '관'으로 발표됐던 전국자료가 'kg'으로 바뀐 것 밖에 없음(1964년 농림통계연보 p.204).	
1964	과실류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면서, 1960~62년 'kg'으로 발표되었던 자료들이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음(1965년 농림통계연보, p.178).	
1965	과실류	1961~65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이전 발표되었던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p.3에서 언급했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생산량, 재배면적이 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임(1966년 농림통계연보, p.248, p.249).	
1978	과실류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1975년부터 발표되면서 기존 발표된 자료와는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p.88~89).	
1952	배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2).	
1952	복숭아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3).	
1952	복숭아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3).	
1952	사과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2).	
1965	사과	1965년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전 1961~64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48).	
1952	오얏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3).	
1981	자두	1982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61년부터 자료가 발표되고 있고, 1975~77년 작부면적과 생산량자료가 기존에 발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98).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99	자두	1999년 자두 생산량이 43,671톤으로 발표되었지만, 2000년에는 43,971톤으로 발표되고 있음. 1999년 품목별 합계와 과실류 총합계는 물론 지역별 합계와 전국합계도 문제되는 게 없어 잘못 인쇄된 것으로 보임(2001년 농림통계연보, p.117).	
1952	포도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2).	
1952	감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2).	
1952	감귤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3).	
1952	과실류 기타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치가 발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3).	
1965	과실류 기타	1965년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전 1961~64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49).	
2000	과실류 기타	1998년 기타 과실류 생산량이 73,869톤으로 발표됐으나 2001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73,689톤으로 발표되고 있음. 하지만 1998년 과실류 자료는 문제되는 게 없어 잘못 인쇄된 것으로 보임(2001년 농림통계연보, p.117).	

<채소류>

연도	품목명	내용	비고
1951	채소류	1952 농림통계연보에 1945~50년 작부면적, 생산량 자료만 발표하고 있으며, 1936~44년 자료는 남북한이 구분되어 발표됨(pp.152~195).	
1954	채소류	채소류 합계와 품목별 합계가 전국과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1955 농림통계연보 p.163).	
1962	채소류	생산량 단위가 '관'과 'kg'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지만,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단위변경에 따른 생산량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음(1963 농림통계연보, p.194).	
1963	채소류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59~1962년까지는 kg으로 다른 품목들의 경우 단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여기서는 과실류와 같이 1959~61년 '관'으로 발표됐던 전국자료가 'kg'으로 바뀐 것 밖에 없음(1964년 농림통계연보 p.204).	
1964	채소류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면서, 1960~62년 'kg'으로 발표되었던 자료들이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음(1965년 농림통계연보, p.180).	
1965	채소류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1965년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전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전혀 다르게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0).	
1972	채소류	채소류 합계가 발표되고 있는데, 197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에서 양송이 자료가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소류 합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1971년 이전 자료에서는 양송이가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음(1973년 농림통계연보, p.224).	
1973	채소류	양송이 생산량이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1967~1971년까지 채소류 생산량 합계에서 양송이 생산량이 제외된 채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4).	
1973	채소류	채소류가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4).	
1974	채소류	양송이가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채소류 합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재배면적 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는데도 1972년 이전 자료들은 '정보'단위의 자료를 그대로 'ha'수치로 발표함(1975년 농림통계연보, p.80).	
1978	채소류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 채소류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1975년부터 발표되면서, 기존 발표된 자료와는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p.84~87).	
1987	채소류	시설채소류 과종면적은 발표되고 있지만, 시설채소류 생산량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94).	
1999	채소류	1999년부터 시설재배 생산량이 1994년부터 소급하여 발표됨으로써 이전 자료는 노지채소류 생산량으로 발표되고 있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2).	
1952	수박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9).	

연도	품목명	내용	비고
1952	호박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8).	
1952	토마토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9).	
1952	오이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8).	
1952	참외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8).	
1952	가지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던 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 농림통계연보, p.89)	
1952	배추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던 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 농림통계연보, p.86).	
1965	배추	1965년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전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전혀 다르게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0).	
1967	배추	1962년 생산량이 428,416.7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428,146.7톤으로 나오고 있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7).	
1952	양배추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던 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 농림통계연보, p.87).	
1954	양배추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다름(1955 농림통계연보, p.155).	
1952	시금치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던 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0).	
1967	시금치	1967년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8).	
1967	아스파라거스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재배면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생산량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9).	
1968	아스파라거스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재배면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생산량, 단수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 강원도의 경우 단수만이 발표될 뿐 생산량은 발표되지 않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단수가 발표되지 않음(1969년 농림통계연보, p.223).	
1952	미나리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던 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 농림통계연보, p.90).	
1959	미나리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60 농림통계연보, p.104).	
1967	미나리	1967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9).	
1998	조미채소	1998년 조미채소 생산량 합계가 2,101,843톤인데 141,462톤으로 잘못 발표하고 있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4).	
1952	고추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 농림통계연보, p.89).	

연 도	품 목 명	내 용	비 고
1956	생강	1956~61년까지 특용작물에 포함됐다가 1966년 이후 채소류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전 발표자료의 변경이 없어 품목별 합계와 채소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57 농림통계연보, p.191, p.207).	
1962	생강	특용작물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는 생강의 1962년 자료가 없음(1963 농림통계연보, p.187).	
1966	생강	1961년까지 특용작물에 포함되어 발표되던 생강이 이후 품목명까지 특용작물에서도 제외된 후 1966년에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이전 자료는 유지되지 않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223).	
1952	파	1953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농림통계연보, p.87).	
1952	무	1953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농림통계연보, p.86).	
1952	당근	1953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농림통계연보, p.86).	
1959	당근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1960 농림통계연보, p.100).	
1952	토란	1953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농림통계연보, p.91).	
1959	토란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1960 농림통계연보, p.105).	
1967	토란	1967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8).	
1952	우영	1953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농림통계연보, p.90).	
1959	우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1960 농림통계연보, p.104).	
1967	우영	1967년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8)	
1967	양송이	1967년부터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특용작물로 분류하여 입력함(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9).	
1976	양송이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채소류 합계에서는 제외되고 있음(1977년 농림통계연보, p.95).	
1965	채소류 기타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으며, 1961년 자료에 대한 확인 필요(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3).	

<특용작물>

연도	품목명	내용	비고
1951	특용작물	지역별 품목합계가 발표되지 않음.	
1963	특용작물	생산량이 '근', '관'이 '톤'으로 바뀌면서 1959~1961년까지 발표되고 있으나, 1959~61년 생산량은 'kg'으로 게재되고 있음(1964 농림통계연보, p.201).	
1964	특용작물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면서, 1960~61년 생산량도 톤으로 발표되고 있음(1965년 농림통계연보, p.184).	
1965	특용작물	1965년 자료가 발표되면서 1961~64년 생산량과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 품목이 추가되면서 달라진 것인지, 품목별 자료가 변한 것인지 확인 필요(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4)	
1978	특용작물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75년부터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1977년까지 많은 품목들이 발표되었던 것에 비해 1978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에는 4종류(참깨, 들깨, 면화, 유채)만이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파종면적에는 기타 특용작물도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음(1979년 농림통계연보, p.89, p.79).	
1982	특용작물	두류에 포함되어 발표됐던 땅콩이 1982년부터는 특용작물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두류에 입력함(1983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면화	생산량 단위 : 근, 단수 : 근,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다르며, 단수계산을 하면 충청북도, 제주도가 큰 차이를 나타냄.	
1957	면화	전국수치와 지역별 합계에 차이가 남(1958 농림통계연보, p.150).	
1962	면화	생산량 단위로 '톤'과 '관'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지만, 면화의 경우는 '근'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 만약, 면화 생산량 역시 톤과 함께 발표되는 단위가 '관'이라면 계산이 틀림(1963년 농림통계연보, p.184).	
1965	면화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4).	
1951	아마	1952 농림통계연보에 1936~44년 자료만 발표됨(pp.142~143).	
1965	아마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5).	
1965	대마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4).	
1962	닥	1962년 충청남도 닥 생산량이 있는데도 톤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음. 0.1톤이라 생략해 버린 것 같음(1963 농림통계연보, p.185).	
1951	완초	1952 농림통계연보에서 1951년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음. 1945~50년 자료와 이의 평균치, 1936~1944년 남북한 자료만 발표됨.	
1952	완초	1953 농림통계연보에는 생산량과 작부면적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1952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완초(왕골) 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수치를 제시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4).	

연도	품목명	내용	비고
1965	완초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5).	
1951	땅콩	두류에 포함됨.	
1954	땅콩	땅콩 정곡환산율은 60%임(1955 농림통계연보, p.144).	
1955	땅콩	전라북도 생산량이 조곡만 발표되고 있지만 그 양은 1석 밖에 되지 않으며 이를 정곡환산하면 0.3석이 되는데, 책자에서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땅콩의 정곡환산율은 30%라고 1956농림통계연보 p.156에서 밝히고 있음).	
1982	땅콩	두류에 포함되어 발표됐던 땅콩이 1982년부터는 특용작물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음(1983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85	땅콩	1985년 생산량이 발표되면서 1980년부터 소급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이전 자료에 대한 수치가 완전히 바뀐 채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음(1986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89).	
1951	청마	1952농림통계연보에 1936~44년 자료만 발표됨(pp.140~141).	
1958	청마	1955, 56년 기타 특용작물로 발표된 자료가 1955, 56년 청마자료로, 1957년 청마 생산량, 재배면적은 기타 특용작물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음(1958 농림통계연보 p.157, 1959 농림통계연보 p.85).	
1964	수세미	수세미 생산량은 1개를 20g으로 환산함(1965년도 농림통계연보, p.184).	
1965	수세미	1963~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4).	
1951	박하	1952 농림통계연보에 1936~44년 남북한 자료만 발표됨(pp.148~149).	
1962	박하	1962년도 박하는 원유라고 밝히고 있음(1963 농림통계연보, p.186).	
1963	박하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59~61년 생산량 단위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 이전 '관'으로 발표되었던 자료를 '톤'이나 'kg'으로 계산하여도 맞지가 않음(1964년 농림통계연보, p.202).	
1964	박하	1963년 생산량이 톤으로 바뀌면서 이전 자료에 대한 단위수정이 kg인지 톤인지 불분명함. 1965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생산량이 전부 톤으로 발표되는데, 1964년판 농림통계연보의 1959~61년 생산량은 'kg'인 것으로 보임. 여기서는 1961년 과중면적을 9,719.5정보로 발표되고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함(1965년 농림통계연보, p.186).	
1965	박하	박하는 원유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4, p.256).	
1965	저마	1961~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5).	
1951	제충국	1952 농림통계연보에 1936~1950년 자료만 발표됨(pp.138~139).	
1952	제충국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 농림통계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제충국 전국수치를 제시하고 있음(1953 농림통계연보, p.85).	



연도	품목명	내용	비고
1966	피마자	1966년 제주도 피마자 생산량이 나와 있지 않음. 이는 재배면적과 단수를 통해 계산하면 0.0이 나옴. 너무 적은 량이기 때문임(1967년 농림통계연보, p.228).	
1966	흡	1961년 생산량이 15톤으로 발표되었는데, 1967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5톤으로 발표되고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228).	
1963	유채	생산량에 톤과 석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지만, 영문 단위는 톤과 관으로 나옴. '톤'과 '관'이 동시에 쓰이는 것 같지만, 유채 생산량을 계산해보면 맞지 않음(1963년 농림통계연보, p.189).	
1965	유채	1962~64년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으며, 발표되지 않았던 1961년 자료가 제시됨(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5).	
1985	유채	1985년 생산량이 발표되면서 1980년부터 소급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이전 자료에 대한 수치가 완전히 바뀐 채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음(1986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89).	
1957	참깨	1958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7년 농림통계에서 286흡으로 발표되던 반수가 266흡으로 발표되고 있음(1958 농림통계연보, p.153).	
1967	참깨	1967년도 생산량이 6,118.8톤으로 발표되고 있는데도, 1969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9,118.8톤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그 다음해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197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6,118.8톤으로 다시 수정됨(1969년 농림통계연보 p.225, 1974년 농림통계연보 p.89).	
1968	참깨	1967년 생산량이 6,118.8톤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1969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67년 생산량이 9,118.8톤으로 발표됨. 정오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1969년 농림통계연보, p.225).	
1985	참깨	1985년 생산량이 발표되면서 1980년부터 소급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이전 자료에 대한 수치가 완전히 바뀐 채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음(1986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89).	
1965	기타 특용작물	1961~63년 기타 특용작물로 제시되던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음. 기타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던 작물들이 후에 개별 작물로 발표됨으로써 각기 나뉘어 발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6).	
1968	기타 특용작물	1966년 자료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66년의 기타 특용작물이 발표되고 있음. 따라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임(1969년 농림통계연보, p.226)	
1970	기타 특용작물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 1971년도 농협연감을 참고함(1971년 농림통계연보 p.224, 1971년 농협연감, p.49).	

<기타>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담배	1952 농림통계연보에 1937~44년 남북한 자료를 발표함(pp.146~147).	
1961	담배	1962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처음 담배관련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며, 1957~1960년 전국 경작면적과 수확량이 제시되고 있음(1962 농림통계연보, p.92).	
1971	담배	1962~1970년 생산량이 발표되고 있지만, 1962, 1964~1967, 1970년 생산량이 기존 발표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담배 품종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필요(1972년 농림통계연보, p.220).	
1974	담배	1971년 이전자료의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기타 품목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1974년에는 황색종, 버레엽(음건), 향초(양건)만이 발표됨(1975년 농림통계연보, p.126).	
1978	담배	'톤'으로 발표됐던 생산량이 1978년에는 'kg'으로 발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1979년 농림통계연보, p.99).	
1979	담배	1977년 이전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된 것과 달리 1978년 생산량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으로써 생산량 단위가 'kg'인 것 같아 확인이 필요했으나, 1980년 농림통계연보에서 '톤'으로 발표되는 1978년 생산량을 확인하고, 1978년 생산량이 'kg'으로 발표된 것임을 확인함(1979년 농림통계연보 p.99, 1980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산견량	생산량이 산견액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단위가 금액이 아닌 '관'으로 그대로 사용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7).	
1955	산견량	상전면적은 5월말에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956 농림통계연보, p.202).	
1955	산견량	산견량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955년 이전 산견액으로 발표되었던 자료가 이어지고 있음. 산견량은 생견중량이라고 밝히고 있음(1956 농림통계연보, p.206, p.207).	
1967	산견량	1967년도 상전면적은 상전실태조사에 의해 재조정된 것이라 밝히고 있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50).	
1984	산견량	뽕밭면적이 표본조사로 인해 행정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견량의 경우는 예전자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면적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생산량 역시 다르게 발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생산량의 경우는 그대로 행정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인지 확인 필요(198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21).	
1952	우유	1953년 농림통계연보에는 우유와 산양유의 착유상황표를 발표하고 있음. 1952년 우유생산량은 우유착유량임(1953년 농림통계연보, p.108).	
1955	꿀벌	단위는 통수임.	

## 다. 작부면적

### <공통>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73	공통	1973년부터 재배면적 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변경(1정보=0.99174ha)되어 1964년부터 발표되고 있음.	
1985	과중면적	과중면적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라고 밝히고 있음(1986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62).	

### <맥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66	맥류	1958~1960년 작부면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맥류합계에서 연맥 재배면적을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임(연맥은 잡곡으로 분류되다가 맥류로 전환됨). 그리고 맥류 생산량은 1955~1965년까지 행정자료와 표본자료가 동시에 발표됨(1967년 농림통계연보, p.152).	
1998	호밀	1998년 호밀 재배면적이 2ha로 발표되었지만, 1999년에는 10ha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10ha로 조곡 단수생산량을 계산해 보면 발표하고 있는 수치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인쇄상 오류인 것으로 보임(2000년 농림통계연보, p.99).	
1939	귀리	1939년 귀리 작부면적이 1938년, 1940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음. 또한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1939년 이외의 남한 면적비율이 25~40%정도인데 반해 1939년도는 70%를 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	

### <두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63	두류	두류 생산량이 '석'에서 '톤'으로 단위변경된 1959~61년 자료가 196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음(1964년 농림통계연보, p.174).	
1960	채두	1959년 작부면적은 974.8정보인데 1960년도에는 944.8정보로 잘못 표기하고 있음(1961년 농림통계연보, p.105).	
1961	채두	1961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9년 작부면적이 잘못 기재된 채 발표되었지만, 1962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수정되어 제시되고 있음(1962년 농림통계연보, p.85).	

<서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70	감자	1965, 1966년 작부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1971년 농림통계연보, p.183).	

<잡곡>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66	잡곡	잡곡 재배면적이 1955년부터 게재되고 있지만, 1955년~57년 잡곡에 포함되었던 연맥 재배면적이 제외된 채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1958년부터도 맥류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 즉, 연맥이 맥류에 포함되어 발표되던 연도에서도 이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68).	
1974	수수	1972년 작부면적이 '정보'에서 'ha'로 변경되면서 7,235.7ha로 발표되었는데,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7,236.7ha로 발표되고 있음(1975년 농림통계연보, p.76).	
1972	기타 잡곡	198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72년 작부면적이 978.5ha로 발표되고 있어 식자 오류인 것으로 보임(1980년 농림통계연보, p.85).	
1979	기타 잡곡	1980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72~79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1972년 작부면적이 원래 1,978.5ha로 발표되고 있으나 978.5ha로 게재되고 있어 식자오류인 것 같음(1980년 농림통계연보, p.85).	

<과실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고
1973	과실류	1973년 재배면적 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변경되고 있는데, 과실류의 경우 단위를 ha로 발표하면서 1972년 이전 '정보'로 발표된 자료에 그대로 'ha'단위를 적용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2).	
1974	과실류	1973년 재배면적 단위가 변경되면서, 1972년 이전 면적자료에 대한 발표가 197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단위변경에 따른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채 ha로 표기만 되고 있으며,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조차도 '정보'단위의 면적이 'ha'로 바뀐 채 그대로 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 필요(1975년 농림통계연보, p.78).	
1981	과실류	1982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61년부터 자료가 소급되어 발표하고 있지만,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1961~1972년 작부면적이 '정보'로 발표되던 자료를 그대로 'ha'단위로 발표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p.96~98).	
1990	감귤	1990년 재배면적으로 19,287ha가 발표됐지만 1992년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는 1990년 감귤 재배면적을 20,221ha로 1991년 작부면적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음. 이는 식자오류로 보이지만 정오표로 수정되고 있지 않음(1992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6).	
1973	기타 과실류	'정보'로 발표되던 자료가 그대로 'ha'단위로 발표되고 있는데, 1969년 재배면적이 2,575.3정보로 지역별 합계보다 1정보 적게 발표되었지만, 1974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단위가 잘못 게재되고 있긴 하지만 1969년 면적이 2,576.3정보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3).	

<채소류>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73	채소류	1967~1971년까지 채소류 재배면적 합계에서 양송이 재배면적이 제외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면적 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변경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단위변경에 따른 수정 없이 그대로 'ha'로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4)	
1999	채소류	1999년부터 시설재배에 따른 생산량이 1994년부터 소급하여 발표됨으로써 이전 자료는 노지채소류 재배면적으로 발표되고 있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2).	
1998	노지봄무	1998년 노지봄무 재배면적이 16,633ha로 발표되었지만, 1999년에는 16,641ha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작물별 과종면적을 보면 16,633ha로 발표되고 있어, 1998년 재배면적에 대한 확인 필요(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2).	
1998	노지가을무	1998년 노지가을무 재배면적이 15,131ha로 발표되었지만, 1999년에는 15,123ha로 게재되고 있음. 그러나 작물별 과종면적에서는 그대로 15,131ha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필요(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2).	
1998	조미채소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996년까지 조미채소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대해 소급하여 발표하면서, 1998년 재배면적이 147,313ha인데도 4,808ha로 잘못 발표하고 있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4).	
1984	양파	1984년 양파 재배면적 중 강원도 양파총면적 107ha 중 47ha는 5월 이후 파종한 것으로 생산량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198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87).	
1986	양파	강원지역 파종면적 중 5월 이후에 파종한 10ha에 대해서는 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지 않은 채 63ha, 전국 합계는 11,819ha로 발표되었지만, 1990년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는 1986년 양파 생산량의 변화없이 생산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0ha를 포함한 11,829ha로 발표하고 있음(1990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1).	
1987	양파	강원도 양파 총면적 73ha 중 10ha는 5월 이후에 파종한 것으로 생산량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미채소 합계에는 이 10ha가 포함됨으로써 지역별 품목합계와 발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됨(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99).	
1952	마늘	1953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1951년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수치가 제시됨(1953년 농림통계연보, p.87).	
1970	생강	1967년 재배면적이 603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1971년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630정보로 되어 있음(1971년 농림통계연보, p.219).	
1969	아스파라거스	경기도 재배면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생산량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70년 농림통계연보, p.223).	
1973	양송이	1973년도 재배면적 단위는 '평'이며, 단위당 수량은 평당 생산량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채소류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채소류 합계에서는 제외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6).	
1974	양송이	1973년 양송이 재배면적이 '평'으로 발표되었으나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ha'로 수정된 자료가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7, 1975년 농림통계연보 p.83).	

<특용작물>

연도	품목명	내 용	비고
1973	특용작물	과실류,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면적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정보'로 발표됐던 자료가 그대로 'ha'로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8).	
1974	특용작물	과실류,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1973년 면적단위가 '정보'에서 'ha'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1972년 이전 '정보'로 발표됐던 자료들이 그대로 'ha'로 발표되고 있음(1975년 농림통계연보, p.84).	
1978	특용작물	과중면적의 경우 특용작물에 약용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면화 재배면적의 소수점 이하를 확인할 수 없어 특용작물 합계에서 품목별 합계를 뺀 수치를 입력함(1979년 농림통계연보, pp.78~79).	
1981	특용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동일하게 1961~1972년까지 작부면적은 '정보'로 발표됐던 자료가 그대로 'ha'로 발표되어 이어지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p.98~99).	
1975	면화	1979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작부면적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975~77년 자료를 소급하여 발표하면서 1975년 작부면적을 6,142.2ha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후 198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6,968.3ha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6,142.2ha로 발표된 자료를 사용해야 단수가 맞게 됨(1979년 농림통계연보 p.89, 1980년 농림통계연보 p.91).	
1998	땅콩	1998년 땅콩 재배면적이 7,483ha로 발표됐지만,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98년 작부면적으로 7,438ha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면적 합계 역시 7,483ha이며 이를 이용한 10a당 생산량 역시 문제를 보이지 않으므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보임(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9, 2001년 농림통계연보, p.119).	
1957	박하	추식면적이 포함됨으로써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임(1958년 농림통계연보, p.154).	
1969	수세미	경기도 재배면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생산량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단수와 재배면적을 가지고 생산량을 계산했을 때 0.035톤이 나오는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삭하면 0.0이 되기 때문일 것임(1970년 농림통계연보, p.224).	

<기타>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양잠	상전면적으로 본면적과 추정면적을 합한 것임(p.215).	
1984	뽕밭	1984년 뽕밭면적(Area of Mulberry Field)은 표본조사결과이며 시도에서 조사한 행정조사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1983년 이전 상전면적은 700주를 10a로 환산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별 과종면적은 1975년부터 표본조사결과로 발표되고 있음(198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75, p.121).	
1986	뽕밭	1986년 뽕밭면적이 19,542ha로 발표됐지만, 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는 10,765ha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후 자료에서도 이 수치가 이용되고 있음. 이는 "1985년 표본 재설계, 1986년 시험조사, 1987년 새로 설계한 표본에 의한 식부면적조사"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2000	뽕밭	2000년도 상전면적은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작물별 과종면적에서는 나타나고 있음(2001년 농림통계연보, p.120, p.92).	
1971	담배	1962~70년 자료가 발표된 자료와는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1972년 농림통계연보, p.220).	



라. 축산

<가축>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5	가축	사육두수는 12월말 현재 조사된 것이라 밝히고 있음(1956농림통계연보, p.214).	
1970	가축	1970년 마필, 면양, 사슴, 개, 산양, 토끼,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통수가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1969년 수치를 그대로 발표하고 있음. 1970년 다른 사육두수는 농업센서스 잠정수치라도 밝히고 있으며, 1970년 자료에 대한 것은 70년 12월 1일을 기하여 실시한 농업조사(농업센서스) 결과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집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72년 5월에 발표할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일부 주요항목만을 수집계하여 수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1971년 농림통계연보, 발간사, p.3, p.226).	
1973	가축	1970년 농업센서스 자료가 이용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124).	
1980	가축	1980년 자료는 농업센서스 결과이며, 사양호수는 집계중이라고 밝히고 있음(1981년 농림통계연보, p.104).	
1988	가축	경종부문은 1988년까지 대전지역이 구별되지 않았으나, 축산부문에서는 대전이 충청남도과 별도로 발표되고 있음(1989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6).	
1951	한육우	축우로 발표됨(p.221).	
1961	한육우	1960년까지 축우로 발표되던 사육두수가 1961년에 들어서면서 한우로 이어지고, 육우가 새롭게 발표되고 있으며, 1958년 전국수치부터 게재되고 있음(1962농림통계연보, p.140).	
1982	육우	1982년부터 고기소 사육두수는 한우에 포함되어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1983년 농림통계연보, p.118).	
1983	한우	1983년부터 고기소는 한우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음(1984년 농림통계연보, p.94).	
1991	한육우	1990년 사육두수로 1,595,535마리가 발표되었지만, 1992년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는 1,621,654두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 연도에 농어업총조사 실시로 이 수치가 쓰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농가구와 어업쪽에만 이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필요(1992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12).	
1965	젖소	1963년 사육두수가 3,539마리인데도, 3,538두로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60).	
1968	돼지	사육마리별 규모별 호수가 1968년도부터 두수계층이 변경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1969년 농림통계연보, p.231).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84	돼지	1984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육두수가 301,148, 335,028마리로 발표되고 있지만, 돼지 연령별 성별 마리수를 살펴보면 이 두 지역 사육두수가 바뀌어 발표되고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시군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301,148, 경상남도가 335,028마리로 발표되어 있어 연령별 성별 마리수의 지역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임(1985년 농림통계연보, p.94, 99, 119).	
1968	말	1968년 말 사육두수는 개량종과 재래종을 합한 수치와 같지만, 1967년 이전 자료를 보면 개량종과 재래종을 합한 수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 사육두수에서 나귀와 노새를 제외한 수치와 동일하게 발표되고 있음. 이는 1967년 이전 말 사육두수는 개량종, 재래종, 잡종이 포함됐으나, 1968년 이후에는 잡종이 제외된 채 발표되고 있기 때문임.(1969년 농림통계연보, p.230).	
1969	말	1969년 말 사육두수는 나귀와 노새를 합해 발표되고 있으며, 1968년 이전 자료들 역시 노새와 당나귀를 합해 발표되고 있음. 1969년 말 사육두수는 p.232에 나온 당나귀와 노새를 제한 개량종과 재래종의 합을 입력함(1970년 농림통계연보, p.228, 232).	
1971	말	1971년 말 사육두수는 나귀와 노새를 합해 발표되고 있으며, 1968년 이전 자료들 역시 노새와 당나귀를 합해 발표되고 있음. 1971년 말 사육두수는 p.242에 나온 당나귀와 노새를 제한 개량종과 재래종 합을 입력함(1972년 농림통계연보, p.238, 242).	
1972	말	말 사육두수는 노새와 나귀를 합쳐 발표되고, 종류별 사육두수에서는 노새와 나귀가 구분되고 있음. 여기서는 말 사육두수를 재래종과 개량종을 합한 것으로 입력함(1973년 농림통계연보, p.236).	
1974	말	마필에서 노새와 나귀를 제외한 수치임(1975년 농림통계연보, p.130, 134).	
1983	말	마필에서 노새와 당나귀를 제외한 것이지만, 1982년까지는 개량종과 재래종으로 발표되었던 자료가 1983년부터는 개량종과 제주마로 구분되고 있으며, 1982년 이전 재래종으로 발표되었던 자료가 1983년 제주마로 자료가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1984년 농림통계연보, p.100).	
1990	말	1989년까지 제주마로 발표되던 자료가 다시 재래용으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음(1991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18).	
1991	말	개량종과 재래종을 합한 수치이지만, 1990년까지 마필로 발표되던 자료가 1991년부터는 말로 발표되면서 노새와 당나귀가 포함되고 있음(1992년 농림통계연보, p.118).	
1998	말	1998년 대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말 사육두수로 27, 91, 54마리가 발표되고 있지만, 종류별 마리수를 합해보면 17, 86, 52마리로 나타나므로 확인 필요(1999년 농림통계연보, p.118).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1	노새	1952농림통계연보에 1946~1949년 자료가 발표되고 있음(p.225).	
1951	당나귀	1952농림통계연보에 1946~1949년 자료가 발표되고 있음(p.225).	
1968	당나귀	1964년 당나귀와 노새 사육두수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음(1969년 농림통계연보, p.230).	
1961	산양	우유용 염소(유용종)가 1961년부터 산양에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1957~1960년 산양 자료에서 유용종과 재래종이 구분되고 있음. 따라서 우유용 염소 전국 수치만 입력해 놓고, 산양 전체 사육두수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음(1962농림통계연보, pp.140~141).	
1965	산양	1963~64년 재래용과 유용의 사육두수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61).	
1968	산양	연령별, 품종별 마리수로 발표되고 있지만, 이전 연도의 우유용 염소와의 구별없이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음. 또한, 1964~67년 품종별 마리수에서 우유용 염소와 일반 염소의 구별이 쉽지 않음(1969년 농림통계연보, p.233).	
1973	산양	센서스 자료로 1970년 사육두수로 131,646두가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125).	
1981	우유용 염소	1982년 농림통계연보에 우유용 염소와 재래용 염소가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115).	
1973	면양	센서스 자료로 7,282두가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124).	
1951	칠면조	1952농림통계연보에 1945~1949년 자료만 발표됨(p.226).	
1973	토끼	센서스 자료로서 1970년 사육두수로 468,607두가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125).	
1961	개	1961년부터 개의 사육두수가 발표되고 있으며, 1957~1960년 전국 수치가 제시되고 있음(1962농림통계연보, p.141).	
1962	거위	1961년 사육두수가 21,693마리인데 1962년에는 21,639로 나타남. 이는 식자오류로 보임(1963농림통계연보, p.253).	
1951	오리	1952농림통계연보에 1945~1949년 자료만 발표됨(p.227).	
1952	오리	1953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52농림통계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오리 사육두수의 전국수치가 나타남(1953농림통계연보, p.107).	
1985	꿩	1985년부터 꿩 사육두수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86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95).	
1954	꿀벌 통수	재래종과 개량종을 합한 것으로, 단위는 통수임.	
1959	꿀벌 통수	양봉 사양상자수는 발표되고 있지만, 채밀량은 발표되고 있지 않음(1960농림통계연보, p.155).	
1973	꿀벌 통수	센서스 자료로서 1970년 꿀벌통수로 129,179통이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125).	

<축산물>

연도	품목명	내 용	비 고
1954	벌꿀	채밀량이며, 1952년 생산량이 발표되고 있음(1955농림통계연보, p.221).	
1955	벌꿀	채밀량(採密量)으로 단위는 '관'임.	
1963	양잠	산견량이 'kg'으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1959~61년까지 '관'으로 발표된 전국자료가 변경되어 게재되고 있음(1964년농림통계연보, p.210).	
1965	양잠	상전면적과 산견량이 1961~1964년에 전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66년 농림통계연보, p.292, 293).	
1954	우유	착유량이며, 180kg을 1석으로 하였으며, 1석은 180.391리터라고 밝히고 있음(1955농림통계연보, p.222 하단).	
1987	우유	1978년부터 소급하여 우유생산량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 생산량은 납유량 기준이라 밝히고 있음. 또한 1987년 생산량은 예상량이 발표됨(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p.130~131).	
1988	우유	예상량으로 발표되었던 1987년 우유생산량이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1988년 생산량 역시 예상치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생산량은 납유량(원유검사합격량) 기준이라 밝히고 있음(1989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0).	
1989	우유	1988년 우유생산량은 발표 당시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1989년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 없이 발표되고 있으며, 1989년 생산량 역시 예상치가 발표되고 있음(1990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 2. 원자료 오류 수정 등

### 2.1. 해방 이전

#### 가. 통계연보의 오류 수정

도 수준의 생산량 통계를 모두 입력한 다음, 통계연보의 항목들을 가로 및 세로로 합계하여 잘못을 찾아내고 수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부표 1>과 같다.

#### 나. 기타사항

그러나 통계연보의 수치가 의심스럽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부표 2>에 그 내용을 밝혀두었다. 이들은 향후 자료보완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통계표』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수치가 다른 경우도 확인되는 바, 이는 <부표 3>에 제시하였다.

### 2.2. 해방 이후

해방 이후 원자료의 오류를 수정한 내용은 <부표 4>에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부표 1. 통계연보의 값을 수정한 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틀린 장소	연도	원래 값	수정한 값
미곡	찹쌀	작부면적	충북	1910	2,625.7	3,625.7
미곡	육미	생산량	경북	1910	6,826	6,816
미곡	쌀	작부면적	함북	1919	6,549.1	6,459.1
미곡	쌀	작부면적	강원	1920	74,858	74,858.6
미곡	찹쌀	생산량	충북	1920	25,055	75,055
맥류	보리	작부면적	전남	1915	68,679.1	68,678.1
맥류	밀	생산량	합계	1920	1,208,850	208,850
맥류	맥류	생산량	전남	1926	1,601,355	1,610,355
맥류	맥류	생산량	합계	1926	9,591,322	9,591,362
맥류	밀	생산량	합계	1926	2,123,626	2,123,666
맥류	밀(논)	생산량	합계	1926	224,414	224,454
맥류	밀(밭)	작부면적	평북	1930	60.5	260.5
두류	두류	생산량	경기	1915	401,779	402,779
두류	두류	생산량	합계	1915	3,623,604	3,624,604
두류	두류	작부면적	함남	1921	85,204.1	85,264.1
두류	두류	작부면적	합계	1921	1,108,460.2	1,108,520.2
두류	기타	작부면적	합계	1921	22,325.3	22,385.3
두류	두류	작부면적	함북	1923	67,019	67,018.1
두류	기타	작부면적	합계	1923	22,955	22,954.1
두류	두류	작부면적	함북	1934	75,750.4	75,749.8
잡곡	귀리	작부면적	경남	1918	1	0.1
잡곡	호밀(논)	생산량	합계	1920	393,837	93,837
잡곡	귀리	작부면적	전북	1920	8	0.8
두류	채두	작부면적	합계	1933	6,622.3	5,622.3
녹비	자운영	작부면적	합계	1935	105,038.6	105,039.0
축산물	도살한 소	도살두수	합계	1935	350,437	250,437
축산	황소	사육두수	전남	1945	97,084	87,084
축산	황소	사육두수	전북	1948	14,337	41,337
축산	산양	사육두수	제주도	1948	27	72
특용작물	아마	재배면적	함북	1935	1	0.1
특용작물	청마	재배면적	경남	1942	1	0.1
특용작물	모시	재배면적	경북	1942	6	0.6
특용작물	고리버들	재배면적	경북	1942	5	0.5
특용작물	고리버들	재배면적	경남	1942	6	0.6
특용작물	제충국	재배면적	경기	1942	1	0.1
특용작물	제충국	재배면적	경남	1942	9	0.9
특용작물	박하	재배면적	경남	1942	1	0.1
특용작물	박하	재배면적	황해	1942	3	0.3
특용작물	참깨	재배면적	제주도	1948	44	4.4
특용작물	닥	생산량	함남	1928	66.1	661
농업인구	농가	전업농	경남	1933	360,420	260,420

부표 2. 통계연보에 의심스러운 곳이 있지만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도	
잡곡	귀리	작부면적	1914	합계 불일치
잡곡	옥수수	작부면적	1919	합계 불일치
잡곡	귀리	작부면적	1931	합계 불일치
잡곡	귀리	생산량	1931	합계 불일치
잡곡	옥수수	작부면적	1939	합계 불일치
두류	기타	생산량	1915	합계 불일치
소채류	감자	생산량	1914	합계 불일치
소채류	참외	생산량	1915	합계 불일치
소채류	참외	작부면적	1919	합계 불일치
소채류	고구마	작부면적	1924	합계 불일치
소채류	무우	작부면적	1924	합계 불일치
소채류	참외	생산량	1924	합계 불일치
소채류	수박	생산량	1933	합계 불일치
소채류	고구마	생산량	1941	합계 불일치
과수	밤	나무수	1914	합계 불일치
과수	밤	생산량	1915	합계 불일치
과수	배	생산량	1919	합계 불일치
과수	사과	나무수	1924	합계 불일치
과수	감	생산량	1933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고추	생산량	1933	합계 불일치
축산물	도살한 소	생산량	1924	합계 불일치
축산물	우유	생산량	1930	합계 불일치
축산물	우유	생산량	1935	합계 불일치
축산물	꿀	생산량	1915	합계 불일치
축산	돼지	사육두수	1946	합계 불일치
축산	유우	사육두수	1918	합계 불일치
축산	닭	사육두수	1915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재래면	재배면적	1924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닥	재배면적	1942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닥	생산량	1945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왕골	생산량	1941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왕골	재배면적	1943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모시	생산량	1943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참깨	생산량	1931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들깨	생산량	1919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들깨	재배면적	1947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참깨	재배면적	1922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삼베	재배면적	1919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아주까리	재배면적	1948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연초	재배면적	1920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연초	재배면적	1931	합계 불일치
특용작물	연초	재배면적	1944	합계 불일치
경지	소작밭	등록경지	1919	합계 불일치
농업인구	농가	전업농	1922	합계 불일치
농업인구	농가	전업농	1936	합계 불일치

부표 3. 농업통계표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차이

연도	지역	작물	구분	통계연보	통계표	비고
1921	충남	나미	생산량	1,512,433	152,433	
1921	강원	수수	작부면적	2,822.5	8,822.5	
1921	함남	두류	작부면적	85,264.1	85,204.1	
1921	계	기타	작부면적	22,385.3	22,325.3	
1923	경기	호밀	작부면적	1,306.8	1,301.5	
1923	황해	호밀	작부면적	1,785	1,738	
1923	평남	맥류	작부면적	54,789.6	54,759.6	
1923	평북	소맥	작부면적	920.3	720.3	
1923	강원	소맥	작부면적	32,395.3	33,395.3	
1923	함북	연맥	생산량	86,592	36,592	
1923	함북	두류	작부면적	67,018	67,019	
1923	계	두류	생산량	1,125,858.9	1,125,859.8	
1928	평북	기장	작부면적	3,243.8	2,243.8	
1928	강원	대두	작부면적	72,878.6	77,878.6	
1929	충남	자운영	작부면적	3,288.9	3,284	
1929	계	자운영	작부면적	51,437.6	51,432.7	
1930	함북	기장	작부면적	2,150.0	2,249.4	
1930	함북	기장	생산량	13,071	14,010	
1930	함북	수수	작부면적	3,504.6	3,951.6	
1930	함북	수수	생산량	33,725	37,193	
1930	함북	옥수수	작부면적	4,010.0	3,503.4	
1930	함북	옥수수	생산량	35,460	31,136	
1930	함북	연맥	작부면적	15,129.6	15,002.3	
1930	함북	연맥	생산량	79,060	78,519	
1930	함북	메밀	작부면적	1,029.3	1,116.8	
1930	함북	메밀	생산량	5,024	5,482	
1930	계	기장	작부면적	16,474	16,573.4	
1930	계	기장	생산량	97,233	98,172	
1930	계	수수	작부면적	93,573	94,020	
1930	계	수수	생산량	678,672	682,140	
1930	계	옥수수	작부면적	107,956.1	107,449.5	
1930	계	옥수수	생산량	655,747	651,423	
1930	계	연맥	작부면적	110,231.8	110,104.5	
1930	계	연맥	생산량	795,076	794,535	
1930	계	메밀	작부면적	107,909.2	107,996.7	
1930	계	메밀	생산량	609,321	609,779	
1934	함북	소두	작부면적	3,223.1	3,223.7	
1934	계	소두	작부면적	233,573.3	233,573.9	
1939	계	옥수수	작부면적	148,685.2	148,686.2	
1940	함북	두류	작부면적	73,952.1	73,876.9	
1940	함북	채두	작부면적	2,198.2	2,175	
1940	함북	완두	작부면적	3,086.6	3,034.6	
1940	계	조	작부면적	682,193.4	682,192.4	
1940	계	두류	작부면적	909,361.2	909,286	
1940	계	두류	생산량	4,214,919	4,214,875	
1940	계	채두	작부면적	4,857.5	4,834.5	
1940	계	완두	작부면적	4,907.6	4,855.6	



부표 4. 해방 이후 원자료의 오류 수정 일람표

가. 생산량

<맥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표	수정	비 고
1957	맥류	제주	석	116,269.0	166,269.0	정오표에 의한 수정 (1958 농림통계연보, p.135).
1993	맥류	충남	톤	1,511.0	1,479.0	충청남도 맥류 합계가 1,511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품목별로 합계하면 1,491톤임(1994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5).
2001	맥류	충남	톤	1,743.0	1,748.0	
1937	겉보리	강원	석	161,415.0	161,416.0	1937년 남한 강원도 대맥생산량으로 161,415석이 발표되고 있지만, 남한계와 남한 지역별 합계를 비교하면 지역별 합계가 1정보 부족함. 따라서 북한측 강원도 면적, 생산량이 동일하게 발표되고 있으므로 161,415→161,416정보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
1938	겉보리	전국	석	9,874,448.0	3,874,448.0	1938년 남한 대맥 전국생산량이 9,874,448석으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전체 생산량에서 북한측 생산량을 제외하면 이와는 다름. 또한 남한측 지역별 생산량 역시 큰 차이를 보임.
1944	겉보리	경남	석	852,832.0	852,833.0	1944년 경상남도 대맥 생산량이 852,832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조곡 1,421,388석을 정곡환산(60%)하면 852,832.8석인 바, 다른 지역이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발표되는 것으로 보면 852,833석이 되어야 함. (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 23).
1945	겉보리	경남	석	486,590.0	486,950.0	1945년 경상남도 대맥생산량은 486,590석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와 전국 생산량이 일치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경상남도 조곡 811,583의 60%(조곡과 정곡의 차이)를 적용한 결과 486,950석임. (1952년 농림통계연보, p.18).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9	겉보리	충남	석	363,245.0	363,425.0	전국 합계와 지역별 합계가 다름. 맥류 전체 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 본 결과 충청남도가 180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옴 (1960농림통계연보, p.84).
1968	겉보리	서울	톤	237.0	237.8	맥류생산량과 품목별 합계를 하면 몇몇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69년 농림통계연보 pp.148~156).
1968	겉보리	부산	톤	1,453.5	1,453.6	맥류생산량과 품목별 합계를 하면 몇몇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69년 농림통계연보 pp.148~156).
1968	겉보리	경기	톤	64,299.6	64,299.0	맥류생산량과 품목별 합계를 하면 몇몇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69년 농림통계연보 pp.148~156).
1968	겉보리	강원	톤	19,908.8	19,908.5	맥류생산량과 품목별 합계를 하면 몇몇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69년 농림통계연보 pp.148~156).
1968	겉보리	경북	톤	303,899.0	303,899.1	맥류생산량과 품목별 합계를 하면 몇몇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69년 농림통계연보 pp.148~156).
1968	겉보리	제주	톤	12,885.1	12,885.1	맥류생산량과 품목별 합계를 하면 몇몇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69년 농림통계연보 pp.148~156).
1940	쌀보리	전남	석	47,410.0	67,410.0	1940년 전라남도 소맥 생산량은 47,410석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전라남도 생산량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 합계와 전국 생산량의 차이를 수정함. (1952년 농림통계연보, p.32).
1942	호밀	강원	석	8,635.0	18,635.0	1942년 남한 강원도 호맥생산량이 8,635석, 북한측 생산량은 18,635석으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여타 자료에서 남한과 북한지역의 강원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동일하게 나타남으로 남한측 호맥 생산량을 수정함. (1952년농림통계연보, p.94).

<잡곡>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9	메밀	전국	석	272,239.0	272,236.0	1949년 메밀의 전국 생산량이 272,239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조곡 388,908석을 정곡 환산(70%)하면 272,236석이 됨. (1952년 농림통계연보, p.71).
1953	밀	전라북도	석	65,326.0	65,236.0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다르게 나옴. 품목별 합계와 맥류합계를 비교해 본 결과, 전라북도가 초과 입력됨(1954년 농림통계연보, p.85).
1966	잡곡	전국	톤	107,107.2	107,107.1	1966년 잡곡 생산량으로 107,107.2톤이 발표되고 있으나, 충청남도과 경상북도의 생산량 조정에 따른 수정(1967년 농림통계연보, 168p)
1966	잡곡	충청남도	톤	3,561.8	3,561.7	1966년 잡곡합계와 품목별 합계보다 0.1톤을 초과하여 발표하고 있음. (1967년 농림통계연보, 172p)
1978	잡곡	전국	톤	112,883.0	122,882.8	1982년에는 112,883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83년에는 122,883톤으로 발표되고 있음.
1978	잡곡	전국	톤	122,883.0	112,883.0	1978년의 잡곡생산량이 1982년에는 112,883톤으로 발표되었지만, 1983년에는 122,883톤으로 발표되고 있음(1984년 농림통계연보, p.80).
1982	잡곡	경기도	톤	2,849.0	6,283.0	경기도 생산량이 2,849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정오표에서 6,283톤으로 정정하고 있음(1983년 농림통계연보, p.91).
1937	수수	경기	석	29,269.0	29,629.0	1937년 경기도의 수수 생산량은 29,269으로 발표되었으나 수수 조곡에서 정곡환산(65%)을 하면 29,629석이 됨. (1952년 농림통계연보, p.56, 58).
1941	수수	경상남도	석	785.0	758.0	1941년 경상남도 수수 생산량이 785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조곡 1,166석을 정곡 환산(65%)하면 758석으로 이를 수정하는게 바람직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57, 59).
1945	수수	강원	석	3,737.0	3,937.0	1945년 강원도 수수생산량이 3,737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조곡 6,060석을 정곡환산(65%)하면 3,939석이 됨. 지역별 합계와 전국생산량 차이도 200석으로 나타나 3,737→3,937석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54).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66	옥수수	전국	톤	33,737.8	33,737.7	1966년 옥수수 전국 생산량으로 33737.8톤이 발표되고 있으나, 경상북도 생산량이 0.1톤 초과하여 발표됨으로써 이를 조정함.(1967년 농림통계연보, 169p)
1966	옥수수	경상북도	톤	1,819.8	1,819.7	경상북도 잡곡 생산량 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 보면, 0.1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 시군별 옥수수 생산량 합계는 1,819.7이 발표되고 있지만, 전체 합계가 1,819.8로 발표되어 0.1이 초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169, 177).
1994	옥수수	제주도	톤	260.0	106.0	1994년 전국생산량과 지역별 합계가 154톤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별 단수계산을 해 본 결과 재배면적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면적을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수정한 후 계산한 결과 제주도가 106톤으로 154톤 초과하여 발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생산량의 수정 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역시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수정 필요 (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9, 86).
2000	옥수수	경상북도	톤	5,829.0	5,823.0	2000년 경상북도 옥수수 생산량이 5,829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통해 계산한 생산량은 5,823톤임. 이를 이용해야 지역별 생산량 합계와 전국수치 뿐만 아니라 품목별 합계와 잡곡합계가 일치하므로 이를 수정함 (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39	조	경상북도	석	439,230.0	439,430.0	1939년 경상북도 조 생산량이 439,230석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와 전국생산량이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조의 조곡생산량을 정곡으로 환산(55%)하여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 439,230석을 439,430석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1952년 농림통계연보, p.38, 40).
2000	기타 잡곡	대구	톤	63.0	13.0	2000년 대구지역의 생산량이 63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구해보면 13톤으로 나타나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1).

<두류>

연도	품목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3	두류	강원도	석	104,398.0	104,416.0	땅콩 생산량이 강원도와 제주도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53	두류	제주도	석	12,428.0	12,410.0	땅콩 생산량이 강원도와 제주도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
1977	두류	경상남 도	톤	33,456.8	33,429.8	1977년 두류의 품목별 합계가 경상남도의 경우 27톤 초과하여 발표되고 있음(1978년 농림통계연보, p.73).
1977	두류	제주도	톤	10,871.4	10,898.4	1977년 두류 품목별 합계가 경상남도는 27톤 초과, 제주도는 27톤 부족하게 발표되고 있음.(1978년 농림통계연보, p.73).
1955	녹두	제주도	석	188.0	138.0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수계산을 해 보면 제주도가 발표수치와 큰 차이를 나타냄. → 품목별 합계와 전국합계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50석 많이 발표되고 있음(1956농림통계연보, p.157).
2000	콩	울산	톤	698.0	398.0	2000년 울산 콩 생산량이 698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로 생산량을 계산해 보면 398톤이 나오고 있음. 울산 두류 총 생산량과 작물별 생산량 합계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에서 300톤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0)
1939	팥	경남	석	8,238.0	8,148.0	1939년 경상남도 소두 생산량이 8,238석으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단수를 계산해 본 결과 경상남도가 발표치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계산된 생산량과 발표된 생산량 역시 큰 차이를 보임.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별 합계치와 전국생산량의 차이만큼만 경상남도 생산량에서 제외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80).
1946	팥	제주도	석	991.0	995.0	1946년 제주도 소두 생산량이 991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작부면적과 단수로 생산량을 계산하면 998석이므로 이를 수정함. 그러나 다른 지역 역시 계산하면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76).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8	팥	경북	석	6,420.0	6,414.0	1948년 경상남도 소두 생산량이 6,420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발표된 자료로 단수를 계산해 보면 경남이 큰 차이를 보임(1952년 농림통계연보, p.76)
1957	팥	경북	석	9,376.0	6,376.0	정오표에 의한 수정(1958농림통계연보, p.145).
1968	기타	경남	톤	398.6	398.3	정오표에 의한 수정.(1969년 농림통계연보, 175p)

<서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2000	서류	강원도	톤	51,239.0	57,239.0	2000년 강원도 서류의 정곡생산량이 51,239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감자와 고구마 정곡 생산량을 합해보면 57,239톤이므로 이를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98).
1951	감자	서울	석	413.0	1,135.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경기도	석	34,447.0	45,924.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충청북도	석	34,618.0	16,682.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충청남도	석	22,363.0	80,521.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전라북도	석	25,285.0	32,014.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1	감자	전라남도	석	14,457.0	19,466.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경상북도	석	81,418.0	62,898.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경상남도	석	30,216.0	29,153.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강원	석	154,828.0	44,377.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제주	석	1,40	3,038.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전국	석	399,451.0	335,208.0	감자 정곡 작부면적이 1945~50년 평균 면적과 바뀐 채 나타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생산량 역시 1945~50년 평균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64	감자 생서	전국	톤	248,002.4	428,002.4	1964년 감자 생서 생산량으로 248,002.4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생산량과 감자 정곡으로 발표되는 생산량을 보면 428,002.4톤으로 수정해야 함.
1977	감자 생서	서울	톤	126,798.0	976.2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 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부산	톤	96,109.3	279.9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 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77	감자 생서	경기	톤	12,301.5	49,777.2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강원	톤	976.2	146,370.1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충청 북도	톤	279.9	45,460.5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충청 남도	톤	49,777.2	36,926.1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전라 북도	톤	146,370.1	31,921.9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전라 남도	톤	45,460.5	47,334.2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경상 북도	톤	36,926.1	126,798.0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77	감자 생서	경상 남도	톤	31,921.9	96,109.3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 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77	감자 생서	제주 도	톤	47,334.2	12,301.5	1977년 감자 생서생산량을 정곡환산율에 의해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감자 정곡생산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감자, 고구마 정곡생산량 합계와 서류 정곡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감자 생서생산량을 수정함.
1953	감자 정곡	전국	석	631,156.0	631,095.0	1953년 전국 감자정곡생산량이 631,156석으로 발표되었으나, 서울 감자 정곡생산량이 많게 발표되어 조정함으로써 전국생산량을 수정함.
1953	감자 정곡	서울	석	2,713.0	2,652.0	1953년 서울 감자 정곡생산량이 2,713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감자 생서의 환산율 석당 키로수 1석=611kg(54년 농림통계연보, p.180)와 (1955년 농림통계연보 p.149) 정곡환산 1석=163관을 적용하면 2,653관 또는 2,652관이 되어야 함. 따라서 이를 1955년 농림통계에 나온 자료와 같이 수정함.
1956	감자 정곡	전국	석	445,378.0	445,004.0	1956년 전국 감자정곡생산량이 445,378석으로 발표되었으나, 전라남도 감자 정곡생산량이 환산량보다 많게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1957년 농림통계연보, p.184).
1956	감자 정곡	전라 남도	석	25,275.0	24,901.0	1956년 전라남도 감자 정곡생산량이 25,275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서 163관을 정곡 1석으로 환산했을 때 249,001석이 됨(1957년 농림통계연보, p.184).
1957	감자 정곡	전국	석	571,237.0	571,330.0	1957년 감자 정곡생산량이 571,327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전라남도 감자 정곡생산량이 환산량보다 적게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으로써 전국생산량 또한 수정함(1958년 농림통계연보, p.148).
1957	감자 정곡	전라 남도	석	31,884.0	31,887.0	1957년 전라남도 감자정곡생산량이 31,884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감자 생서 163관을 정곡 1석으로 환산하면 31,887.4석임(1958년 농림통계연보, p.148).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1	고구마 정곡	서울	석	220.0	384.0	1951년 고구마 생산량이 1945~50년 평균치로 잘못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경기 도	석	56,151.0	24,995.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충청 북도	석	18,477.0	9,180.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충청 남도	석	48,838.0	68,594.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전라 북도	석	151,947.0	123,669.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전라 남도	석	216,414.0	161,518.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경상 북도	석	17,375.0	14,219.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경상 남도	석	110,606.0	86,575.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강원 도	석	10,618.0	146.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제주 도	석	102,750.0	123,687.0	상동
1951	고구마 정곡	전국	석	733,396.0	612,967.0	상동
1952	고구마 정곡	전라 남도	석	120,921.0	126,921.0	전국수치와 지역별 합계 사이에 6,000석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고구마생서를 정곡으로 환산해보면 전라남도가 126,921석으로 수정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수가 틀리게 되고, 품목별 합계와 전국수치를 비교해도 전라남도가 수정되어야 함(1953농림통계연보 p.83).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3	고구마 정곡	전국	석	982,441.0	982,603.0	1953년 전국 고구마 정곡생산량이 982,441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112관=1석으로 환산하면, 982,603석이 되어 이를 수정함. (1954년 농림통계연보, p.92~93).
1953	고구마 정곡	전라 북도	석	262,849.0	262,840.0	1953년 전라북도 고구마 정곡생산량이 262,849석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55년 농림통계연보에서 고구마 생서 112관을 정곡 1석으로 환산한 점을 감안하면, 262,849→262,840석으로 수정해야 함. 따라서 이를 수정함 (1954년 농림통계연보, pp.92~93).
1953	고구마 정곡	경상 남도	석	87,610.0	87,870.0	1953년 경상남도 고구마 정곡생산량이 87,610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112관=1석으로 환산했을 때 87,869.7석이 됨. 따라서 87,610석→87,870석으로 수정함(1954년 농림통계연보, p.92~93).
1953	고구마 정곡	제주 도	석	152,396.0	152,307.0	1953년 제주도 고구마정곡생산량이 152,396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112관=1석으로 환산하면 152,306.7석이 됨. 따라서, 152,396→152,307석으로 수정함(1954년 농림통계연보, p.92~93).
1965	고구마 정곡	전국	톤	928,967.9	928,967.5	1970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928,967.9톤으로 발표되어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되다가,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 다시 928,967.5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정곡환산율을 적용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옴(1970년 농림통계연보 p.185, 1975년 농림통계연보 p.75).
1976	고구마 정곡	전국	톤	836.7	552,836.7	1977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고구마 정곡 중량이 836.7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를 하면 552,836.7톤이므로 이것으로 수정하여 입력함(1977년 농림통계연보, p.87).

<과실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81	과실류	전국	톤	26,395.0	1,026,395.0	1981년 생산량 전국합계가 26,395톤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오표에서 1,026,395톤으로 정정하고 있으므로 인쇄오류임(1982년 농림통계연보, p.96).
1999	과일류	서울	톤	1,444.0	1,414.0	1999년 서울 과실류 생산량 합계가 1,444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작물별 생산량을 합해 보면 1,414톤이 됨. 이 수치를 이용해야 지역별 합계와 전국 수치가 일치하게 됨(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6).
1942	사과	전라북도	관	192,574.0	92,574.0	1942년 전라북도 사과 생산량이 192,574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해 보면 발표되는 자료와 다름. 따라서 192,574→92,574관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99).
1944	사과	충청북도	관	101,249.0	201,249.0	1944년 충청북도 사과생산량이 101,249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하면 발표되는 자료와 다르게 나타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99).
1940	감	경상남도	관	1,091,042.0	1,091,142.0	1940년 경상남도 감 생산량이 1,091,042관으로 발표되고 있음. 단수계산을 하면 지역별 차이는 없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하면 경남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4).
1947	감	경상남도	관	210,326.0	210,296.0	1947년 경상남도 감 생산량이 210,326관으로 발표되었지만,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 본 결과 경상남도 면적이 발표자료와 조금 다르게 나타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2).
1943	복숭아	충청북도	관	106,265.0	109,265.0	1943년 충청북도 복숭아 생산량이 106,265관으로 발표되었지만,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보면 발표된 자료보다 적게 나오고 있어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1).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8	복숭아	전라남도	관	843,734.0	848,824.0	1948년 전라남도 복숭아 생산량이 843,734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하면 다른 지역은 동일하거나 많게 나타나는데 전남지역만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9).
1998	기타 과일류	전국	톤	73,869.0	73,689.0	1998년 기타 과실류 생산량이 73,869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2000년에는 73,689톤으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채소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9	채소류	충청북도	관	12,554,111.0	12,556,111.0	1959년 충청북도 채소류 생산량의 품목별 합계를 하면 12556111관이 됨.
1959	채소류	전라북도	관	22,355,029.0	22,353,029.0	1959년 전라북도 채소류 생산량 품목별 합계를 하면 22353029관으로 이를 수정함.
1967	채소류	경기도	톤	315,225.6	315,107.0	1967년 채소류 총생산량 315225.6관이 품목별 생산량 합계 315226.1관보다 0.5관 적게 발표되고 있음. 따라서, 양송이 생산량을 제한 후 수정함.(1968년 농림통계연보, 206p)
1952	채소류 기타	경기도	관	2,009,878.0	3,009,878.0	채소류 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보면 경기도 생산량이 1,000,000관 부족함(1953 농림통계연보, p.91).
1942	가지	경기도	관	1,227,491.0	1,047,491.0	1942년 경기도 가지 생산량이 1,227,491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69).
1943	가지	충청남도	관	936,688.0	493,688.0	1943년 충청남도 가지 생산량이 936,688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가 다르게 계산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69).
2000	과채류	부산	톤	299,988.0	29,988.0	2000년 부산 과채류 생산량이 299,988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1999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그리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작물별 생산량을 합해보면 29,988톤이 나오므로 수정(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2).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1	수박	강원도	관	46,782.0	46,762.0	1941년 수박의 남한측 강원도 생산량이 46,782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북한측 강원도 생산량은 46,762관으로 발표됨. 따라서 지역별 합계와 전국생산량이 20관 차이 나므로 남한측 강원도 생산량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63).
2001	노지 수박	제주도	톤	5,889.0	8,889.0	2001년 제주도 노지수박 생산량으로 5889톤이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8889톤이 됨. 따라서, 5889->8889톤으로 수정함.(2002년 농림통계연보, 103p)
2000	시설 수박	전국	톤	398,051.0	698,051.0	2000년 시설수박 생산량이 398,051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수박 총생산량에서 노지생산량을 제외하면 698,051톤이며, 충청북도 생산량을 수정하여 지역별 합계를 해도 이 수치가 나오므로 이를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3).
2000	시설 수박	충청북도	톤	2,945.0	29,495.0	2000년 충청북도 시설수박 생산량이 2,945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수박의 총생산량 60,562톤에서 노지생산량 31,067톤을 빼면 29,495톤이 나오며, 단수를 이용한 생산량에서도 이 수치가 계산되므로 이에 따른 수정 필요(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3).
2001	시설 수박	충청북도	톤	31,899.0	31,839.0	2001년 충청북도 시설수박 생산량이 31899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수박 총생산량에서 노지수박생산량을 빼면 31839톤으로 수정함.(2002년 농림통계연보, 103p)
1975	딸기	경상남도	톤	3,374.0	3,174.0	
2000	딸기	전국	톤	180,241.0	180,501.0	2000년 딸기 생산량이 180,241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시설딸기 전국 생산량이 지역별 생산량 합계와 다르게 발표됨으로써 총생산량 역시 지역별 생산량 합계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3).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2000	시설 딸기	전국	톤	172,363.0	172,623.0	2000년 시설딸기 생산량이 172,363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지역별 생산량을 합하면 172,623톤이 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4).
2001	노지 딸기	전국	톤	4,933.0	4,935.0	2001년 노지딸기 전국 생산량으로 4933톤이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생산량을 계산하면 4935톤임. 따라서, 4933->4935톤으로 수정함.(2002년 농림통계연보, 104p)
1941	오이	경기	관	6,211,123.0	6,212,123.0	1941년 경기도 오이 생산량이 6,211,123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6,211,123→6,212,123관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73).
1945	오이	전라 북도	관	796,225.0	196,225.0	1945년 전라북도 오이 생산량이 796,225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계산하면 발표단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70).
1946	오이	제주	관	140,000.0	110,000.0	1946년 제주도 오이 생산량이 140,000관으로 발표됐지만, 단수를 계산해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70).
2000	시설 오이	전국	톤	396,808.0	398,808.0	2000년 시설오이 생산량이 396808톤으로 발표됐지만, 지역별 생산량을 합하면 398808톤이 됨. 따라서, 396808->398808톤으로 수정함.
2000	시설 오이	충남	톤	50,617.0	60,617.0	2000년 충청남도 시설오이 생산량이 50,617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총생산량에서 노지생산량을 빼면 60,617톤이 되며, 단수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구해도 이 수치가 나오므로 수정 필요(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4).
1943	토마토	전국	관	1,019,880.0	1,019,874.0	1943년 토마토의 지역별 합계와 전국생산량에 6관의 차이가 나타남. 지역별 단수를 계산해보면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측 생산량 역시 수정해야 되므로 여기서는 전국생산량을 수정함. 1,019,880→1,019,874(1952년 농림통계연보, p.190).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82	토마토	대구	톤	6,072.0	6,076.0	1982년 대구 토마토 생산량이 6,072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정오표에서 6,076톤으로 정정하고 있음(1983년 농림통계연보, p.97).
1999	시설 토마토	광주	톤	8,945.0	8,954.0	1999년 광주 시설토마토 생산량이 8,945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토마토 전체 생산량을 보면 8,954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10a당 수량을 계산해 보면 발표치와 같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75	참외	경남	톤	24,658.0	24,538.0	1975년 경상남도 참외 생산량이 24658톤으로 발표되었지만, 이를 과채류 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하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 24658->24538톤으로 수정함.
2000	참외	전남	톤	6,651.0	6,661.0	2000년 전라남도 참외 생산량이 6,651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지, 시설생산량을 합하면 6,661톤이므로 수정 필요(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2).
1962	호박	전국	톤	98,837.0	69,335.4	1966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생산량이 98,837톤에서 69,335.4톤으로 정정되어 발표됨(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1).
1999	엽채류	광주	톤	5,094.0	35,094.0	1999년 광주 엽채류 생산량이 5,094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생산량을 합해 보면 35,094톤이므로 이를 수정함(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6).
1940	미나리	경상북도	관	587,145.0	586,345.0	1940년 미나리 경상북도 생산량이 587,145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계산을 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85).
1949	미나리	경기도	관	181,164.0	118,164.0	1949년 경기 미나리 생산량이 181,164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발표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181,164→118,164관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83).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62	배추	전국	톤	428,416.7	428,146.7	1968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428,146.7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그 수치로 계속 발표되고 있음(1968년 농림통계연보, p.207).
1999	배추	대전	톤	10,255.0	10,225.0	1999년 대전 배추 생산량이 10,255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지, 시설배추를 합하면 10,225톤으로 이를 이용해야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일치하므 이에 대한 확인 필요(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6).
2000	노지 봄배추 일반	부산	톤	17,817.0	17,917.0	2000년 부산 노지 일반봄배추 생산량이 17,817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지봄배추 생산량이 17,917톤이므로(고랭지 배추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7, 108).
2000	노지배 추	전라 북도	톤	3,998.0	3,988.0	2000년 충청북도 노지배추 재배면적이 3,998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과종면적에는 3,988ha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야 전국수치와 지역별 합계가 일치하게 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6, 83).
2000	배추	전라 북도	톤	347,086.0	347,089.0	2000년 전라북도 배추생산량이 347,086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생산량을 합해 보면 347,089톤으로 나타나 수정 필요(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6).
1966	시금치	경상 북도	톤	861.0	1,861.0	정오표에 의한 수정
2001	상추	전남	톤	32,530.0	22,530.0	2001년 전라남도 상추 생산량으로 32530톤이 발표되고 있지만 노지, 시설상추 생산량을 합해보면 22530톤으로 따라서, 32530->22530톤으로 수정함.
2001	노지상 추	충남	톤	517.0	577.0	2001년 충청남도 노지상추 생산량으로 517톤이 발표되고 있지만, 상추생산량에서 시설상추 생산량을 제하면 577톤으로 이를 수정함
2001	시설상 추	전북	톤	9,820.0	9,840.0	2001년 전라북도 시설상추 생산량으로 9820톤이 발표되고 있지만, 상추에서 노지상추생산량을 제하면 9840톤으로 이를 수정함.
2001	시설 시금치	대구	톤	3,391.0	2,391.0	2001년 대구 시설시금치 생산량으로 3391톤이 발표되었지만, 시금치 생산량에서 노지시금치를 빼면 2391톤으로 따라서 3391->2391톤으로 수정함.(2002년 농림통계연보, 109p)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37	양배추	전국	관	811,420.0	817,420.0	1937년 양배추 남측생산량의 지역별 합계와 전국생산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총 생산량에서 북한측 생산량을 빼면 817,420관으로 811,420관으로 발표되는 자료를 수정하는게 바람직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60).
1954	양배추	경상남도	관	815,529.0	815,629.0	
1962	양배추	충청남도	kg	2,091,038.0	209,103.0	
1962	양배추	전국	kg	23,195,113.0	21,313,178.0	
2001	양배추	제주도	톤	144,568.0	144,508.0	
1995	근채류	전국	톤	1,447,765.0	1,448,517.0	
1995	근채류	충청남도	톤	144,387.0	145,139.0	1995년 충청남도 근채류 생산량이 144,387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근채류로 발표되고 있는 품목별(무, 당근) 생산량을 합해 보면 145,139톤이므로 이를 수정함(1996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2).
1994	노지봄무	대구	톤	2,253.0	2,523.0	지역별 생산량과 전국수치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생산량이 270톤 적게 발표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대구지역 생산량이 2,253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통해 생산량을 구해보면 2,523톤으로 실제 발표량과는 270톤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13).
2000	시설무	전국	톤	252,005.0	252,055.0	2000년 시설무 생산량이 누락된 광주 생산량을 입력하고도 지역별 생산량 합계와 전국수치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데, 무 생산량에서 노지무를 빼 보면 252,005→252,055톤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2001년 농림통계연보, p.113).
2000	시설무	광주	톤	9,955.0	15,569.0	광주생산량이 누락되어 이후 지역별 생산량이 한칸씩 위로 올라옴. 즉, 대전생산량이 광주생산량이 되고 있음.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2000	시설무	대전	톤	1,824.0	9,955.0	광주생산량이 누락되어 지역별 생산량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
2000	시설무	울산	톤	80,074.0	1,842.0	상동
2000	시설무	경기	톤	3,313.0	80,074.0	상동
2000	시설무	강원	톤	7,512.0	3,313.0	상동
2000	시설무	충북	톤	36,265.0	7,512.0	상동
2000	시설무	충남	톤	-	36,265.0	상동
1991	당근	전국	톤	121,398.0	121,389.0	1991년 전국생산량이 121,398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집계해보면 121,389톤임(1992년 농림수산물통계연보, p.103).
1994	조미채소	전국	톤	1,622,218.0	1,622,818.0	통계에는 1,622,218톤으로 나와 있음. 지역별 조미채소를 집계해도 오류가 보이지 않으므로 집계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음.
2000	조미채소	충남	톤	84,910.0	184,910.0	2000년 충청남도 조미채소 생산량이 84,910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작물별 생산량을 합해 보면 184,910톤이 되어 이에 대한 수정 필요(2001년 농림통계연보, p.114).
1952	양파	경남	관	291,539.0	291,935.0	1952년 경상남도 양파 생산량이 291,539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품목별 집계와 채소류 집계와 비교해 보면 396톤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291,539→291,935관으로 수정함.
1952	양파	제주	관	74,000.0		1952년 제주도 양파 생산량이 74,000관으로 발표되었으나, 단수를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409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1954	양파	경기	관	2,550.0	-	지역별 오발표 수정
1954	양파	충북	관	306,320.0	2,550.0	상동
1954	양파	충남	관	132,573.0	306,320.0	상동
1954	양파	전북	관	4,979,845.0	132,573.0	상동
1954	양파	전남	관	10,176.0	4,979,845.0	상동
1954	양파	경북	관	723,763.0	10,176.0	상동
1954	양파	경남	관	-	723,763.0	상동
1954	양파	강원	관	354,410.0	-	상동
1954	양파	제주	관	-	354,410.0	상동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1	고추	전북	정보	17,108.2	1,708.2	1941년 전라북도 고추 작부면적이 17,108.2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93).
1962	파	전국	kg	2,184,866.2	21,848,662	생산량이 2,184,866.2로 나와 있지만, 이는 인쇄오류로 보임(1963농림통계연보, p.195).

<특용작물>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66	특용작물	전국	톤	56,741.0	56,741.9	특용작물 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 본 결과, 전국 합계가 0.9톤 많은 것으로 나타남(1967년 농림통계연보, p.226). 1969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66년의 생산량이 56,741.9톤으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1969년 농림통계연보, p.224).
1945	닥나무	경남	관	9,257.0	96,257.0	1945년 경상남도 닥나무 생산량이 9,257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해 보면 발표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6).
1962	닥	충남	관	25.0	-	1962년 생산량이 관과 톤으로 동시에 발표되고 있으나 25관으로 발표된 충청남도 닥 생산량이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음. 0.1톤이어서 생략된 것인지 확인 필요(1963농림통계연보, p.185).
1944	채래면	강원	관	23,824.0	23,829.0	1944년 남한측 강원도 채래면 생산량이 23,824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북한측 생산량을 보면 23,830관으로 발표되고 있어 남한측 생산량을 23,824→23,829관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17).
1951	면화	충북	근	18,390,149.0	13,391,149.0	
1957	면화	전국	근	42,902,037.0	42,902,040.0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1	모시	경북	관	410.0	428.0	1941년 경상북도 모시생산량이 410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해보면 경북만 발표자료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3).
1943	모시	경상남도	관	2,603.0	2,513.0	1943년 경상남도 모시생산량이 2,603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 보면 경남지역의 면적이 초과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3).
1959	박하	전국	관	1,419,437.0	66,536.0	196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위 확인 필요. '관'으로 발표되던 자료를 계산해 보면 다르기 때문임(1964농림통계연보, p.202).
1960	박하	전국	관	1,350,767.0	63,317.0	196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위 확인 필요. '관'으로 발표되던 자료를 계산해 보면 다르기 때문임(1964농림통계연보, p.202).
1961	박하	전국	관	5,915,767.0	277,302.0	196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위 확인 필요. '관'으로 발표되던 자료를 계산해 보면 다르기 때문(1964농림통계연보, p.202).
1937	왕골	경상북도	관	13,069.0	21,369.0	1937년 경상북도 왕골생산량이 13,069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하면 발표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경북 13,069→213,069관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4).
1940	왕골	경기	관	175,894.0	157,804.0	1940년 경기도 왕골생산량이 175,894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하면 발표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생산량을 175,894→157,804관으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4).
1942	왕골	전라남도	관	25,128.0	25,218.0	1942년 전라남도 왕골생산량으로 25,128관이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계산하면 발표량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경북 역시 발표량보다는 작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남 생산량을 수정하면 25,128→25,218관이 되어 자료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5).
1961	흡	전국	톤	15.0	1.5	1967년 농림통계연보에서 생산량이 1.5톤으로 나와 있음(1967년 농림통계연보, p.228).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2	땅콩	경상남도	석	505.0	595.0	1942년 경상남도 땅콩 생산량이 505석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조곡 1,983석을 정곡환산(30%)하면 595석이므로 수정해야 함. 따라서 505→595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95, 97).
1953	땅콩	제주도	석	18.0	-	1951년, 1952, 1954년에는 제주도의 땅콩 생산량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데도 1953년의 생산량만은 발표되고 있음. 이는 강원도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품목별 합계와 두류합계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는 부족하고, 제주도는 초과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를 수정함(1954년 농림통계연보, p.91).
1953	땅콩	강원도	석	-	18.0	1953년 땅콩 생산량이 제주도의 것으로 잘못 발표되고 있어 이를 정정함(1954년 농림통계연보, p.91).
1955	땅콩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산량이 조곡만 발표되고 있으며, 그 양도 적어 1석 밖에 되지 않음. 이를 정곡환산하면 0.3석이 되는데, 책자에서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땅콩 정곡환산율이 30%로 1956년 농림통계연보 p.156에서 밝히고 있음).
1982	유채	전국	톤	20,317.0	20,417.0	1986년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 1980년부터 소급하여 새로운 생산량 계열을 발표하면서, 1982년 생산량이 20,417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87년도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는 20,317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후 자료에서도 이 자료가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1987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89).

<기 타>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65	담배	전국	kg	56,056,000.0	56,053,000.0	1965년 생산량이 56,053,373.5kg에서 1971년에는 56,056,000kg으로 발표되다가 다시 1973년에는 56,053,000kg으로 발표되고 있음.
1967	담배	전국	kg	66,000,063.0	72,073,606.5	1972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72,073,606.5kg으로 발표되었지만, 1974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다시 66,000,063kg으로 발표되고 있음. 이에 대한 확인 필요(1974년 농림통계연보, p.96).
1978	담배	전국	톤	134,348,736.0	134,348.7	톤으로 발표되던 담배 생산량이 1978년에는 kg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 그러나 1980년 농림통계연보에서 134,348.7톤으로 나와 있으므로 78년 수치는 kg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임(1979년 농림통계연보 p.99, 1980년 농림통계연보 p.101).
1949	산견량	충청북도	관	134,460.0	134,640.0	1949년 충청북도 양잠생산량이 134,460관을 발표되고 있지만, 산견량 춘잠, 하추잠 합계를 보면 134,640관으로 나타나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7).
1972	산견량	전국	톤	26,800.0	26,800.5	산견량의 전국수치가 26,800.5kg인데도 26,800kg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춘잠과 하추잠의 전국수치 역시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73년 농림통계연보, p.265).
1972	산견량	경상북도	톤	8,912.0	8,912.8	경상북도 생산량 합계가 8,912kg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 지역 춘잠과 하추잠을 합해 보면 8,912.8kg임. 그리고 생산량 단위가 kg에서 톤으로 변경되고 있음(1973년 농림통계연보, p.265).

<축산물>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96	우유	전국	톤	2,033,738.0	2,033,739.0	1996년 우유생산량이 2,033,738톤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합계를 해 보면 2,033,739톤으로 1톤 초과하고 있음. 이는 반올림수치로 보임(1997년 농림통계연보, p.137).
2000	우유	전국	톤	2,252,804.0	2,252,805.0	2000년 우유생산량이 2,252,804톤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지역별 생산량을 합하면 2,252,805톤으로 나타나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로 보임(2001년 농림통계연보, p.149).



## 나. 재배면적

### <미곡>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68	밭벼	경기	정보	2,429.6	2,492.6	경기도 면적이 2,429.6정보로 나와 있지만, 시군별 합계를 보면 2,492.6정보로서 이를 이용해 전국합계와 일치하게 됨(1969년 농림통계연보, p.130).

### <맥류>

### <맥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0	겉보리	전국	정보	690,640.4	690,640.1	1940년 남한 전국 대맥 작부면적이 690,640.4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남한 지역별 합계를 하면 690,640정보임. 그러나, 남북한 강원도가 0.1정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 면적 역시 0.3정보 차이를 보여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
1940	겉보리	강원도	정보	20,726.8	20,726.9	1940년 남한 강원도 면적으로 20,726.8정보가 발표되고 있지만, 북한측 강원도로 발표되고 있는 면적과 달라 이를 수정함(1920년 농림통계연보, p.20).
1949	호밀	제주도	정보	211.4	11.4	1949년 제주 호맥 작부면적으로 211.4정보가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발표된 생산량과 작부면적으로 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발표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호맥 생산량에서 전국과 지역별 합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배면적을 수정함. 생산량을 단수로 나눴을 때 11.4(반올림수치)가 나오므로 이 숫자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91).

<잡곡>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5	기장	전국	정보	439.6	439.8	1945년 기장 정곡 전국 작부면적이 439.6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와 0.2정보 차이를 보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48).
1941	메밀	경남	정보	967.3	867.3	1941년 경상남도 메밀 작부면적은 967.3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생산량과 단수로 계산해 본 결과 867정보가 됨. 따라서 지역별 합계와 전국작부면적의 차이인 100정보를 경남 작부면적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73).
1949	메밀	충북	정보	1,000.0	10,000.0	1949년 충청북도 메밀 작부면적이 1,000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메밀 조곡 충북작부면적을 보면 10,000정보로 나타나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1952년 농림통계연보, p.71).
1981	메밀	전남	ha	009.0	1,009.0	전라남도 작부면적이 009로 나와 있지만, 정오표에서 1,009로 바로 잡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84).
2000	메밀	경북	ha	866.0	833.0	2000년 경상북도 메밀 재배면적이 866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재배면적에서는 833ha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야 전국치와 지역별 합계가 일치하므로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101, 79).
1951	수수	경남	정보	538.5	638.5	정곡면적은 538.5정보, 조곡면적은 638.5정보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조곡면적을 이용해야 전국치와 지역별 합계가 일치하게 됨.
1972	수수	전국	정보	7,235.7	7,236.7	
1954	옥수수	경기도	정보	1,806.9	1,006.9	조곡면적에는 1,006.9정보로 발표되고, 정곡면적은 1,806.9정보로 나타나고 있음. 1006.9정보로 수정해야 전국 수치와 일치함(1955년 농림통계연보, p.138, 142).
1994	옥수수	전라남도	ha	1,154.0	1,611.0	단수와 생산량으로 작부면적을 재계산해 본 결과, 작부별 작부면적으로 수정함(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9, 86).
1994	옥수수	경상남도	ha	124.0	1,536.0	단수와 생산량으로 작부면적을 재계산해 본 결과, 작부별 작부면적으로 수정함(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9, 86).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94	옥수수	경상 북도	ha	318.0	1,593.0	단수와 생산량으로 작부면적을 재계산해 본 결과, 작부별 작부면적으로 수정함(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9, 86).
1994	옥수수	제주	ha	98.0	108.0	1994년 생산량의 차이를 보여 작부면적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가 초과하여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9, 86).
1942	조	전북	정보	6,149.8	16,149.8	1942년 전북 조 작부면적이 6,149.8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와 전국 작부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발표된 자료로 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전라북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 본 결과 16,164정보가 되어야 하지만, 지역별 합계와 전국치의 차이인 10,000정보만 전라북도에 추가하도록 함. 그러나 1941년, 1943년 전라북도 조 작부면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필요 (1952년 농림통계연보, p.41, 39).

<두류>

연도	품목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79	두류	전국	ha	262,462.0	262,426.0	1983년농림통계에서는 262,462ha로 발표되었지만, 1984년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는 262,426ha로 변경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후 이 수치가 유지되고 있음.
1942	팥	강원	정보	7,132.7	7,532.7	1942년 남한측 강원도 소두 작부면적이 7,132.7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북측 강원도 작부면적은 7,532.7정보로 발표되고 있음. 이 차이가 지역별 합계와 전국 작부면적 차이와 동일하므로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81).
1946	팥	경상북도	정보	1,104.5	1,124.5	1946년 경상남도 소두 작부면적이 1,104.5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단수를 통해 계산해 보면 1,124정보이므로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76).
1958	완두	전국	정보	789.3	789.4	1958년 재배면적이 789.3정보로 발표됐으나, 1958년 경기도 작부면적이 245.2→245.3정보로 수정됨에 따라 전국자료 역시 789.3→789.4정보로 수정함. 또한 이는 이후 발표된 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임(1967년 농림통계연보, p.181).
1958	완두	경기	정보	245.2	245.3	1958년 경기도 재배면적이 245.2정보로 발표되었지만, 품목별 합계와 두류 전체 합계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음(1959농림통계연보, p.79).
1975	완두	경상남도	ha	137.1	173.1	경상남도 완두 재배면적이 137.1ha로 발표되고 있지만, 두류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 지역합계가 36ha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수계산도 틀리게 나오므로써 173.1ha로 수정 필요(1976년 농림통계연보, p.87).
1951	콩	전국	정보	251,930.2	251,936.2	
1952	콩	경상북도	정보	74,877.9	74,817.9	지역별 합계가 266,326.3정보인데 반해, 전국수치가 266,266.3정보로 발표되고 있어 60정보의 차이가 발생함(1953농림통계연보, p.80). 지역별 품목합계와 비교해 본 결과, 경상북도 콩 재배면적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1994	콩	강원	ha	6,613.0	7,613.0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1,000ha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 재배면적의 경우 작물별 파종면적은 7,613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부면적에서는 6,613ha로 발표됨으로써 그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08, 87).

<서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1	감자	서울	정보	21.1	123.3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경기도	정보	4,223.7	3,057.9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충청북도	정보	4,784.0	3,613.2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충청남도	정보	2,634.9	5,250.0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전라북도	정보	3,593.1	4,143.0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전라남도	정보	2,064.9	2,100.0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경상북도	정보	9,769.4	10,097.3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경상남도	정보	2,866.8	2,715.0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강원도	정보	16,854.8	7,468.1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제주도	정보	115.2	233.9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1	감자	전국	정보	46,927.9	38,801.7	1951년 감자 정곡 자료와 1945~50년 평균자료가 바뀐 채 발표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 통계연보, p.101).
1952	감자	경상남도	정보	2,265.8	2,265.9	1952년 경상남도 감자 재배면적이 2265.8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품목별 합계와 총 면적을 비교해 보면 0.1정보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2265.8→2265.9정보로 수정함.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1	고구마	강원도	정보	3,436.6	436.6	1941년 남한측 강원도 고구마 작부면적이 3,436.6정보로 발표되고 있고, 북한측 강원도 작부면적이 436.7정보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 3436.6→436.6(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9).
1950	고구마	전라북도	정보	8,500.0	8,550.0	1950년 전라북도 고구마 작부면적이 8,500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고구마 생서 작부면적은 8,550정보로 발표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99	고구마	울산	ha	106.0	108.0	1999년 울산 고구마 재배면적이 106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재배면적(p.77)에는 108ha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야 전국수치와 지역별 합계가 일치하게 됨(2000년 농림통계연보, p.99).
1951	고구마 정곡	서울	정보	11.8	21.5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경기도	정보	4,542.6	1,463.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충청북도	정보	1,438.2	1,122.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충청남도	정보	3,356.5	3,277.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전라북도	정보	8,222.2	8,550.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전라남도	정보	13,865.0	13,500.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경상북도	정보	1,223.9	1,750.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51	고구마 정곡	경상남도	정보	5,775.9	5,176.0	감자 작부면적과 마찬가지로 1951년 자료로 1945~50년 평균치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07).

<과실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0	복숭아	충청북도	정보	68.3	36.8	1940년 충북의 복숭아 작부면적이 68.3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계산을 해보면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0).
1942	복숭아	충청남도	정보	34.8	74.8	1942년 충청남도 복숭아 작부면적이 34.8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단수를 계산해 보면 충청남도 재배면적을 수정해야 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1).
1944	복숭아	충청남도	정보	615.1	168.1	1944년 충청남도 복숭아 작부면적이 615.1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통해 면적을 계산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11).
1938	감	전라북도	정보	6,127.0	613.0	1938년 전라북도 감 작부면적이 6127정보로 발표되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 본 결과 지역별 합계와 전국면적 차이만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4).
1939	감	경상남도	정보	970.1	790.1	1939년 경상남도 감 작부면적이 970.1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계산해 본 결과 발표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4).
1969	기타 과일류	전국	정보	2,575.3	2,576.3	지역별 합계가 전국수치보다 1정보 더 많이 발표됨으로써 전국합계와 품목별 합계의 전국수치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과실류 전국합계를 하면 기타 과실류 재배면적이 1정보 추가되어야 함(1970년 농림통계연보, p.219).
1949	기타 과실류	전국	정보	752.0	752.6	1949년 전국 기타과실 작부면적이 752.0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9).
1981	기타 과실류	부산	정보	-	1.0	1981년 부산 작부면적이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정오표에서 1ha로 정정하고 있음(1982년 농림통계연보, p.98).

<채소류>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6	수박	전라남도	정보	831.3	381.3	1946년 전라남도 수박 작부면적이 831.3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계산해 보면 발표되고 있는 자료와 크게 차이를 보임. 따라서 381.3정보로 수정하는게 바람직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58).
1983	수박	전국	ha	13,356.0	13,366.0	1983년 작부면적이 13,356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면적을 합해보면 13,366ha이며 수박 과종 면적을 봐도 이 수치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1984년 농림통계연보, p.82).
1999	노지수박	충청북도	ha	1,442.0	1,422.0	1999년 충청북도 노지수박 재배면적이 1,442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재배면적에서는 1,422ha로 발표되고 있어 이 수치로 수정함(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2).
2001	시설수박	전라북도	ha	1,909.0	1,969.0	
1999	시설토마토	인천	ha	240.0	24.0	1999년 인천 시설토마토 재배면적이 240ha로 발표되고 있으나, 작물별 과종면적에는 24ha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야 전국수치와 지역별 합계가 일치하게 됨(2000년 농림통계연보, p.107).
1947	오이	전국	정보	4,530.9	4,530.7	1947년 참외 전국 작부면적이 4,530.9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지역별 합계와 전국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작부면적, 생산량, 단수의 차이가 별로 없어 전국수치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76).
1960	참외	경상북도	정보	485.6	485.8	전국합계와 지역별 합계가 틀리게 나오는데, 이를 채소류 전국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보면, 경상남도가 0.2정보 적게 발표되고 있음(1961년 농림통계연보, p.116).
1955	토마토	전국	정보	741.5	751.5	
1955	토마토	전라남도	정보	25.0	35.0	전라남도 단수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296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계산하면 414관임. 채소류 합계 비교치인 10정보를 전라남도에 추가하여 계산하면 296관이 계산됨(1956년 농림통계연보, p.174).
1994	토마토	전국	ha	3,169.0	3,619.0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62	호박	전국	정보	19,820.0	6,244.6	1962년 재배면적이 19,820정보→6,244.6정보로, 98,837톤→69,335.4톤으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음. 1962년 경상남도 호박 재배면적, 생산량이 그 전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단층현상을 보이고 있었던 바, 1966년 농림통계를 작성하면서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임(1966년 농림통계연보, p.251).
1953	가지	충청북도	정보	107.2		확인 필요
1998	엽채류	강원도	ha	10,089.0	10,069.0	1998년 강원도 엽채류 면적 합계가 10,089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합계와 파종면적을 보면 10,069ha로 발표되고 있어 기재 오류인 것으로 보임(1999년 농림통계연보, p.100).
1998	엽채류	전라북도	ha	4,184.0	4,194.0	1998년 전라북도 엽채류 면적 합계가 4,184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합계와 파종면적을 보면 4,194ha로 발표되고 있어 기재 오류인 것으로 보임(1999년 농림통계연보, p.100).
1938	배추	전국	정보	27,402.4	27,392.4	1938년 배추 남한 작부면적이 27,102.4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지역별 합계와 전국 면적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자료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국수치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56).
1943	배추	강원도	정보	134.0	134.9	1943년 남측 강원도 배 작부면적이 134정보로 발표되었고, 북한측 면적은 135정보로 발표됨. 따라서 남측 강원도 면적을 전국과 지역별 합계 차이만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201).
2001	시설 배추	충청남도	ha	524.0	504.0	
1950	시금치	전국	정보	1,010.9	1,010.6	1950년 시금치 전국 작부면적이 1,010.9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와 달라 이를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83).
1949	무	전라남도	정보	6,326.3	6,726.3	1949년 전라남도 무 작부면적이 6,326.3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계산한 결과 6,711정보가 됨. 하지만 지역별 합계와 전국 작부면적의 차이인 400정보만 전남면적에 추가시킴 6,326.3→6,726.3(1952년 농림통계연보, p.153).
1999	노지 가을무	대구	ha	773.0	73.0	1999년 대구 노지가을무 재배면적이 773ha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계산에서도 틀리며, 작물별 파종면적에서도 73ha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2000년 농림통계연보, p.112).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7	우영	경상남도	정보	85.7	85.0	전국합계와 지역별 합계가 맞지 않은데, 07채소류 합계와 품목별 합계를 비교해 본 결과 경상남도가 0.7정보가 초과되고 있음(1958농림통계연보, p.170).
1987	조미채소	전국	ha	174,272.0	174,262.0	1987년 강원도 양파 재배면적에 5월 이후 파종한 10ha는 생산량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도 총 재배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함.
1987	조미채소	강원도	ha	11,009.0	10,999.0	1987년 강원도 조미채소 재배면적으로 11,009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양파 생산량 조사에는 5월 이후에 파종된 10ha의 생산량은 조사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미채소 재배면적에는 이 재배면적도 포함하여 발표됨. 따라서, 여기서는 10ha를 뺀 10999ha로 사용함(1988년 농림통계연보, p.98).
2000	조미채소	강원도	ha	6,695.0	6,665.0	
1947	마늘	전국	정보	6,064.3	6,065.3	1947년 전국 마늘작부면적으로 6,064.3정보가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별 합계보다 적게 발표되고 있음. 따라서, 6,064.3→6,065.3정보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76).
2000	마늘	충청북도	ha	3,919.0	1,029.0	2000년 충청북도 마늘 재배면적으로 충청남도 면적이 발표되고 있음. 따라서, 누락된 충청북도 마늘 재배면적으로 작물별 파종면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1,029ha으로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87, 115).
2000	마늘	충청남도	ha	-	3,919.0	충청북도 마늘 재배면적이 누락되어 충북 면적으로 잘못 발표되고 있음(2001년 농림통계연보, p.87, 115).
2000	마늘	경상남도	ha	6,936.0	6,736.0	경상남도 재배면적으로는 6,936ha, 작물별 재배면적으로는 6,736ha가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원래 발표된 자료로 10a당 생산량을 계산하면 발표되고 있는 자료와 다름. 따라서, 6,736ha로 수정함(2001년 농림통계연보, p.87, 115).
1967	생강	전국	정보	603.0	630.0	1971년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630정보로 발표되고 있음(1971년 농림통계연보, p.219).
1954	양파	경기도	정보	1.6	-	지역별 오발표 수정
1954	양파	충청북도	정보	125.5	1.6	상동
1954	양파	충청남도	정보	37.7	125.5	상동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4	양파	전라 북도	정보	1,184.0	37.7	상동
1954	양파	전라 남도	정보	6.0	1,184.0	상동
1954	양파	경상 북도	정보	212.7	6.0	상동
1954	양파	강원 도	정보	80.2	-	상동
1954	양파	제주 도	정보	-	80.2	상동
1949	기타 채소류	경상 북도	정보	1,766.4	1,666.4	1949년 기타채소 경상북도 작부면적이 1,766.4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작부면적을 산출한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 면적을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95).

<특용작물>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47	들깨	전남	정보	520.8	250.8	1947년 작부면적이 520.8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계산해 보면 발표량에 비해 크게 부족함. 따라서 작부면적을 520.8→250.8정보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6).
2001	들깨	서울	ha	30.0	20.0	
1961	아마	전국	정보	273.2	293.2	1961년 아마 재배면적이 273.2정보로 발표되었으나 1967년 농림통계연보(p.185)에서만 293.2정보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필요.
1938	육지면	전국	정보	183,620.8	183,620.3	1938년 남한측 육지면 재배면적이 183,620.8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총 재배면적에서 북한측 면적을 제외하면 183,620.3정보로 나타나 이를 수정해야 함. (1952년 농림통계연보, p.114).
1973	양송이	전국	ha	665,976.0	220.2	1973년 양송이 재배면적 단위는 '평'으로, 단위당 수량은 평당 생산량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220.2ha로 수정되어 발표되고 있음(1974년 농림통계연보 p.86, 1975년 농림통계연보 p.83).
1948	피마자	경상남도	정보	279.0	275.0	1948년 작부면적으로 279정보가 발표되었으나, 생산량과 단수로 면적을 계산해보면 발표자료가 약간 높음. 따라서 경남 279→275정보로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132).
1951	피마자	제주	정보	0.9	9.0	지역별 합계와 전국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수계산을 해 보면 제주도가 3,555가 나와야 하므로, 재배면적을 0.9에서 9정보로 수정해야 지역별 합계 및 단수가 일치하게 됨.
1943	왕골	충청북도	정보	476.1	276.1	1943년 왕골작부면적이 476.1정보로 발표되고 있지만, 단수를 계산하면 발표자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1952년 농림통계연보, p.125).
1969	유채	전국	ha	22,941.5	27,941.5	1974년 농림통계연보에서 22,941.5ha로 발표되었으나, 1975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원래 발표되었던 27,941.5정보로 발표되고 있음. 면적 단위로 '정보'와 'ha'가 번갈아 쓰인 것은 1973년에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는데도 '정보'로 발표된 자료가 'ha'로 다시 발표되었기 때문임(1975년 농림통계연보 p.85).
1957	참깨	강원	정보	830.2	380.2	정오표에 의한 수정(1958농림통계연보, 153p)
1945	땅콩	전국	정보	395.9	396.9	1945년 땅콩 작부면적이 395.9정보로 발표되었으나 땅콩 조곡 작부면적에는 396.9정보로 나타나 수정함(1952년 농림통계연보, p.88, 92).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50	땅콩	경상북도	정보	70.0	700.0	1950년 경상북도 땅콩재배면적이 70정보로 발표되고 있으나 땅콩 조곡 작부면적에는 700정보로 발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함. 70→700(1952년 농림통계연보, p.89, 99).
1952	땅콩	경상남도	정보	6.9	693.5	경상남도 면적이 6.935로 나와 있어 기재시 잘못된 것 같음. 자료에는 693.5정보로 입력했으며, 이렇게 수정하여 입력해야 전국수치와 일치함(1953농림통계연보, p.81).
1953	땅콩	제주도	정보	7.2	-	1951년, 1952, 1954년 제주도 땅콩 재배면적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53년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품목별 합계와 두류합계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는 부족하게, 제주도는 초과되고 있음. (1954년 농림통계연보, p.91).
1953	땅콩	강원도	정보	-	7.2	상동

<기타>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86	뽕밭	전국	ha	19,542.0	10,765.0	1986년에 표본조사결과라고 밝히면서 19,542ha가 발표됐지만, 1988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0,765ha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경기도	ha	776.0	515.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강원도	ha	1,135.0	709.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충청북도	ha	2,280.0	1,428.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충청남도	ha	1,481.0	642.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전라북도	ha	3,126.0	1,373.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전라남도	ha	2,177.0	1,283.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경상북도	ha	5,032.0	2,621.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1986	뽕밭	경상남도	ha	3,535.0	2,194.0	1985년 표본을 재설계, 86년 시험조사, 1987년 신표본에 의한 작부면적의 조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임(1988년 농림수산통계연보, p.133).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99	뽕밭	전국	ha	1,466.0	670.0	1999년 뽕밭면적이 1,466ha로 발표됐지만 작물별 파종면적은 670ha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후 계속 이 자료가 쓰이고 있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20, 92).
1999	뽕밭	전국	ha	1,466.0	670.0	1999년 뽕밭면적이 1,466ha로 발표됐지만 작물별 파종면적은 670ha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후 계속 이 자료가 쓰이고 있음(2000년 농림통계연보, p.120, 92).
1999	뽕밭	대구	ha	1.0	-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인천	ha	4.0	-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광주	ha	5.0	-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경기도	ha	18.0	15.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강원도	ha	39.0	35.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충청북도	ha	86.0	48.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충청남도	ha	144.0	85.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전라북도	ha	352.0	147.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전라남도	ha	250.0	96.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경상북도	ha	365.0	150.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연도	품목명	지역	단위	발 표	수 정	비 고
1999	뽕밭	경상 남도	ha	202.0	94.0	1999년 뽕밭면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2000년 농림통계연보에서는 작물별 재배면적으로 발표된 자료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1999	뽕밭	전국	ha	1,466.0	670.0	1999년 뽕밭면적이 1,466ha로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과종면적에서는 670ha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필요(2000년 농림통계연보, p.120, 92). 산견량과 같이 나온 뽕밭면적으로 1,466ha가 발표되고 있지만, 작물별 재배면적 및 2000년에도 670ha가 발표되고 있어 이를 이용함(2000년 농림통계연보, p.120, 92, 43).



## 정 오 표

쪽	연도	품목명	지역명	오	정
121p	1993	맥류	충 남	1,479.0	1,491
122p	1968	겉보리	제 주	12,885.1	12,885.0
122p	1940	쌀보리	전 남	쌀보리	밀
133p	1998	기타과실류	전 국		삭제
138p	1962	양배추	충 남	충남	충북
138p	1962	양배추	충 남	209,103.0	209,103.8
138p	1962	양배추	전 국	21,313,178.0	21,313,177.5
141p	1937	왕골	경 북	21,369.0	213,069.0
141p	1961	홉	전 국		삭제
143p	1965	담배	전 국		삭제
152p	1947	오이	전 국	오이	참외
153p	1953	가지	충 북		삭제
153p	1943	배추	강원도	배추	배
154p	2000	조미채소	강원도	2000년	2001년
154p	1967	생강	전 국		삭제
156p	1969	유채	전 국		삭제
159p	1999	뽕밭	전 국		1, 2행 삭제